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0152-000036-14

국립민속박물관 학술총서 37

2003

한국의 제사

祭祀



국립민속박물관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발 간 사

우리관에서는 전통 제례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통과의례 조사의 일환으로 『한국의 초분』 발간과 더불어 국가제사에서부터 집안제사에 이르는 『한국의 제사』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사회에서 제사는 국가적인 행사로서, 이를 주관하는 왕은 하늘과 땅에 대한 제사를 통해 왕으로서의 위상과 유교적 통치이념을 백성들에게 펼치고자 하였습니다. 조선시대 『국조오례의』를 보면, 제사 규모를 정하여 왕이 직접 참여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왕을 대신해서 관리들이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오늘날 국가제사는 화석화되어 그 의미가 상실되었지만, 종묘대제가 세계인에게 주목받고 있듯이, 제사 문화를 연구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한편 집안에서는 주인을 중심으로 세시마다 제사를 주관하게 함으로써 주인으로서의 위상과 가족 구성원을 이끄는 구심점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집안제사는 조상을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자식은 부모에게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 후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효도라는 산 교육을 체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사가 지닌 근본과 의미는 같으나, 제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려 했는가에 따라 조금씩 행례방식이 다릅니다. 집안의 내력, 지역적 특색, 학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것은 집안 나름의 전통을 지키는 버리이자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우리관에서는 원구단, 사직단, 종묘, 문묘 등의 국가제사와, 불천위를 중심으로 유훈(遺訓), 가례서(家禮書), 홀기(笏記) 등이 남아 있는 종가의 기제, 묘제, 차례를 현지 조사하였습니다. 이런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 책은 제사에 대한 연구와 관심의 부여는 물론이고, 제사라는 조상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매개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제사 참관 및 자료 협조에 도움을 주신 종가 어르신과 이를 위해 노력한 우리관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03. 12. 27

국립민속박물관장 김홍남



목 차

- 발간사
- 발간 개요

제1장 국가제사

제1절 국가제사의 분류와 편제

제2절 국가제사의 종류

1) 원구단	12
2) 사직단	20
3) 종 묘	32
4) 산 릉	48
5) 선농단과 선잠단	52
6) 관왕묘	56

제3절 성헌제사

1) 석 전	58
2) 서원향사	66

제2장 집안제사

제1절 집안제사의 내용과 의미

1) 제사의 의미	88
2) 제사의 종류와 의미	88
3) 제사의 변천	89
4) 봉사 대수	89
5) 제사 장소	90
6) 제사 대상	90



제2절 사당과 신주

1) 사 당	92
2) 신 주	103

제3절 제물 진설

1) 진설할 때	122
2) 진찬할 때	126
3) 헌작할 때	128
4) 진다할 때	128

제4절 집안제사의 종류와 관행

1. 기제

1) 기제의 정의	130
2) 불천위 제사	132
3) 기제 절차	134

2. 묘제와 시제관행

1) 예서의 사시제와 시제관행	204
2) 묘제	205
3) 묘제 절차	206

3. 절사와 차례

1) 절사	228
2) 차례	237

● 외국어초록

● 발간개요 ●

『한국의 제사』는 사라져 가는 전통 제례의 자료 수집 및 조사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제사에서부터 집안제사에 이르는 유교적 제사 관행과 문헌자료 조사를 토대로 정리한 조사연구보고서이다.

제사는 원래 대상에 따라 천신(天神)에게는 사(祀), 지기(地祇)에게는 제(祭), 인귀(人鬼)에게는 향(享), 문선왕(文宣王) 공자에게는 석전(釋奠)이라 하여 제사 명칭을 구분하였는데, 후대로 오면서 이러한 구분없이 모두 제사라 칭하게 되었다. 제사는 일반적으로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드리거나,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하는 의식이다. 국가에서는 제사를 통해 하늘, 땅의 힘을 빌어 국가의 안녕과 왕권의 위상을 나타내었고, 집안에서는 조상을 추모함으로써 자손의 번영과 화목을 도모하였다.

이 책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 동안 『국조오례의』 「사전(祀典)」에 등재된 국가제사와 집안제사 가운데 직접 참관하여 조사한 내용과 문헌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특히 문헌에 나오는 제사 내용과 실재 행하고 있는 제사 내용을 통해서 제사가 갖는 의미와 변화의 내용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국가제사는 『국조오례의』, 『춘관통고』, 『대한예전』 등 국가 사전에 등재된 원구단, 사직단, 종묘, 산릉, 선농단, 선잠단, 관왕묘를 중심으로 제사의 역사와 제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중에 현행되고 있는 종묘대제, 사직대제, 산릉 기신제, 남원, 단성 등의 지방 사직제는 현지 조사를 토대로 기술한 것이다.

석전은 서원 향사와 함께 국가제사 안에 성현제사로 분류하였고, 강릉향교, 나주향교, 밀양향교를 현지 조사하였다. 지방의 서원 향사는 지방 유림이 성현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는 의례이지만, 석전에 준하여 향사를 행하기 때문에 이에 포함시켰고, 대구 도동서원, 안동 병산서원, 논산 돈암서원, 장성 필암서원, 성주 회연서원, 화순 도원서원을 현지 조사하였다.

집안제사는 『주자가례』를 중심으로 『국조오례의』, 『상례비요』, 『사례편람』

『가례증해』 등을 참조하여 기제, 묘제(시제관행), 절사와 차례로 분류, 기술하였으며, 내용의 이해를 위해 사진과 예서에 나오는 그림자료를 실었다. 집안제사는 불천위를 중심으로 유훈(遺訓), 가례서(家禮書), 홀기(笏記) 등이 남아 있거나, 지역별 또는 학문적으로 예학에 영향을 끼친 불천위 종가를 대상으로 제사관행을 조사하였다. 집안제사를 조사한 주요 종가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 : 고양 율곡(이이) 종가

충청도 : 논산 사계(김장생), 의정공(김국광), 대전 동춘당(송준길),

청주 우암(송시열) 종가

전라도 : 장성 하서(김인후), 해남 고산(윤선도), 영광 영월신씨 종가

경상도 : 고령 점필재(김종직), 대구 한훤당(김굉필), 예천 초간(권문해),

봉화 충재(권벌), 안동 농암(이현보), 퇴계(이황), 서애(류성룡),

학봉(김성일), 상주 우복(정경세) 종가

이러한 제사 관행의 조사 내용과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국가제사와 집안제사를 정리하였는데, 조사 및 발간 기획은 정중수(민속연구과 과장)가 하였고, 현지 조사 및 원고 집필은 최순권(학예연구사)이 하였다. 교정은 최순권, 박수환(연구원)이 하였고, 사진촬영은 현지 조사에 참여한 황헌만, 서헌강, 이돈기, 최호식, 주병수, 차정환, 고경희, 홍덕선, 김동진(사진작가)이 하였다.





제 1장 국가제사

- 제 1절 국가제사의 분류와 편제
- 제 2절 국가제사의 종류
- 제 3절 성헌제사

제 1 절

국가제사의 분류와 편제

제사(祭祀)는 신령(神靈)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하거나 돌아간 이를 추모하는 의식을 통틀어 말한다. ‘제(祭)’자는 갑골문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희생의 고기를 손으로 바치는 상형 문자이고, 금문(金文)에는 땅귀신 ‘기(示)’자를 덧붙혀 신에게 희생을 바치는 회의문자로서, 대체로 자연신이나 조상신에게 희생을 바치고 복을 기원하는 의식이었다. 그래서 하늘, 땅 등의 힘을 빌어 국가의 안녕과 왕권의 위상을 나타내었고, 조상을 추모함으로써 자손의 번영과 친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였다.

처음에 제사는 대상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였다. 『국조오례의』에서 천신(天神)에 지내는 제사를 사(祀), 지기(地祇)에게 지내는 제사를 제(祭), 인귀(人鬼)에게 지내는 제사를 향(享), 문선왕(文宣王) 공자에게 지내는 제사를 석전(釋奠)이라고 분류하였듯이, 대상에 따라 제사의 명칭을 달리 하였다. 그래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원구단(圓丘壇), 땅과 곡신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직단(社稷壇), 농사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선농단(先農壇), 누에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선잠단(先蠶壇) 등의 단을 마련하여 자연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반면에 왕실의 조상신을 모시는 종묘(宗廟), 공자를 모시는 문묘(文廟), 관우(關羽)를 모시는 관왕묘(關王廟), 그리고 집안에 조상을 모시는 가묘(家廟) 등의 사당에서는 조상 및 성현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러한 분류는 『국조오례의』, 『대한예전』 등에까지 이어지는데, 오늘날에는 이를 통칭하여 제사라고 한다.

『예기』를 보면, 천자는 하늘에 대해 제사를 지내고, 제후는 땅과 산천에 대해 제사를 지낸다고 했다. 이에 의거해서 왕은 중요한 제사를 직접 주관하였고, 그 외는 왕을 대신해서 관리나 지방의 수령이 제사를 지냈다. 이를 통칭하여 국가제사라고 하는데, 고려의 『고금상정례』, 조선의 『국조오례의』, 대한제국의 『대한예전』 등의 국가 사전(祀典)에는 제사의 중요도에 따라 대사, 중사, 소사로 분류하여 제사의 규모 및 일시 등을 정하였고, 국가의 정책이나 이념에 속하지 않은 제사는 잡사, 음사로 규정하였다.

	『고려사』 예지	『국조오례의』 사전	『대한예전』 사전
대사 (大祀)	원구(*丘), 방택(方澤), 사직(社稷), 태묘(太廟), 별묘(別廟), 제릉(諸陵) 경령전(景靈殿)	사직(社稷), 종묘(宗廟), 영녕전(永寧殿)	원구단(*丘壇), 종묘(宗廟), 영녕전(永寧殿), 사직단(社稷壇), 대보단(大報壇)
중사 (中祀)	적전(籍田), 선잠(先蠶), 문선왕묘(文宣王廟)	풍운뢰우(風雲雷雨), 악해독(嶽海漬), 선농(先農), 선잠(先蠶), 우사(雨師), 문선왕(文宣王), 역대시조(歷代始祖)	선농(先農), 선잠(先蠶), 우사(雩祀), 경모궁(景慕宮), 문묘(文廟), 역대군왕(歷代君王), 관왕묘(關王廟)
소사 (小祀)	풍사(風師), 우사(雨師), 뢰신(雷神), 영성(靈星), 마조(馬祖), 선목(先牧), 마사(馬社), 마보(馬步), 사한(司寒), 제주현문선왕묘 (諸州縣文宣王廟), 사대부서인제례 (士大夫庶人祭禮)	영성(靈星), 노인성(老人星), 마조(馬祖), 명산대천(名山大川), 사한(司寒), 선목(先牧), 마사(馬社), 마보(馬步), 마제(祭), 영제(祭), 포제(祭), 칠사(七祀), 독제(蠡祭), 여제(祭)	악진해독(嶽鎭海漬), 명산대천(名山大川), 성황(城隍), 사토(司土), 사한(司寒), 마조(馬祖), 마제(祭), 영제(祭), 포제(祭), 칠사(七祀), 중류(中), 독제(蠡祭), 여제(祭), 계성사(啓聖祠), 선무사(宣武祠), 사현사(四賢祠), 관군사(官軍祠), 옥추단(玉樞丹), 천거(川渠), 지진(地震), 영월배식단(寧越配食壇), 제주풍운뢰우(濟州風雲雷雨)

이밖에 위의 표와 같이 선농단, 선잠단, 성황단 등의 단과 역대 군왕을 모신 사당과 중국의 관우를 모신 관왕묘 등의 사당, 명산대천 등의 제사가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국가에서 관할하며, 제수 비용도 지원한다. 지방의 단과 묘는 지방 수령이 관할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왕이 치제문과 아울러 제수를 내리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국가제사의 특징은 국가의 대사(大祀)인 만큼 신명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음악을 연주하고 일무를 춘다. 또한 제수로는 근본에 보답하는 의미로 옛 조상들이 상고시대에 고기를 익히지 않고 먹고 살았던 것을 본떠 소, 양, 돼지 등의 날고기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제사는 일제강점기에 폐지되어 종묘 등은 국가재산으로 귀속되기도 하고, 지방의 사직단, 성황단, 관왕묘 등은 고을에서 계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으로 관리 운영하게 되었다. 이에 현재 종묘 및 사직단, 왕릉 등의 관리는 문화재청에서, 제사는 전주이씨종약원에서, 문묘에서의 석전은 성균관 및 지방 향교의 유림들이 주관하고 있으며, 특히 관왕묘의 경우는 양로회, 사찰, 무속 등 종교단체에서 관리, 주관하고 있는 등 국가제사로서의 면모를 잃고 있다.

제 2 절

국가제사의 종류

1) 원구단

원구단은 천자가 하늘에 제사지내는 둥근 단으로 원구단(圓丘壇), 원단(圓壇), 황단(皇壇), 천단(天壇), 또는 환구단이라고 하였다. 옛날에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이라 하여 하늘에 제사드리는 단을 둥글게, 땅에 제사드리는 단을 모나게 쌓았다. 그리고 유교적 제사 개념에서 하늘에 대한 제사는 천자만이 지내고, 제후 이하는 사직 및 명산대천에 대한 제사만 지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삼국사기』를 보면, 고구려는 매년 3월 3일에 낙랑의 언덕에 모여 사냥을 하고 돼지와 사슴을 잡아서 하늘과 산천에 제사지냈다고 하며, 백제에서는 정월에 대단 및 남단에서 천신과 지기에 제사지냈다고 한다.

그러나 본격적인 유교식 제천의례를 지낸 것은 고려시대였다. 『고려사』에는 성종 2년(983) 정월에 왕이 원구단에 기곡제(祈穀祭)를 지내고 태조를 배향하였는데, 이 때부터 기곡제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고려시대에는 정월 첫 신일(上辛)에 원구단에서 기곡제를 지내고, 4월에는 길일을 택하여 우제(雩祀)를 지냈다.

조선시대에는 태조 3년 8월에 “우리 나라에서는 삼국시대 이래로 원구단(圓丘壇)에서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기곡(祈穀)과 기우(祈雨)를 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경솔하게 폐할 수 없습니다. 사전(祀典)에 기록하여 옛날 제도를 회복하되 이름을 원단(圓壇)이라 고쳐 부르기 바랍니다” 고 하여, 고려의 제도를 따라 원구단을 세워 천황대제(天皇大帝)와 오방대제(五方五帝 : 東方青帝 · 西方白帝 · 南方赤帝 · 北方黑帝 · 中央黃帝)의 신위를 봉안하였다.

그러나 조선왕조는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적 관념에서 원구단을 폐지하자는 주장과 함께, 태종 11년 12월에는 “우리 나라의 위치가 동방인즉 동방청제에만 제사드려야 한다” 라든지, 태종 16년 6월에는 변계량과 같이, “우리 동방은 단군(檀君)이 시조인데, 대개 하늘에서 내려왔고 천자가 분봉(分封)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늘에 제사하는 예가 어느 시대에 시작하였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1천여 년이 되도록 이를 고친 적이 아직 없었으며, 태조가 이를 따라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폐지할 수 없습니다” 라는 원구단 폐지 반대 주장도 있었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제후국으로서 기우를 목적으로 제천하자는 논의가 전개되어 세종대까지 호천상제와 오제만은 대신이 섭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세종 25년 이후로 제천에 대한 고제 연구가 심화되면서 제후국으로서 제천의례는 참람하다고 하여 원구단은 폐지되었고, 대신에 우사단에서 기우제만을 지냈다.

세조대에 잠시 집권 초기 사육신 사건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정치적 격변 속에서 왕권의 이념적 강화를 위해 원구단에서 제천의례가 행해졌다. 세조 2년 12월에 고려의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에서 “원구단(°丘壇)이 주위가 6장(丈) 3척(尺)이고, 높이는 5척인데, 12폐(陛), 3유(°가 있고 유(°마다 25보(步)이고, 주원(周垣)이 사문(四門)이고 요단(燎壇)이 신단(神壇) 남쪽에 있으며, 대사(大祀)는 넓이가 1장(丈)이고 높이가 1장(丈) 2척(尺)인데, 호(戶)가 정방(正方) 6척(尺)이고, 위는 터놓고 남쪽으로 나간다”고 한 것처럼 원구단을 설치하되, 다만 주원(周垣) 사문(四門)은 설치하지 말게 하였다.

이어 세조는 세조 3년 1월 15일에 면복(冕服)을 갖추어 입고 원구단(°丘壇)에 올라 제사를 지냈다. 호천상제위(昊天上帝位)·황지기위(皇地祇位) 및 태조위(太祖位)에는 세조가 친히 삼헌(三獻)을 행하였고, 대명위(大明位) 및 풍운뢰우위(風雲雷雨位)에는 세자(世子)가 삼헌(三獻)을 행하고, 야명위(夜明位) 및 동·남·북·서해(東南北西海), 악독산천위(岳瀆山川位)에는 영의정(領議政) 정인지(鄭麟趾)가 삼헌을 행하였다. 그러나 세조 이후 원구단이 폐지되면서 원구단에 대한 제의가 『국조오례의』에 빠지게 되었다.

대한제국기에 고종이 황제로 등극하면서 소공동에 원구단과 황궁우(皇穹宇)를 세워 본격적인 황제즉위식을 거행하고 천자로서 제천의례를 거행하였다. 원구단에는 황천상제(皇天上帝)와 황지기(皇地祇), 그밖의 북두칠성, 오악(五嶽), 사해(四海) 등의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으며, 황궁우에는 황천상제, 황지기와 짝하여 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의 신위를 모셨다. 원구단에서는 동지(冬至)에 제천의례를 지내고, 정월 상신(上辛)에는 기곡제를 지냈다.

『대한예전』을 보면, “원구는 황성(皇城) 안 회현방(會賢坊) 경운궁(慶運宮)의 동쪽에 있다. 단지 그 예(禮)만을 취하여 그 유적에 대해서는 구애되지 않기 때문에 교(郊)라 하지 않고 원구라 한 것이다. 대개 시제(時制)로서 마땅하게 하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1897년 10월 12일의 『독립신문』에 의하면, 환구단 전체는 3층으로 된 둥근 단으로서, 맨 아래층은 영조척으로 144척, 제2층은 72척이며, 맨 위층은 36척인데, 둘로 3척 높이로 쌓았고, 바닥에는 벽돌을 깔았다고 한다. 그리고 맨 아래 층 둘레에는 돌과 벽돌로 담을 쌓았으며, 동서남북으로 홍살문을 세웠는데, 그 중에 남문은 삼문이라고 하여 원구단의 규모를 밝혀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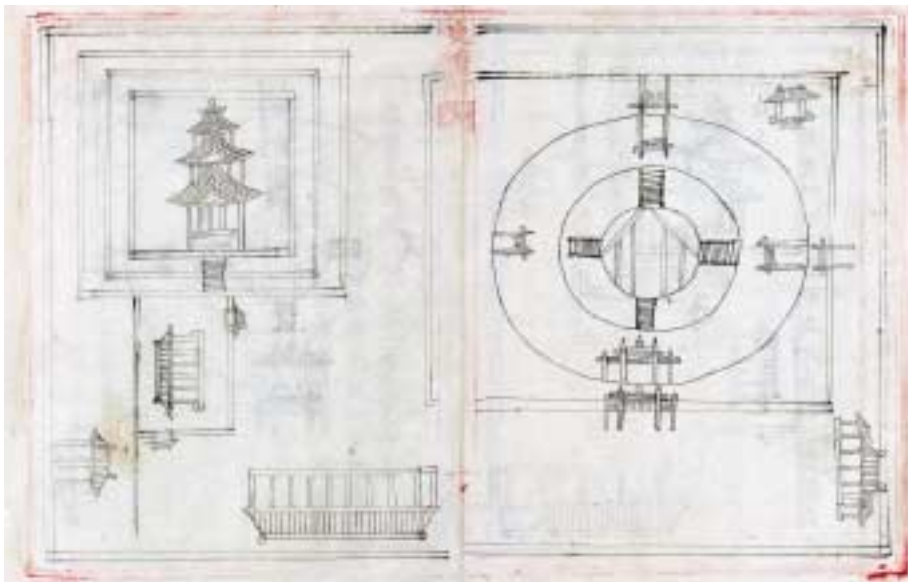
『대례의궤(大禮儀軌)』에 의하면, 10월 14일에 고종은 백관을 거느리고 원구단에 나아가 천지신에게 제사를 지낸 후에 그 자리에서 황제즉위식을 거행하였다. 단의 제1층의 북쪽에서 동쪽에 가깝게 황천상제의 위판을 남향으로 설치하고, 서쪽에 가깝게 황지기의 위판을 남향하여 설치하며, 단 제2층의 동쪽에는 대명(大命)을, 서쪽에는 야명(夜命)을 설치한다. 단 제3층의 동쪽에는 북두칠성, 오성(五星), 이팔수

(二八宿), 주천(周天), 성신(星辰), 오악(五嶽), 사해(四海), 명산(名山), 성황(城隍)의 위패를 설치하고, 서쪽에는 운사(雲師), 우사(雨師), 풍백(風伯),뢰사(雷師), 오진(五鎭), 사독(四瀆), 대천(大川), 사토(四土)의 위패를 설치하였다.

제사 준비가 다 되면, 시단(柴壇)에서 나무를 태우고, 요단(燎壇)에서 소머리를 구워서 신을 맞이하는 영신례를 행한다. 그리고 황제가 황천상제와 황지기 신위에 가서 북향하여 삼상향을 하고 울창주를 따르며, 옥백을 올리고 조육(俎肉)을 올리는 강신례를 행한다. 황제가 첫 번째 작을 올리고 독축을 하는 초헌례를 행하며, 아헌, 종헌도 황제가 행한다. 삼헌이 끝나면, 분헌관이 각 단의 신위에 올라가 삼상향하고 집작, 헌작, 전작하는 분헌례를 행한다.

헌작이 끝나면 황제는 음복위에 나아가 황천상제에게 올렸던 술과 조육을 내려 복을 받는 음복수조례를 행하고, 제천의례가 끝남을 상징하는 의미로 변두를 조금 옮기고 사배를 하는 사신례를 행하며, 망료위에 나아가 축문과 폐백을 태우는 망료례를 행한다. 이어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였다. 즉 원구단에서 고종의 황제 즉위와 대한제국의 등장을 천지에 알리고 대내외에 선포하였다.

1902년에는 고종황제의 즉위 40년을 경축하기 위해 석고단(石鼓壇)을 세웠다. 그러나 원구단 제사는 1908년에 간소화되어, 1월의 원구단 대제는 종묘, 사직과 함께 1인이 3헌관을 겸하게 되었고, 7월에는 1년에 2차로 축소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국가를 상징하는 원구단 제사가 폐지되어, 원구단과 그 부지는 조선총독부로 넘어갔다. 1914년에는 원구단을 헐고 그 자리에 조선총독부 철도호텔(지금의 조선호텔)을 세워, 현재 황궁우와 석고단만 남아 있다.



원구단 도설 | 『대한예전』 장서각 소장



① 황궁우 전경(그림엽서)
 ② 원구단 전경(그림엽서) | 하늘에 제사드리는 단이기 때문에 3단으로 동글게 만들었다.
 일제강점기에 원구단을 헐고 그 자리에 조선총독부 철도호텔을 세웠으며, 현재는 황궁우만 남아 있다.





- ① 황궁우 전경 | 황궁우는 황천상제, 황지기와 짝하여 태조고황제의 신위를 모시는 곳으로, 하늘을 상징하기 때문에 천장도 동글게 하였다.
 ② 황궁우 천장
 ③ 황궁우 내부
 ④ 석고단 | 1902년에 고종황제의 즉위 40년을 경축하기 위해 돌로 만든 3개의 북을 새워 놓았다.



①



②



③



④

① 초헌 첨주 | 2002년 월드컵 대회 기간 중 월드컵 개최 성공과 우리 문화 홍보를 위해 원구단 황궁우 앞에서 제천의례를 거행 하였다.
원구단 제사에는 황제만이 삼헌을 한다.

② 독축 | 황제가 초헌 헌작을 하면 대축이 황제의 좌측에 나아가 복을 기원하는 축문을 읽는다.

③ 중국의 천단

④ 중국 천단의 원심(圓心) | 천단은 청나라 원구단으로, 하늘을 상징하기 때문에 단도 둥글게 만들고, 맨 윗층의 단 중앙에도 원심이라 하여 원으로 표현하였다.

태백산 천제

천제는 하늘에 지내는 제사로, 국가에서 주관하던 제사였다. 삼국시대에도 고구려, 백제 등에서 대단 또는 남단을 세워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원구단을 세워 천자로서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도교적인 하늘제사로서 초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중국과의 사대명분에 따라 하늘에 대한 제사는 참람하다고 하여 사라지고, 민간에서 이를 대신하여 기우제 또는 국가의 안녕을 위해 태백산 및 마니산 등에서 제사를 지냈다. 대한제국기에는 황제국으로 원구단을 세워 천제를 지냈다.

태백산은 신라 때 오악(五岳)의 하나인 북악(北岳)으로서 중사(中祀)를 지내던 곳이었다. 즉 국가를 상징하는 명산으로 국가제사를 지냈는데, 왕을 대신해서 지방관이 이를 주재하였다. 조선시대에 제후국으로서 천제를 폐지한 이래로, 태백산이 단군설화와 관련되어 있는 명산이기 때문에 10월 3일에 산신제와 천제를 겸행하여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였다. 현재 태백산 정상에는 천제를 지내는 제단(또는 천왕단)과 단 뒤쪽 북쪽에는 장군단, 단 아래 남쪽에는 하단(下壇)이 있는데, 매년 10월 3일 개천절에 천제단 중앙에는 칠성기와 28수기를 꽂고 천제를 지낸다.



① 태백산 천제단

② 번시례 I 천신이 연기에 감응하여 내려오시도록 쌀을 태우는 것이다.



壇

白文司監製

2) 사직단

사직대제는 종묘제와 함께 국가의 큰 제사로서, 사(社)는 토지의 신을, 직(稷)은 곡식의 신을 말한다. 사직대제는 매년 음력 2월과 8월의 상무(上戊)일, 그리고 납일(臘日)에 왕이 친히 나가 제사를 지낸다. 이러한 정기적인 제사 이외에도 사직단에서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고하는 기고제(祈告祭), 가뭄이 들었을 때 지내는 기우제, 풍년을 기원하는 기곡제(祈穀祭), 기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지내는 보사제(報祀祭) 등이 있었는데, 현재는 양력 10월에만 지낸다.

사직은 『주례(周禮)』에 의하면, 궁궐을 세울 때 ‘좌묘우사(左廟右社)’라 하여 궁궐의 오른쪽에 세운다고 한다. 그리고 사직과 종묘는 왕조의 흥망여부에 따라 존폐가 결정되기 때문에 ‘종묘사직’은 흔히 국가 그 자체를 가리키기도 했다. 중국에서도 왕조가 망하면 사직단을 부수거나 높은 담을 세워 전 왕조의 사직단을 가리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삼국시대부터 사직단을 세웠는데, 고구려 고국양왕 9년(392)에 국사(國社)를 세우고 종묘를 수리했다거나, 신라 선덕왕(780~785)때 사직단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사직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도 성종 10년(991)에 “사(社)는 토지의 신이니 땅이 넓어 다 공경할 수 없으므로 흙을 모아 사(社)로 삼음은 그 공에 보답하고자 함이오, 직(稷)은 오곡(五穀)의 우두머리이니 곡식이 많아 널리 제사 드릴 수 없으므로 직신(稷神)을 세워 이를 제사하는 것이다” 고 하여, 사직단을 설치했다고 한다. 『고려사』 예지에도 길례(吉禮) 대사(大祀)조에 사직이 등재되어 태사(太社)와 태직(太稷) 등 천자국에 준하는 신위가 정해져 있으나, 국왕의 친제(親祭)가 아닌 섭사(攝事)를 전제로 하여 사직제사가 정리되어 있다.

반면에 조선시대에는 1394년 한양천도 전에 신도궁궐조성도감(新都宮闕造成都監)을 설치하여 새 서울 건설계획을 세우고 경복궁의 자리가 북악(백악)을 주산으로 하여 결정되자, ‘좌묘우사’의 규정에 따라 종묘는 좌측(동), 사직단은 우측(서)에 정하였다.

사직은 성종대의 『국조오례의』 길례 서례(序例)에 종묘, 영녕전과 함께 대사에 첫 번째로 등재되었는데, 2월과 8월의 첫 번째 무일(戊日)과 납일에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조선초기에 원구단(圓丘壇)과 방택(方澤)이 모두 천자의 예로 인식되어 폐지된 상태에서, 사직은 자연신으로 종묘와 비견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었고, 아울러 농업을 비롯한 민생과 관련된 최고의 신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에 영조대의 『국조속오례의』에는 원구단에서 정월 신일(辛日)에 지냈던 기곡제를 사직단에서 지내고, 이를 대사에 편입시켰다.

사직단은 사단(社壇)과 직단(稷壇)으로 구성되는데, 사단은 동쪽에, 직단은 서쪽



①



②



③

- ① 사직단과 삼문 | 동·서·남문은 한 칸 규모의 홍살문이지만, 북문만은 신이 출입하는 문이므로 삼문(三門)으로 되어 있다.
- ② 사직단 전경
- ③ 도성도의 종묘와 사직 『해동지도』 |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좌묘우사'라 하여 경복궁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종묘가, 우측에는 사직단이 위치하고 있다.

에 위치하였다. 동쪽의 사단에만 석주가 있는데, 제후국에 준하는 국사신(國社神)을 북향하여 모시고, 후토신(后土神)을 동향하여 배향하였다. 『국조오례의』에 석주(石主)의 길이는 2.5척이고, 사방은 1척인데, 그 윗쪽을 깔고, 그 아랫쪽의 반을 흙으로 북돋았으며, 단(壇) 위 남쪽 섬돌 위에 당하게 한다.

서쪽의 직단에는 국직신(國稷神)을 북향으로 모시고, 후직신(后稷神)을 동향하여 배향하였다. 국사와 국직은 고종 광무 원년 9월에 태사와 태직으로 승격되었지만, 이때 원구단이 대사로 편입됨에 따라 원구단, 종묘, 사직순으로 조정되었다.

사직단의 크기는 『국조오례의』에 각 단은 한 번의 길이가 2장 5척, 높이가 3척인 네모 형태에 사방으로 3단의 계단을 구성하였는데, 땅의 신을 제사하는 곳이어서 땅을 상징하는 네모로 만들었다. 단에는 다섯가지 색깔의 흙을 덮었는데, 동은 청색, 서는 백색, 남은 적색, 북은 흑색, 중앙은 황색 흙으로 하였는데, 이는 전 국토를 뜻한다.

『대한예전』에는 각 단의 한변 길이를 5장, 높이 5척인 네모 형태에 사방으로 5단의 계단을 구성하였다. 단 밖으로 역시 네모진 울타리를 쳤는데 이를 ‘유(毬)’라 한다. 유 밖으로 다시 네모진 담장이 쳐져서 거기에도 사방에 문이 나 있는데, 동·서·남문은 일반적인 한 칸 규모의 홍살문이지만 북문만은 삼문(三門)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신이 출입하는 문이므로 격을 높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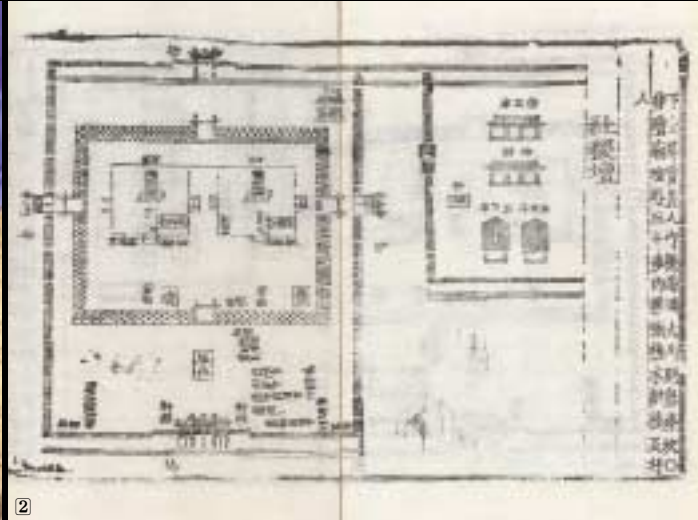
담장 안 부속 건물로 『국조오례의』에는 악기고, 신주(神廚), 제기고, 재생정(宰牲亭) 등 단 서쪽에 따라 담장을 차고 모여 있었다고 한다. 한편 『사직서의례』(1783년 편찬)에는 서쪽에 제기고, 재생정, 전사청, 잡물고(雜物庫), 수복방(守僕房) 등이 위치하고, 동쪽에는 악기고, 안향청(安香廳), 차장고(遮帳庫), 악공청, 부장직소(部將直所) 등이 위치하였는데, 현재는 안향청과 정문만이 남아 있다.

사직제는 크게 천사와 섭사로 구분되는데, 춘추급납제사직의(春秋及臘祭社稷儀), 춘추급납제사직섭사의(春秋及臘祭社稷攝事儀), 기고사직의(祈告社稷儀; 報祀同), 주현춘추제사직의(州縣春秋祭社稷儀) 등이 있다. 재계(齋戒)는 산재(散齋) 4일, 치재(致齋) 3일로 같으나, 희생은 천제에는 소 1 마리, 양 4 마리, 돼지 4 마리를 쓰고, 섭사에는 소 1 마리, 양 1 마리, 돼지 4 마리를 쓰며, 기고(祈告)와 보사(報祀)에는 각기 돼지 1 마리를 쓰고, 주현의 사직에는 돼지 1 마리를 쓴다. 폐백은 흑색의 저포(苧布)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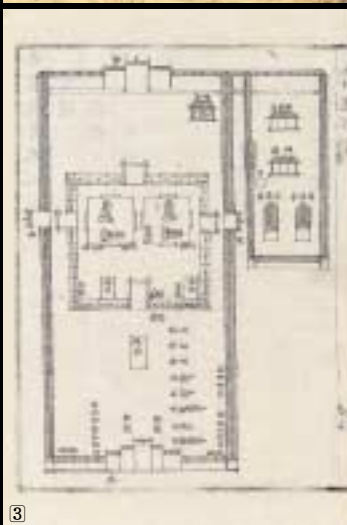
행례 절차는 크게 폐백을 드리는 전폐(奠幣)와 삼헌을 하는 진숙(進熟)의 과정으로 구분되는데, 왕이 초헌관, 왕세자가 아헌관, 영의정이 종헌관을 맡는다. 먼저 신실에 모셔진 태사, 태직 등의 신위를 단 위에 차려진 제상 위에 올려놓고 신을 맞이하는 영신례(迎神禮)를 한다. 즉 모혈반을 받들고 예감에 묻는다. 이어 초헌관이 세 번 향을 사르고서 흑색의 폐백을 바치는 전폐례(奠幣禮)를 한다. 그리고 나서 희생을 담은 적대를 바치는 천조례(薦俎禮)를 하며, 이어 술잔을 올리는 삼헌의 전작(奠爵)을 한다. 초헌은 먼저 태사의 신위에 술을 올리고 축문을 읽고서 후토, 태직, 후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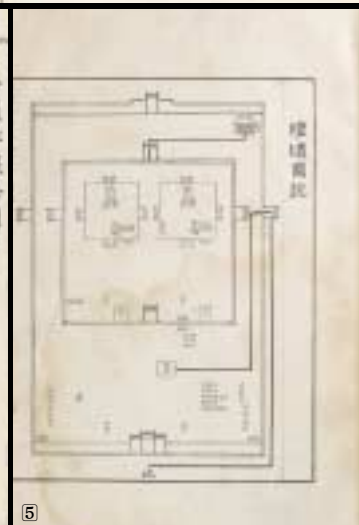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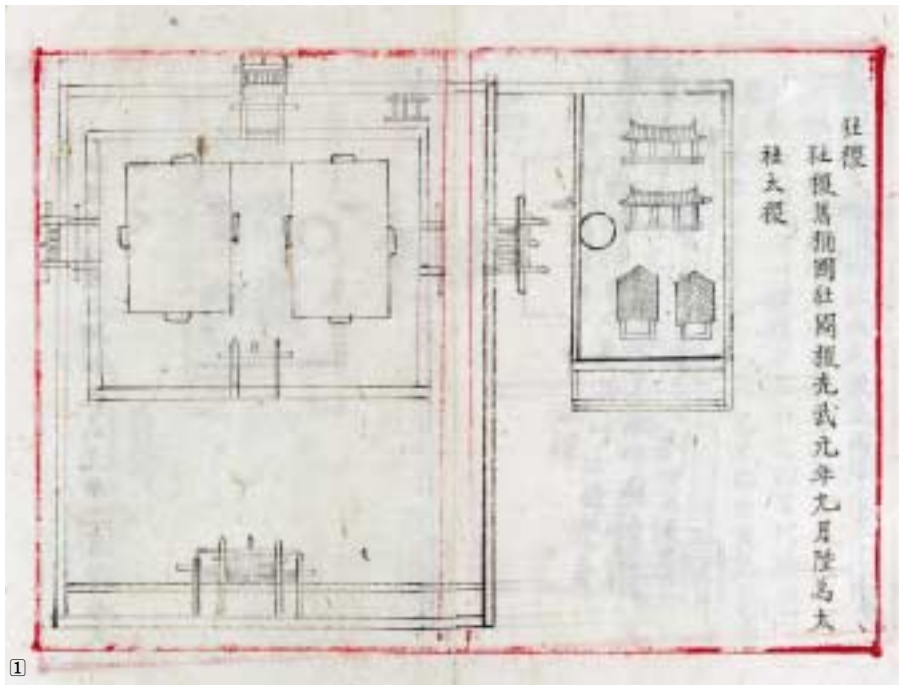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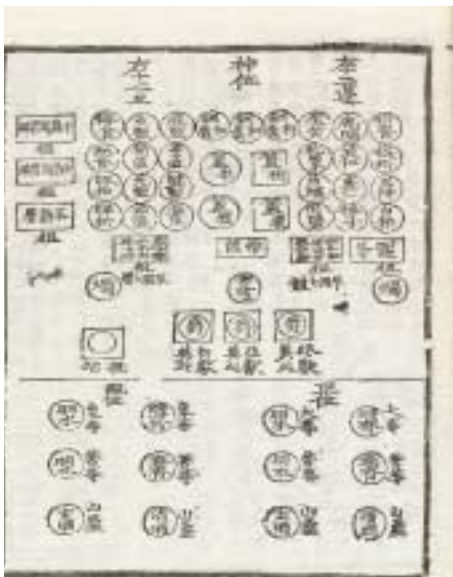


⑤

- ① 사단의 석주 | 사직단은 사단과 직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단에만 돌로 만든 신주가 있다
 ② 사직단 『국조오례의』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③ 속의 사직단 『춘관통고』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④ 금의 사직단전도 『춘관통고』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⑤ 단유도설 『사직서의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①



②



③

- ① 단유도설 『사직서의궐』 |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② 사직정위진설도 『국조오례의』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③ 설찬도설 『춘관통고』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직의 순으로 동일한 의식을 하는데, 아헌, 종헌관도 독축만 빼고 이와 동일한 의식을 한다. 이것이 끝나면 음복수조례와 변두를 조금 옮기는 철변두를 하며, 축문과 폐백을 태우고, 서직(黍稷)은 예감(飨)에 묻는 망예례(望 禮)를 한다. 마지막으로 초헌관에게 의식의 종결을 아뢴 다음에 변두(豆)를 치운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사직단 및 사직대제는 형식상으로는 제후의 격에 맞추어, 단과 담의 규모는 중국에 비해 작게 만들었지만, 조선시대에는 실제로 주척(周尺)이 아닌 영조척(營造尺)으로 계산하여 그 크기를 1.5배 정도 늘렸고, 희생도 원래 천자국은 대뢰(大牢)를, 제후국은 소뢰(小牢)를 사용해야 했으나, 조선에서는 대뢰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사직단 신위의 경우 조선시대에는 국사, 국직이라 하였으나, 고려시대에는 태사, 태직이라 하는 등 형식상 제후국의 입장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천자국에 버금가는 의식을 하였다.

그러나 1908년 7월의 『향사이정에 관한 건』에 따라 사직단과 사직서 건물이 정부로 이관되었고, 1년에 4차례 지내던 제사는 2번로 줄어들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사직단 제사는 폐지되었고, 그 부지는 1922년에 사직단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사직대제는 1988년에 복원되어 매년 10월에 종로구와 전주이씨 종약원의 주관으로 거행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태사와 태직의 천자국에 준하는 사직단 대제를 지내고 있다.



중국의 사직단 Ⅰ 청나라의 사직단으로, 중국에는 황지기를 모시는 방택(方澤)이 있으므로, 1단이다. 단에는 전 국토를 뜻하는 오방의 흙을 깔았는데, 동은 청색, 서는 백색, 남은 적색, 북은 흑색, 중앙은 황색 흙으로 하였다.



① 북문으로 들어와 판위에 선 초헌관 I 실제 절대 방위는 동문이지만, 경복궁을 중심으로는 아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복궁을 북쪽으로 하는 행례 방위로서 제사를 지낸다.

② 영신례(迎神禮)

③ 모혈반(毛血盤)

④ 태직자신 위패

⑤ 감(坎)에 묻은 모혈 I 신실에 모셔진 태사, 태직 등의 신위를 단 위의 제상 위에 모셔놓고 신을 맞이하는 영신례를 하는데, 희생의 털과 피를 담은 제기를 받들어 구덩이(坎)에 묻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① 전폐례 | 초헌관이 향을 세번 사르고서 흑색의 폐백을 바친다.

② 천조례 | 진찬의 의미로, 희생을 담은 적대를 바친다.

③ 초헌관 협작

④ 독축 | 초헌에 대사 신위전에 나가 술을 올리고 축문을 읽는데, 후토, 태직, 후직의 순으로 헌작과 독축을 한다

⑤ 음복수조례 | 초헌관은 음복위에 나아가 제상에 올렸던 복주와 조육을 맛보며, 제자리로 돌아와 사배를 한다.

⑥ 망예례 | 제사가 끝난 후에 초헌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감(坎)에서 축문과 폐백을 태우고 서직(黍稷)은 묻는다.

지방의 사직단

반면에 주현의 사직단은 태종대 이후에 세워졌는데, 성종대의 『동국여지승람』 사묘조에는 군현마다 지역마다 사직단이 기재되어 있다. 『국조오례의』 사직단조에도, 주현에는 성 서쪽에 사직단을 둔다고 하였다. 주현의 사직단은 서울의 것과 달리 한 단이고, 석주가 없다. 그리고 위판에는 주현일 때에는 ‘주사지신(州社之神)’, ‘주직지신(州稷之神)’이라 한다. 사 신의는 단 위에서 동쪽 근처에, 직 신위는 서쪽 근처에 북향하여 마련하는데, 후토, 후직의 배위(配位)는 없다. 제관은 헌관(고을 수령), 축, 집찬자, 집준자, 집사자, 찬자, 알자인데, 축 이하는 고을의 학생이 담당하였다.

주현 사직단은 소사(小祀)에 편입되어 있다. 서울 사직단의 1/2 정도이다. 주현 사직단에서는 2월과 8월의 상무일(上戊日)에만 제사를 지낸다. 사직단에서는 춘추제와 기고제, 기곡제 등이 있는데, 제사 일시는 축시(丑時)를 전후해서 하며, 제사 순서는 서울의 사직단과 동일하다. 축식은 서울의 사직과 같은데, 다만, “某州官姓名 敢昭告于社稷之神 伏以厚德載物 立我蒸民 永言佑之 庶歆精 𠄎”이라 한다.

그러나 『순종실록』 순종 원년에 “선농단, 선잠단의 신위는 사직단에 배향하고, 해당 제단의 터자리는 국유로 넘긴다. 여단, 성황단 등의 제사는 모두 폐지하고 해당 단(壇)과 사(祠)의 터 자리는 국유로 넘긴다. 지방 관묘(關廟)는 해당 지방 관청에 넘겨서 백성들이 신앙하는 데 따라 별도로 관리할 방법을 정한다. 역대의 묘, 전, 능, 사 및 지방에 설치한 사직단과 문묘는 다 정부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여, 사직단은 성황단, 여단과 함께 폐지되었다.

그러나 남원, 단성, 순천 등에서는 사직단 부근의 주민들이 사직단은 농사와 관련된 것이라 하여 제사를 지내고 있다.

남원의 사직단은 남원성 및 관아 설치와 더불어 3묘1단의 배치에 따라 성황단, 여단, 향교의 문묘 등을 고려해서 부의 서쪽에 세워졌다.

현재 사직단 내 사우에는 일제강점기에 폐지된 여단 신위, 성황단 신위가 부사지신과 부직지신과 함께 모셔져 있다.

산청군 단성에서는 매년 2월과 8월 상무일에 사직제를 모신다. 현재 사직단 위의 사우에는 현사지신(縣社之神)과 현직지신(縣稷之神)이 함께 모셔져 있다.



① 남원부지도 | 남원성을 중심으로 중앙에 관아가, 북쪽에는 향교와 여단이, 서쪽에는 사직단과 성황단이 위치하고 있다.
② 남원사직단 전경



- ① 독축 | 초헌관이 부사지신과 부직지신에게 헌작을 하면 축이 헌관의 왼쪽에 나와 축문을 읽는다.
- ② 성향단, 여단 위패 | 사직단내 사우에는 일제강점기에 폐지된 여단 신위, 성향단 신위가 부사지신과 부직지신이 함께 모셔져 있다.
- ③ 부사지신, 부직지신 위패 | 남원은 도호부이기 때문에 '부사지신(府社之神)', '부직지신(府稷之神)' 이라 한다.
- ④ 성향단 제사
- ⑤ 여단 제사 | 현재 사직단 제사와 겸하여 성향단과 여단에서 제사를 지낸다.



- ① 망에례를 위해 축문과 폐백 거두는 축 ! 단성사직단
- ② 현사지신 위패 ! 단성사직단
- ③ 현직지신 위패 ! 단성사직단 위패는 높이가 36.5cm, 넓이가 13.2cm, 두께는 3cm로 밤나무로 만들었으며, 자귀로 다듬었다.
- ④ 독축 ! 순천사직단
- ⑤ 현작 ! 순천사직단

3) 종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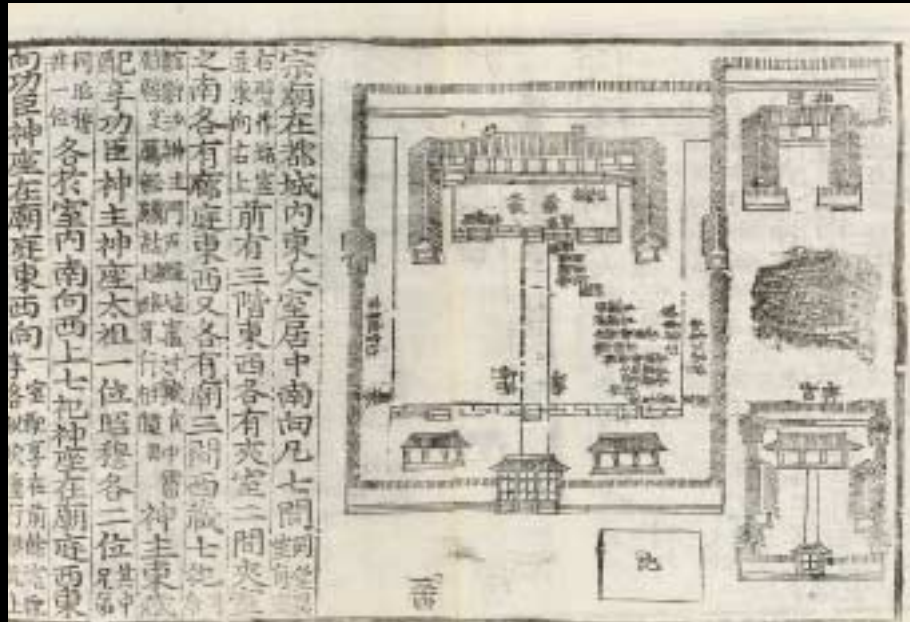
종묘제사는 예로부터 왕조의 개창과 계승이라는 의례적인 상징성으로 인하여 사직과 더불어 가장 큰 제사로 받아들여졌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 종묘가 세워진 것은 삼국 시대였다. 『삼국사기』 잡지 「제사」에, 신라에서 남해왕이 6년에 시조 혁거세묘를 세우고 사시(四時)로 제사를 지냈으며, 해공왕에 이르러서는 5묘(五廟)를 정하여 김성시조인 미추왕과 불천지주인 태종대왕·문무대왕, 그리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친묘(親廟) 2위(二位)를 모셨다고 한다. 그리고 고구려도 20년에 대무신왕이 동명왕묘를 세우고, 백제도 온조왕이 동명왕묘와 국모묘(國母廟)를 세웠다고 한다.

고려는 성종 때 제후 5묘의 원칙 하에 세차(世次)에 의한 형제동반(兄弟同班)과 임시적인 세실(世室)을 응용하여 9실로 정착된 종묘제를 운영하였다. 의종대에는 혜종과 현종을 불천지주로 정하여 9실에서 5묘 또는 7묘제를 운영하였다. 원간섭기에는 제후 5묘제로 축소되었지만, 동서 협실을 이용하여 여전히 9실을 유지하였고, 고려후기에는 11실까지 확대되는 종묘제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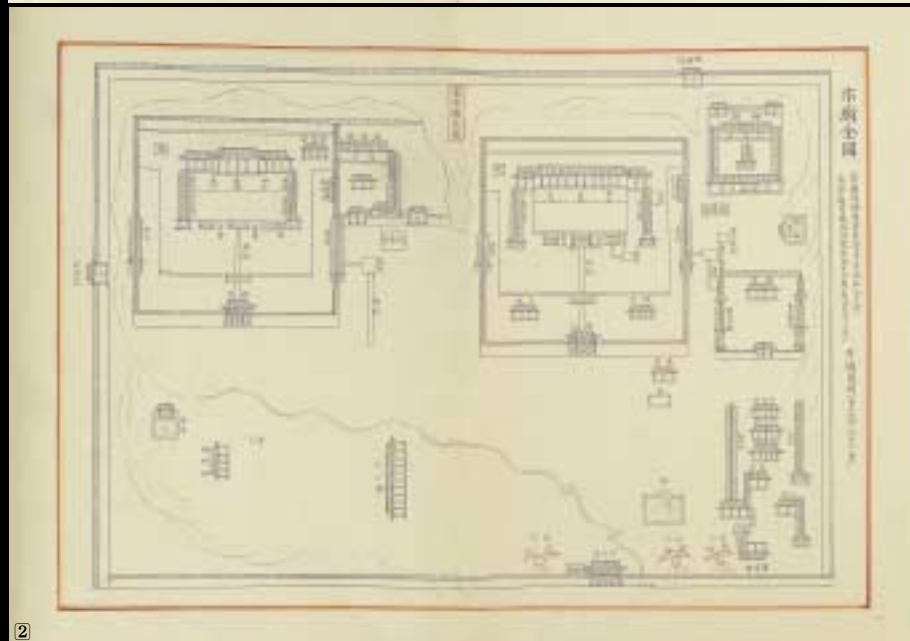
조선시대에는 『주례(周禮)』에 궁궐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사직, 왼쪽에 종묘를 둔다’고 할 정도로, 사직과 함께 국가나 조정 자체를 의미하여, 국가의 존망은 곧 ‘종묘 사직’으로 대변되었다. 특히 종묘제례는 위로는 왕실의 조상숭배와 아울러 아래로는 ‘효’를 통하여 백성을 통치하기 위한 정치적 의미가 더욱 강조되어, 1392년 조선이 건국되자 먼저 태묘소성도감(太廟造成都監)을 설치하여 고려의 종묘를 헐고 그 자리에 조선왕조의 종묘를 새로 지었다. 1394년 수도를 한양으로 정하자 궁궐의 왼쪽에 건물은 같이 쓰고 그 안에 실만 따로 하는(同堂異室) 7칸의 종묘를 지었다. 즉 제후국의 명분에 맞게 태조 1위를 비롯하여 2소(昭) 2목(穆)의 4대를 모시는 5묘제의 원칙 하에, 그 중 형제가 왕위를 계승하였을 경우 같은 1대로 하고(兄弟同昭穆) 서쪽을 위로 하여(西上制) 순서대로 태조의 4대조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를 봉안하였다.

세종대에 정종을 종묘에 모시게 되자 4대친의 범위를 넘은 목조를 모시기 위해 송나라의 별묘제(別廟制)에 의거하여 정전 서쪽에 영녕전(永寧殿)을 짓고 이후 4대친의 범위를 넘어선 조친(父遷)된 신주를 모시었다. 그러나 새로운 왕의 신주가 부모되면 4대친을 넘어선 신주는 영녕전으로 옮겨야 했으나, 형제를 1대로 하거나, 태종·세종·세조 등과 같이 국가에 공덕(功德)이 있는 왕은 차마 옮길 수 없는 불천지주(不遷之主)로서 세실로 정함에 따라 종묘 정전의 신실(神室)은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명종대에는 정전 좌우 2칸씩 4칸을 늘려 11실로, 영조대에는 15실로, 현종대에는 19실로 증축하였다.

현재 정전에는 태조·태종·세종·세조·성종·중종·선조·인조·효종·현종·숙종·영조·정조·순조·익종·헌종·철종·고종·순종 등 19왕이 모셔져 있다. 이중 태조를 포함해서 정조에서 순종까지는 대한제국기에 황제로 추존되었고,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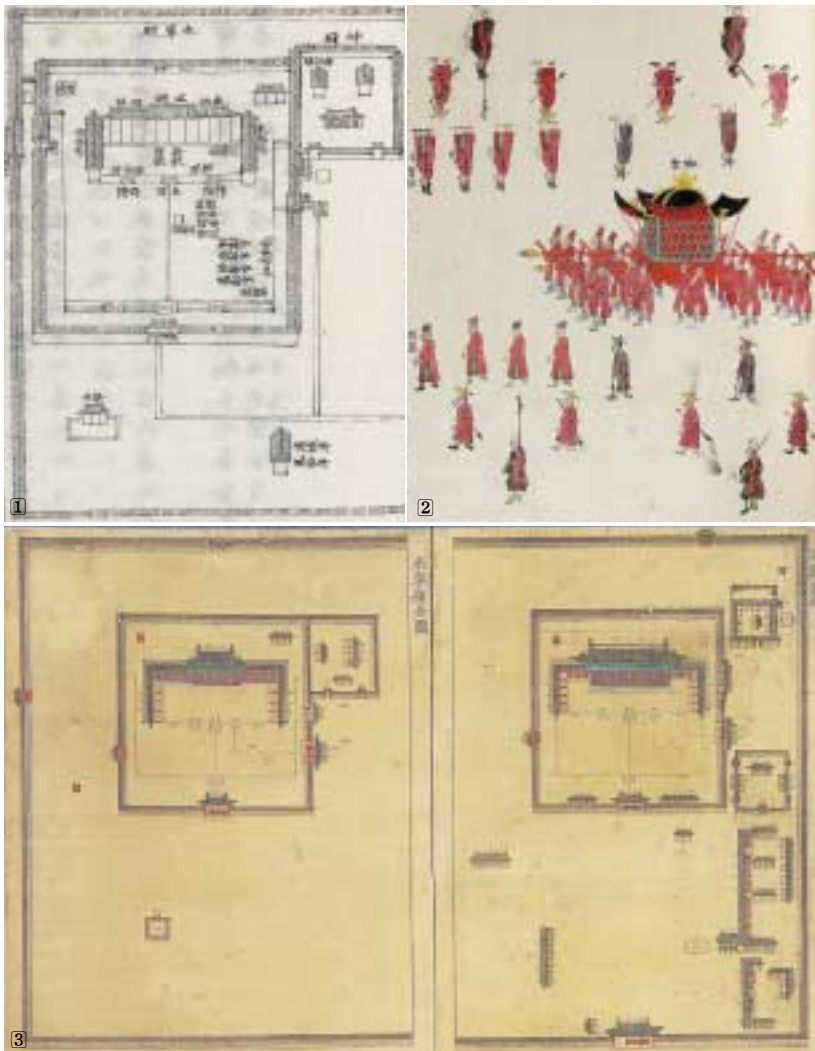
①



②

- ① 종묘도설 『국조오례의』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② 종묘전도 『종묘의궤』 |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조의 생부인 사도세자는 장조(莊祖)로 추존되어 종묘 정전에 모셔졌다가 순종대에 영녕전으로 옮겨졌다. 한편 연산군과 광해군은 서인(庶人)으로 폐출되었기 때문에 종묘에 모셔지지 않았고, 반면에 태조의 4조와 덕종(성종의 생부), 원종(인종의 생부), 진종(영조의 아들), 장조(정조의 생부), 익종(헌종의 생부) 등은 왕위에 오르지 못했지만 아들이 왕위에 오름에 따라 왕으로 추존되어 종묘에 모셔졌다.



① 금의 종묘영녕전전도『춘관통고』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② 신여도(神輿圖)『종묘영녕전증수의궐』 |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③ 종묘전도『종묘도명』 | 궁중유물전시관 소장



①



②



③

- ① 종묘 정전 전경
② 1930년대의 종묘 전경
③ 중국의 태묘 전경

정전																		
1 일	2 일	3 일	4 일	5 일	6 일	7 일	8 일	9 일	10 일	11 일	12 일	13 일	14 일	15 일	16 일	17 일	18 일	19 일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중종	선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영조	정조	순조	익종	헌종	철종	고종	순종
太祖	太宗	世宗	世祖	成宗	中宗	宣祖	仁祖	孝宗	顯宗	肅宗	英祖	正祖	純祖	翼宗	憲宗	哲宗	高宗	純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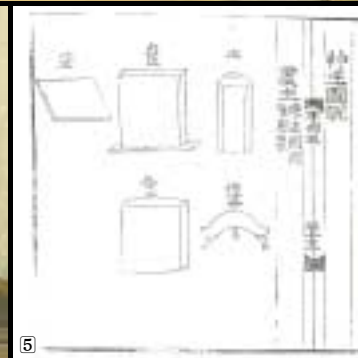
영녕전															
5 일	6 일	7 일	8 일	9 일	10 일	1 일	2 일	3 일	4 일	11 일	12 일	13 일	14 일	15 일	16 일
정종	문종	단종	덕종	예종	인종	목조	익조	도조	환조	명종	원종	경종	진종	장조	의민황태자
定宗	文宗	端宗	德宗	睿宗	仁宗	穆祖	翼祖	度祖	桓祖	明宗	元宗	景宗	眞宗	莊祖	

세실
 추존왕
 추존 황제

종묘제례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네차례의 대향(大享)을 포함해서(영녕전은 춘추제사) 납일제, 설·추석 등의 속절(俗節), 초하루·보름에 지내는 삭망제, 국가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 빌거나 고하는 기고제(祈告祭), 계절따라 새로 나는 햇곡식과 햇과일을 먼저 올리고 고하는 천신제(薦新祭) 등이 있다. 그밖에 기우제, 기설제, 기청제, 위안제 등이 있었다. 1908년에 종묘 제사는 1년에 4번과 고유제 2번으로 제한되었으며, 현재는 1968년부터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에 영녕전과 정전에서 한차례 대향을 거행한다. 모두 남향한 채로 제사를 지내는데, 종묘의 폐백은 백색 저포(苧布)를 사용한다.

종묘의 신주는 『국조오례의』 신주도설과 같이 일반 양반가의 신주와 형태가 다르다. 재료는 밤나무로 같지만, 길이 1척, 방 5촌, 상정의 지름은 1촌 8푼이며, 네 모서리는 각각 1촌 1푼씩 깎고, 네 구석은 각각 1촌씩 깎는다. 상하 사방에 규라는 구멍이 있어서 통하였는데, 지름은 9푼으로 한다.

종묘에는 정전과 영녕전 이외에 칠사당과 공신당이 있다. 칠사당에는 사명(司命), 문(門), 호(戶), 조(冑, 중류(中蓼), 여(女, 행(行)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의 속주(續註)에 “사명은 궁중의 소신문(小神門)이고, 호는 출입을 주관하며, 행은 도로의 행작(行作)을 주관한다. 여는 공려(公 女)를 말하는 것이니, 옛날 제후 중에 무후(無後)한 사람이다. 조(冑는 음식의 일을 주관하며, 중류는 당실(堂室)의 거처를 주관한다”고 하였다.



① 정전 내부
② ③ 신실
④ 신주
⑤ 신주도설 『국조오례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칠사당						
사명(司命)	호(戶)	조(畝)	종류(仲)	문(門)	여(..)	행(行)
봄	여름		토왕일(土旺日)	가을		겨울

공신당 (功臣堂)																											
태조 (太祖)				태종 (太宗)			세종 (世宗)				세조 (世祖)		성종 (成宗)		중종 (中宗)												
문충공	양소공	충경공	경무공	양열공	강무공	충정공	문충공	충무공	이경공	양도공	강절공	이성공	정열공	문희공	문정공	강정공	정효공	이평공	양절공	충성공	문충공	충정공	충정공	무열공	문성공	문익공	
文忠公	襄昭公	忠昭公	景武公	襄烈公	剛武公	忠靖公	文忠公	忠武公	翼景公	襄度公	景節公	翼成公	貞烈公	文景公	文僖公	文靖公	剛靖公	靖孝公	翼平公	襄節公	忠成公	文忠公	忠貞公	忠貞公	忠烈公	文誠公	文翼公
조준	이화	남재	이제	이지란	남은	조인옥	하륜	조영무	정탁	이천우	이래	황희	최윤덕	허조	신개	이수	이제	이보	권람	한확	한명회	정창손	홍익	박원종	유신정	정공필	
趙浚	李和	南在	濟濟	李之蘭	南閭	趙仁沃	河崙	趙英茂	鄭擢	李天祐	來來	黃喜	崔潤德	趙杲	申開	李隨	李補	李補	權權	韓確	韓明滄	鄭昌孫	洪應	朴元宗	成希顏	柳順汀	

공신당(功臣堂)																							
선조(宣祖)		인조(仁祖)				효종(孝宗)				현종(顯宗)				숙종(肅宗)									
충정공 忠正公	문순공 文純公	문성공 文成公	문충공 文忠公	문정공 文貞公	문종공 文忠公	충익공 忠翼公	충정공 忠正公	정효공 貞孝公	문정공 文正公	문경공 文敬公	충경공 忠敬公	문종공 文忠公	문정공 文貞公	익현공 翼憲公	충숙공 忠肅公	문종공 文忠公	문충공 文忠公	문순공 文純公	충정공 忠正公	문정공 文貞公	문충공 文忠公	문효공 文孝公	
이준경 李浚慶	이황 李滉	이이 李珥	이원익 李元翼	신희 申欽	김류 金瑬	이귀 李貴	신경진 申景進	이서 李曙	이보 李垸	김상헌 金尙憲	김집 金集	송시열 宋時烈	이요 李一	민정중 閔鼎重	정태화 鄭太和	김좌명 金佐明	김수항 金壽恒	김만기 金萬基	남구만 南九萬	박세채 朴世采	윤지완 尹趾完	최석정 崔錫鼎	김석주 金錫胄
金萬重	金萬重	金萬重	金萬重	金萬重	金萬重	金萬重	金萬重	金萬重	金萬重	金萬重	金萬重	金萬重	金萬重	金萬重	金萬重	金萬重	金萬重	金萬重	金萬重	金萬重	金萬重	金萬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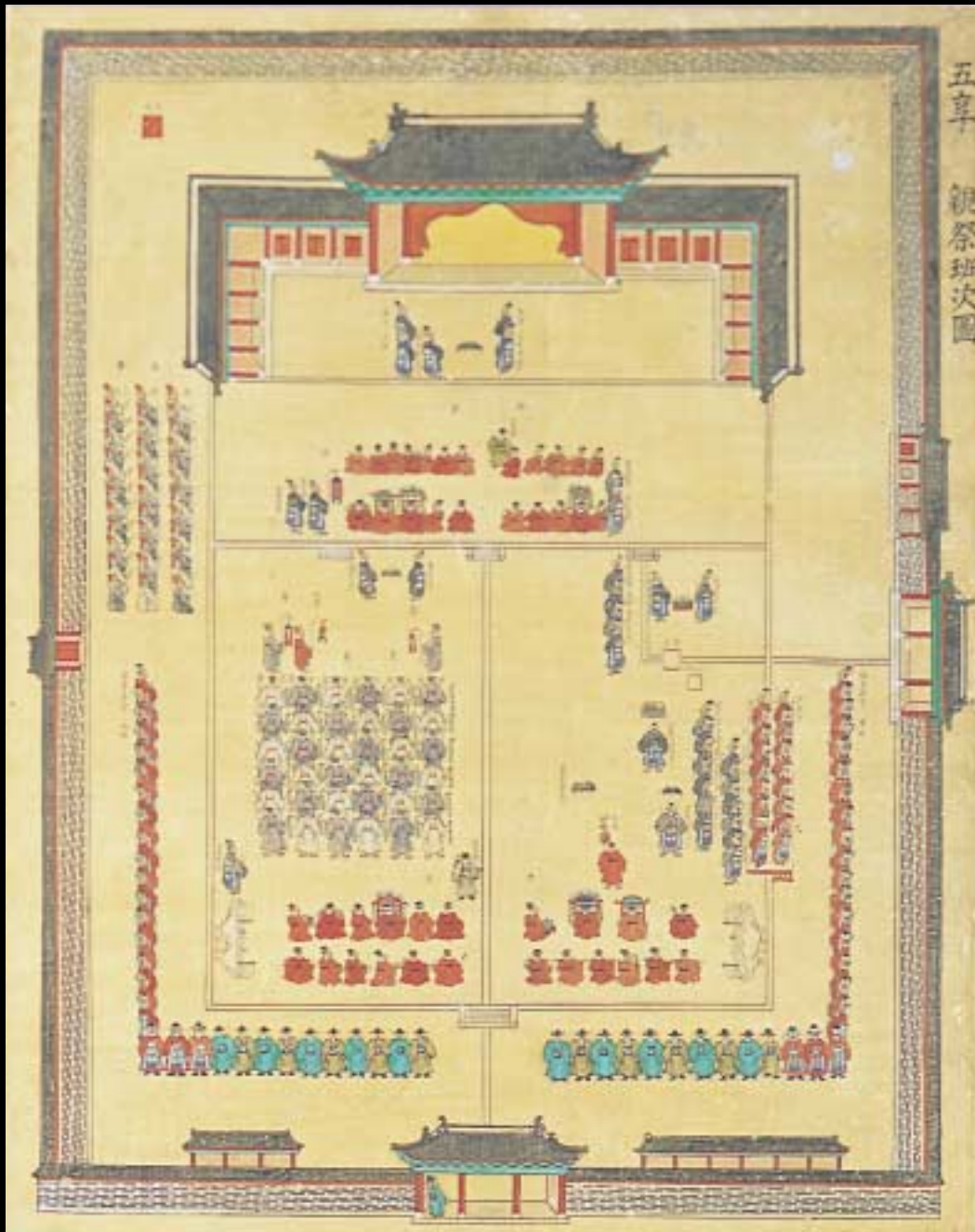
- ① 칠사당 내부
- ② 칠사당의 호(戶) 위패
- ③ 칠사당의 조(祭) 위패
- ④ 칠사당의 문(門) 위패
- ⑤ 공신당 내부
- ⑥ 공신당의 이황 위패
- ⑦ 공신당의 이이 위패
- ⑧ 공신당의 김집 위패
- ⑨ 공신당의 송시열 위패

공신당 (功臣堂)																											
영조 (英祖)		정조 (正祖)		순조 (純祖)		문조 (文祖)		헌종 (憲宗)	철종 (哲宗)		고종 (高宗)		순종 (純宗)														
충헌공 忠獻公	충정공 忠貞公	문충공 文忠公	문충공 文忠公	충정공 忠靖公	문충공 文忠公	문충공 文忠公	문충공 文忠公	충정공 忠正公	충경공 忠敬公	문헌공 文獻公	문헌공 文獻公	문숙공 文肅公	문익공 文翼公	문충공 文忠公	문간공 文簡公	효희공 孝僖公	정문공 正文公	문익공 文翼公	문경공 文敬公	문정공 文貞公	충정공 忠正公	문헌공 文獻公	효문공 孝文公				
김창집 金昌集	최구서 崔奎瑞	민진원 閔鎭遠	조문명 趙文命	김재로 金在魯	김중수 金鍾秀	유언호 兪彦鎬	김조순 金祖淳	이시수 李時秀	김재찬 金載瓚	김리교 金履喬	조득영 趙得永	이구 李球	조만영 趙萬永	남공철 南公轍	김로 金魯	조병구 趙秉龜	이상황 李相璜	조인영 趙寅永	이헌구 李憲球	이희 李曦	김수근 金洙根	박규수 朴珪壽	신응조 申應朝	이도익 李敦宇	민영환 閔泳煥	송근수 宋近洙	서정순 徐正淳

공신배향(영명전)										
정종 (定宗)	문종 (文宗)	예종 (睿宗)	인종 (仁宗)		명종 (明宗)		경종 (景宗)		장조 (莊祖)	
안양공 安襄公	문효공 文孝公	문헌공 文獻公	문희공 文僖公		충혜공 忠惠公	문원공 文元公	혜정공 惠定公		정헌공 正獻公	문충공 文忠公
이방원 李芳毅	하 연 河 演	박원형 朴元亨	홍언필 洪彦弼	김안국 金安國	심연원 沈連源	이언적 李彦迪	이 유 李 濡	민진효 閔鎭孝	민백상 閔百祥	이종성 李宗成

종묘제례는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유교 예법에 의해 진행되는데, 국가의 대사(大祀)인 만큼 조상의 신명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음악을 연주하고 일무(佾舞)를 춘다. 종묘제례악으로는 세종때 만들어져 세조때 정해진 보태평(保太平)과 정대업(定大業)을 연주하는데, 보태평은 역대 임금의 문덕(文德)을 기리고, 정대업은 역대 임금의武功(武功)을 기린다. 일무는 조선초기부터 6일무로 하였으나, 대한제국기에 황제국으로서 8일무를 추었다. 문무(文舞)는 보태평에 맞춰 왼손에 구멍이 셋 뚫린 관악기 약(箛)과 긴 막대에 꿰 깃털로 장식한 적(翟)을 들고 춤을 추며, 무무(武舞)는 정대업에 맞춰 나무로 만든 칼과 창, 활과 화살을 들고 춤을 춘다.

또한 제수(祭需)로는 각 신실마다 12번(0, 12두(豆), 12갱(羹) 등을 진설하였는데, 특히 근본에 보답하는 의미로 옛 조상들이 상고시대에 고기를 익히지 않고 먹고 살았던 것을 본떠 소, 양, 돼지 등의 날고기를 사용한다. 현재는 정전 제1실인 태조실과 영녕전 제1실인 목조실에만 옛날의 격식대로 제수를 차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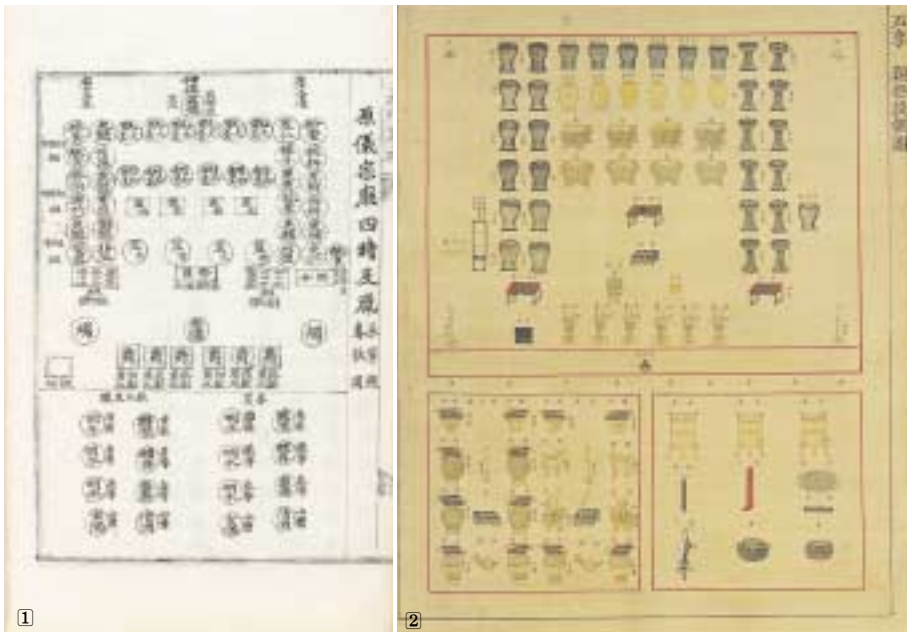


오향 친제반차도 『종묘도병』 | 궁중유물전시관 소장

행례 절차는 왕이 초헌관, 왕세자가 아헌관, 영의정이 종헌관을 맡는다. 먼저 신실에 모셔진 태조 신위 앞에 용찬에 부은 울창주를 정전 안 바닥의 관지통에 붓는 신관례(神灌禮)를 행한다. 이어 초헌관이 세번 향을 사르고서 백색 저포를 바치는 전폐례(奠幣禮)를 한다. 그리고 나서 희생의 털과 쏙이 담긴 모혈반과 적대에 담은 조육을 바치고서 털, 쏙, 간 등을 화로에 태우는 천조례(薦俎禮)를 한다.

첫 번째로 술잔을 올리는 초헌례를 행한다. 초헌은 먼저 태조신위에 먼저 술을 올리고 축문을 읽는다. 아헌, 종헌관도 독축문만 빼고 이와 동일한 의식을 한다. 이것이 끝나면 음복수조례를 하며, 번두를 조금 옮기는 철번두를 하고, 마지막으로 축문과 폐백을 태우는 망예례(望 禮)를 한다.

조선왕조의 역사와 정통성을 담고 있는 종묘 일곽은 사적 125호, 정전은 국보 227호, 영녕전은 보물 821호, 종묘제례악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되고 있고, 종묘 건축은 1995년 12월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① 원의 종묘사시급남(元儀宗廟四時及臘) 『춘관통고』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② 오향 친제설찬도 『종묘도병』 | 궁중유물전시관 소장

영녕전



- ① 신관례
- ② 관지통 | 신위전 용찬에 부은 올창주를 정전 안 바닥의 관지통에 붓는다.
- ③ 천조례 | 소, 양, 돼지의 내장을 익혀서 생강에 담아서 올린다. 이 때 소와 양은 장과 위를, 돼지는 허파를 쓴다.
- ④ 관세하는 아헌관 | 아헌관이 행례를 하기 전에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는다.
- ⑤ 망예례
- ⑥ 감(坎) | 감에서 축문과 폐백을 태운다

정전





- ① 화로불 위의 조육 | 희생의 간과 털, 쑥이 담긴 모혈반과 적대에 담은 조육을 바치고서 간, 털, 쑥 등을 화로에 태운다.
- ② 전폐례 | 초헌관이 세번 향을 사르고서 백색 저포의 폐백을 신위전에 바친다.
- ③ 존소 앞의 초헌관 | 초헌관이 존소에 서향하여 서서 술따르는 것을 지켜본다.
- ④ 헌작하는 초헌관
- ⑤ 독축
- ⑥ 음복수조례 | 초헌관이 동쪽에 마련한 음복소주조위에 나아가 복주와 조육을 맞본다.
- ⑦ 망예위로 오는 초헌관 | 초헌관이 망예위로 와서 축문과 폐백을 확인하면 이를 감에 가서 태운다.





판위의 초헌관 | 초헌관이 판위에 나아가 송신의 사배를 하고 서면 이하 제관들이 사배를 한다.



4) 산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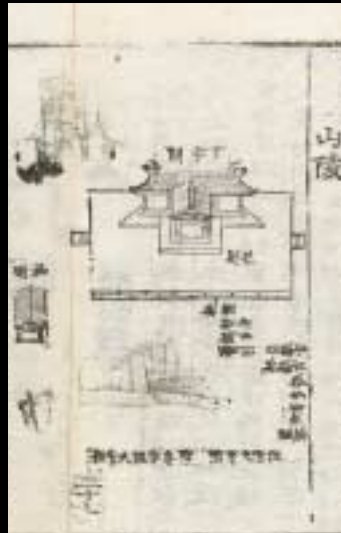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후의 능에서 행하는 의식을 말한다. 제왕(帝王)·후비(后妃)의 무덤을 ‘능(陵)’이라 하고, 왕세자·왕세자비 및 왕의 사친(私親)의 무덤을 ‘원(園)’이라 한다. 『국조오례의』를 보면, 침전(丁字閣)은 능실 남쪽에 있는데, 북쪽에 자리하여 남쪽을 향하게 하고 모두 3칸으로 동쪽과 서쪽에 계단이 있고, 신좌는 북쪽에서 남쪽을 향한다. 왕후가 같은 무덤이면 서쪽을 위로 한다.

왕과 왕비가 승하하면 사계절 및 속절(정조,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납일)에 왕이 거가출궁하거나 왕세자가 친행하여 제례를 행하였고, 담제를 지낸 후에는 왕들의 어진이 모셔져 있는 문소전에서 승하한 기일에 기신제를 지냈다. 문소전은 궁성 안 동쪽에 있는데, 종묘 이외의 별묘인 셈이다. 여기에서는 신주 대신 왕들의 어진을 모시는데, 태조 이외에 4대친만을 모신다. 후침이 5칸이고 전전이 3칸으로 각각 감실이 있는데, 모두 북쪽에 자리하여 남쪽을 향한다. 후침은 남쪽을 향하여 서쪽을 위로 하고, 전전(前殿)은 소목의 차례로 한다. 신좌는 전전에는 태조가 북관에서 남쪽을 향하고 소 2위는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며, 목 2위는 서쪽에서 동쪽을 향한다. 후침은 모두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고 서쪽을 위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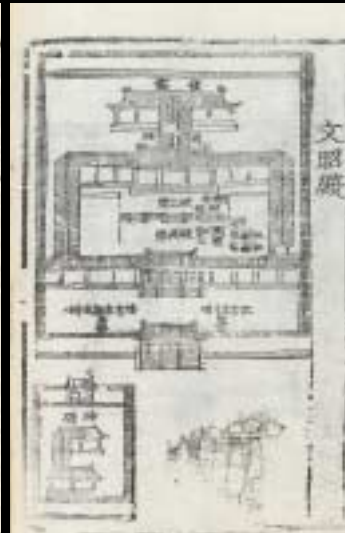
그래서 산릉은 『국조오례의』에 길례 속제로서, 문소전, 진전(眞殿), 의묘 등과 함께 포함되어 있다. 산릉에는 삭망속절(정조,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납일) 및 맹월상순에 제사를 지냈으나 반면에 기신제는 문소전과 의묘에만 지냈다.

임진왜란 때 문소전이 소실되었고, 또한 종묘 이외에 또 하나의 사당이 있는 것을 반대하여 기신제는 산릉에서 행해졌다. 『국조속오례의』에는 산릉의 속절 제사에서 납일제를 없앴고, 대신에 기신제는 능에서 지냈고, 대수가 지난 왕일 경우에는 기신제를 지내지 않았다. 『대한예전』에는 속절(정조, 한식, 단오, 추석, 동지)에 산릉에서 제사를 지내고, 한식에는 조천한 왕도 함께 제사를 지내고, 기신제는 왕릉마다 각기 지내게 하였다.

오늘날에는 각 왕릉에서 기신제만 봉행하고 있다. 기신제 절차를 보면, 먼저 왕이 궁궐을 나서서 산릉까지 행차를 하며, 산릉에 도착해서는 소여로 홍살문까지 온다. 왕이 정자각의 관위에서 서쪽을 향하며, 참신을 하기 위해 모든 제관들이 사배를 한다. 이에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정해진 위치에 나간다. 이어 왕이 신을 모시기 위해 삼상향을 한다. 그리고 왕이 첫 번째 잔을 올리고 대축이 축문을 읽는다. 영의정이 두 번째 잔을 올리며, 좌의정이 세 번째 잔을 올린다. 이렇게 초헌, 아헌, 종헌이 끝나면, 신을 보내기 위해 사신 사배를 하며, 제사에 쓰인 축문을 태우는 망료례를 행한다. 왕은 환궁을 하며, 제관들은 제찬을 거둔다.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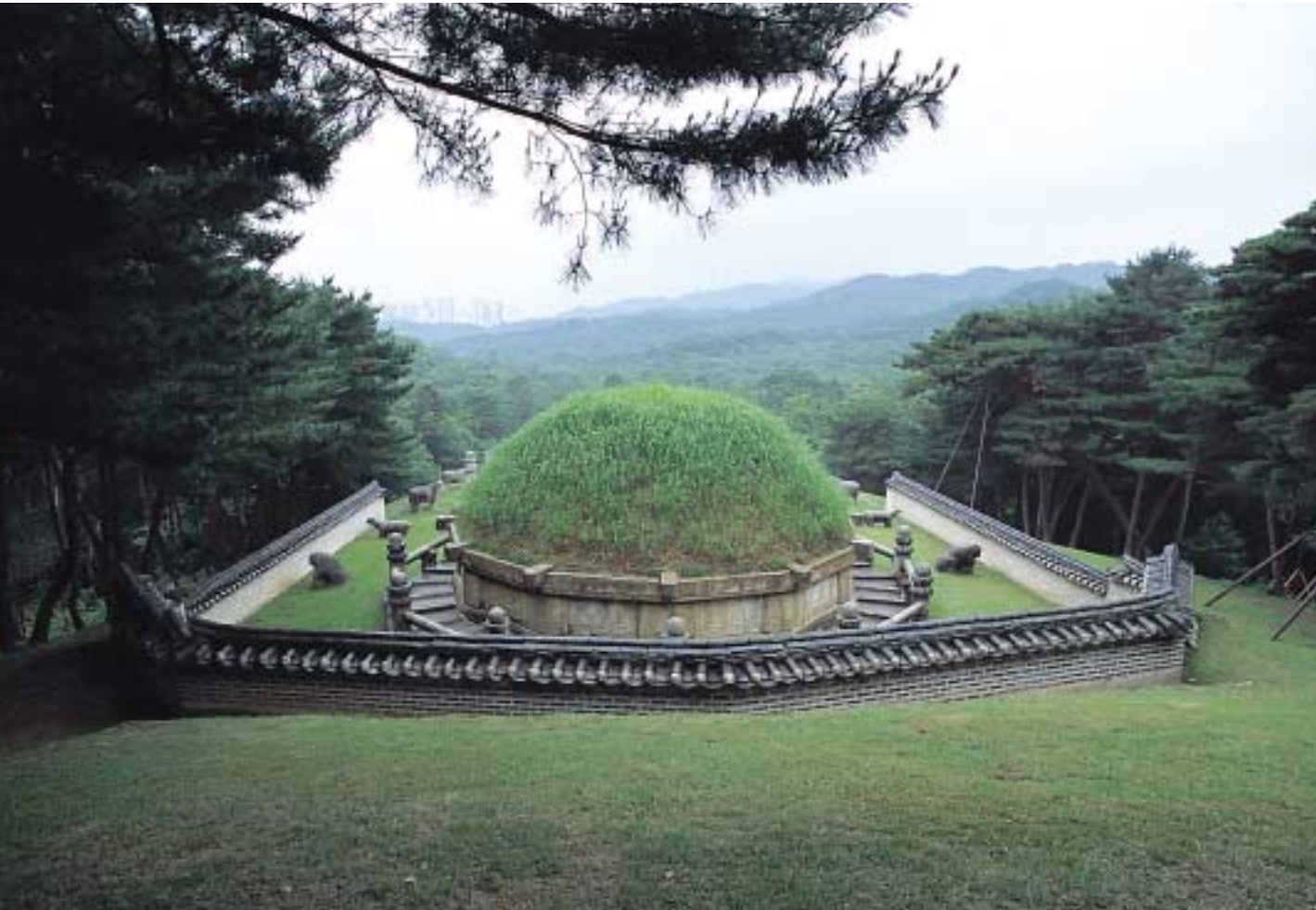


③



④

- ① 산릉 「국조오례의」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② 문소전 「국조오례의」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③ 속의 산릉기신(續儀 山陵忌辰) 「춘관통고」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④ 금의 산릉사시속절(今儀 山陵四時俗節) 「춘관통고」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건원릉(健元陵) 전경 I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조선 태조고황제의 능이다. 신의황후 한씨(齊陵)와 신덕황후 강씨(貞陵)의 왕릉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건원릉에서 기신제를 지낼 때 한씨와 강씨는 지방을 써서 함께 모신다.



- ① 진설
- ② 독축
- ③ 정자각의 신위전과 제관
- ④ 정자각내의 준소

5) 선농단과 선잠단

① 선농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선농단에서는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다고 일컬어지는 고대 중국의 제왕인 신농씨(神農氏)와 후작씨(后稷氏)를 주신으로 제사지냈다. 선농단에서는 정월에 제례를 올리고 적전(籍田)에서 친경(親耕)을 하고, 수확기에는 관예례(觀刈禮)를, 가뭄이 심할 경우에는 기우제를 지냈다. 그리고 친경 이후에 국왕이 현지 주민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노주례(勞酒禮)를 거행하여 국왕과 백성이 함께 즐기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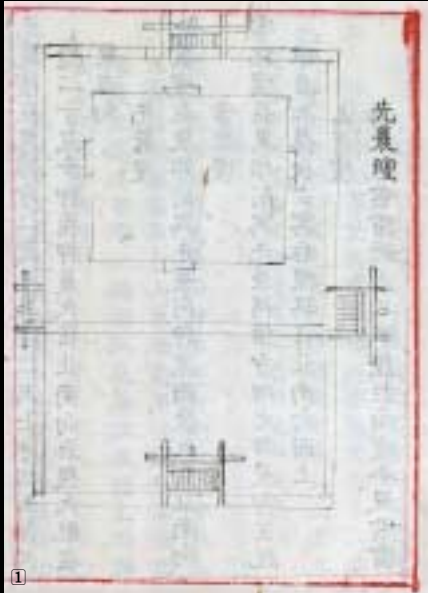
우리나라에는 일찍이 삼국시대부터 선농에 대한 제사가 있었다.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에서는 선농은 입춘(立春) 후 해일(亥日)에, 중농은 입하 후 해일(亥日)에, 후농은 입추 후 해일(亥日)에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성종 때 원구단에서 제사를 지낸 후에 적전에 가서 친경을 하고 신농씨와 후작씨를 배향하여 제사를 지냈다. 그리하여 선농제는 경칩 후 길해일(吉亥日)에 지냈고, 중농제는 정종(靖宗) 12년 4월 신해일에 제사지냈다는 기록도 있다.

조선시대에도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면서 선농단을 세워 경칩 후 길해일(吉亥日)에 선농제를 지냈다. 선농단에서는 제신농씨(帝神農氏)를 제향하고, 후작씨(后稷氏)를 배향하였는데, 신농씨는 단 위의 북방에 남쪽을 향하여 있고, 후작씨는 단 위의 동방에 서쪽을 향하여 있게 하여 제사를 지냈다. 『국조오례의』에 선농단의 규모를 보면, 모두 방(方)이 2장(丈) 3척(尺), 높이가 2척 7촌(寸)으로 단을 중심으로 담이 있었다. 선농의 폐백으로는 청색 저포를 사용하였다.

역대 왕들은 해마다 선농단에서 제사를 지낸 후 단 남쪽에 마련된 적전(籍田)에서 왕이 친경하고 관예례와 노주례를 베풀기도 하였고, 「권농윤음」을 반포함으로써 백성들에게 농사일의 소중함을 알리고 권농에 힘쓰게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08년 7월에 칙령 제50호 「향사이정에 관한 건」으로 선농단, 선잠단의 신주는 사직단에 배향되고, 그 부지는 국유로 이속되었으며, 1909년(융희 3)에는 순종의 친경을 마지막으로 선농단은 폐지되었다.

선농단 제사는 1979년에 제기동 동민들이 선농단 보존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에 한번씩 지냈으며, 1992년부터는 동대문구에서 이를 주관하고 있다.



①



②



④



③



① 선농단 | 『대한예전』 장서각 소장

② 전폐례 | 폐백으로는 청색 저포를 바친다.

③ 망에례

④ 설렁탕 | 선농단과 관련하여 설렁탕의 유래를 설명하기도 한다.

『조선요리학(朝鮮料理學)』에서도 세종이 선농단에서 친경을 할 때에 갑자기 심한 비가 내려서 몇 발자국의 걸음도 옮기지 못할 형편에,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친경 때에 쓰던 소를 잡아 맹물에 넣고 끓여서 먹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설렁탕이 되었다고 그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② 선잠단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선잠단에서는 누에치기를 처음 시작했다는 중국 고대 황제(黃帝)의 비 서릉씨(西陵氏)를 잠신(蠶神)으로 하여 누에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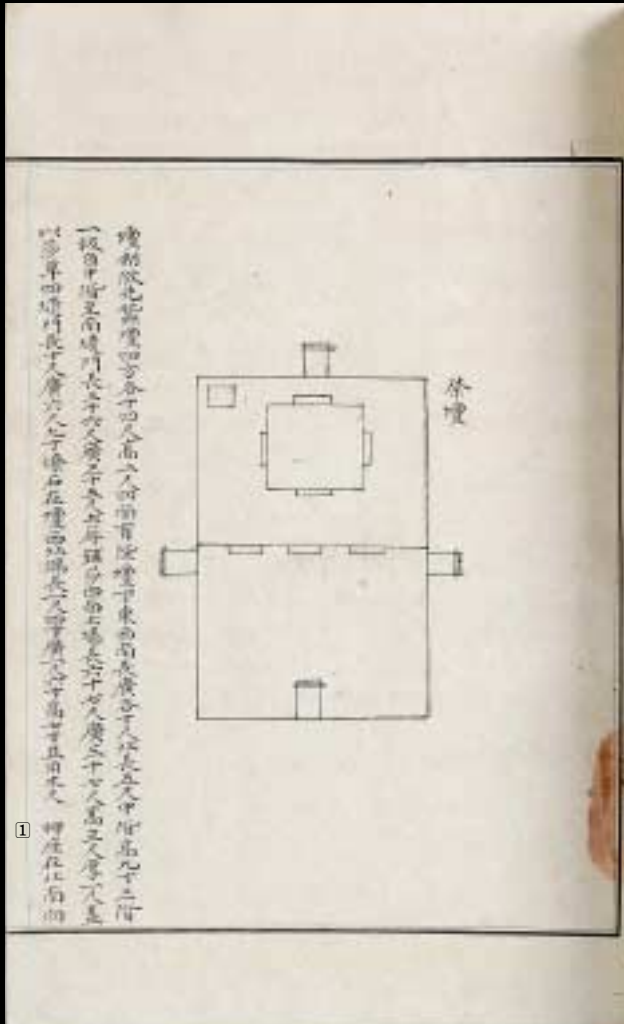
고려시대에는 3월 길사일(吉巳日)에 선잠단 제사를 지냈는데, 폐백은 흑색을 쓰고, 희생은 돼지 1마리를 사용하게 하였다. 그리고 제사는 왕이 친히 하지 않고 대신이 대리하게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1400년(정종 2년) 3월 길사일(吉巳日)에 처음으로 선잠제를 지냈다. 선잠단은 선잠의 서릉씨(西陵氏)를 제향하는데, 진씨(陳氏)의 『예서(禮書)』에 “『사기(史記)』에 말하기를, ‘황제가 서릉씨에게 장가갔는데, 서릉씨가 처음으로 누에를 쳤다’고 한다”고 하여, 신위를 단 위의 북방에서 남쪽을 향하게 설치하여 제사를 지냈다. 폐백은 흑색 저포를 사용하였다. 『국조오례의』에 선잠단의 규모를 보면, 방(方)이 2장(丈) 3척(尺), 높이가 2척 7촌(寸)으로 단을 중심으로 담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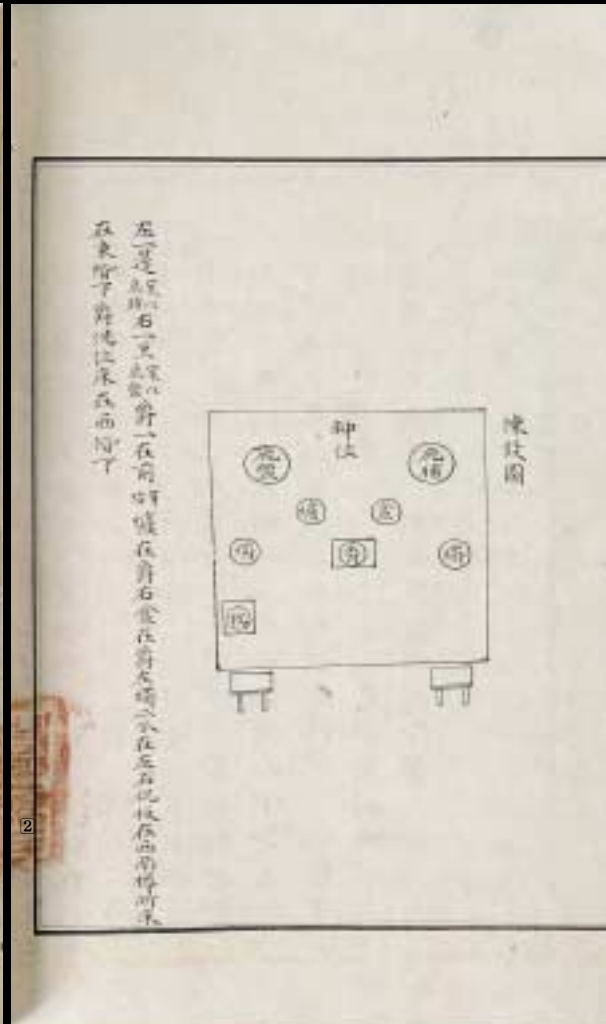
선잠단에서는 왕비가 왕세자빈 등과 함께 친잠례를 거행하고 노주례(勞酒禮)를 베풀거나, 양잠에서 나온 생견(生繭)을 신료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1908년 7월에 칙령 제50호 「향사이정에 관한 건」에서 선잠단의 신주는 선농단의 신주와 함께 사직단에 배향되고, 그 부지는 국유로 이속되었다. 1909년(융희 3)에 순종이 궁궐 안에 뽕나무를 심고 1910년까지 친잠을 거행하기도 했으나, 일제강점기에 선잠단은 폐지되었다.

선잠단 제사는 1993년에 성북구청의 주관 하에 복원되어 성북초등학교 옆 선잠단터에서 매년 음력 3월 마지막 사일(巳日)에 거행되고 있다.



① 제단『침점의궤』 |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② 진설도『침점의궤』 |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6) 관왕묘

관왕묘(關王廟)는 중국 촉한의 명장 관우(關羽)를 제사하는 묘로서, 관성묘, 관제묘, 관묘라고도 한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왜군을 격퇴하면서 관우 신령의 힘이 컸다고 생각하여 명나라의 신종(神宗)이 비용과 친필로 쓴 현액(顯靈昭德義烈武安關帝)을 보내오고, 조선왕조에서도 협조하여 서울의 남대문 밖(南關王廟)과 동대문 밖(東關王廟, 東廟)에 중국의 제도대로 관왕묘를 세우게 되었다.

관왕묘에는 관우상과 그의 부하인 관평, 주창 등의 신상이 배향되어 있으며, 지역에 따라 임진, 정유 양란 때 전사한 명나라의 장수들을 배향하여 함께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지방의 관왕묘는 임진, 정유 양란 때 명나라 장수들이 파견된 안동, 성주, 남원, 강진 고금도 등에 세워졌는데, 지방 관왕묘의 창건연도 및 창건자, 형태, 배향자는 아래의 표와 같다.

관왕묘는 영조대의 『국조속오례의』 소사에 편입되어 있는데, 지방 관왕묘의 제의 절차는 선무사(宣武祠)에 준하되, 제사는 경칩과 상강에 지내게 하였다. 『국조속오례의』 서례조를 참조하면, 제의 절차는 영신, 전폐, 초헌(독축 포함), 아헌, 종헌, 철변두, 송신 순인데, 일반적인 국가제사 절차와 같다.

		창건연도	창건자	형태	배향자
서울	남관왕묘	1598		소상	
	동관왕묘	1602		동상	
	안동	1598	설호신(薛虎臣)	석상	
	성주	1597	모국기(茅國器)	소상	
	강진 고금도	1597 / 1598	진린(陳璘)		진린, 이순신(李舜臣)
	남원	1597 / 1599	남방위(藍芳威) / 유정(劉縉) / 서모(徐某)	목상	이신방(李新芳), 장표(將表), 모승선(毛承先)

고종 38년에는 관왕을 황제로 추존하여 ‘현령소덕의열무안관제(顯靈昭德義烈武安關帝)’라 칭하였는데, 순종 원년에 서울 및 지방 관묘 제사를 폐지하고 해당 지방 관청에 넘겨서 백성들이 신앙하는데 따라 별도로 관리하게 하였다.

남원 지역의 관왕묘에서는 5월 13일, 6월 24일(탄신), 상강, 10월 19일(기신)에 제의를 지냈으나, 현재는 상강에만 지낸다. 현재 관왕묘 안에는 중앙에 일월오악도를 놓고 그 앞에 관왕 신상과 좌우에 관평과 주창을 소상으로 모셨다. 관왕 신상 앞 중앙에는 관왕의 위패가 모셔져 있고, 동벽에는 관우가 타고 다닌 적토마 그림이 있다. 동벽에는 이신방, 서벽에는 장표, 모승선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 ① 상강대제 남원 관왕묘
- ② 관왕 신상 남원 관왕묘
- ③ 관왕 위패 남원 관왕묘
- ④ 관왕 신상 안동 관왕묘
- ⑤ 관왕 신상 성주 관왕묘

제 3 절

성현제사

1) 석전(釋奠)

성균관 및 향교의 대성전에서 일년에 두 번, 2월과 8월에 첫번째 정일(丁日)에 공자에게 지내는 제사로, 석채·정제(丁祭)·상정제(上丁祭)라고도 한다. 석전은 원래 산천 또는 묘사, 학교에서 올리는 제사를 말했으나, 후대로 오면서 학교의 의식만을 뜻하게 되었다.

주대(周代)에는 순(舜)·우(禹)·탕(湯)·문왕(文王)을 선성(先聖)으로 모셨으나, 한(漢)나라 이후 유교를 국교로 받들게 되면서 공자의 옛집에 있던 궐리사(闕里祠)에 제물을 올리며 제사를 지냈다. 당나라 때에는 국자감에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냈고, 송나라 때에는 동서 양무(兩廡)를 세워 문묘 제도가 정립되었다.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 진덕여왕 때 김춘추(金春秋)가 당나라에 건너가 그곳의 국학(國學)을 찾아 석전 의식을 참관하고 돌아온 후 국학 설립을 추진하여 682년(신문왕 2)에 그 제도가 확립되었고, 714년(성덕왕 13)에는 김수충이 당나라에서 공자와 10철(十哲) 및 72제자의 화상을 가져 와서 국학에 안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으로 보아, 일찍이 석전 의식이 국학에서 행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고려시대에는 988년(성종 7)에 임노성이 송나라에서 『문선왕묘도(文宣王廟圖)』를 들여왔고, 숙종 6년에는 국자감에서 문선왕묘의 좌우 행랑에 새로 61자(子)와 21현(賢)을 그려서 석전에 종사하길 청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최치원, 설총, 안유 등 우리 나라 인물을 문묘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성균관 및 향교에 대성전을 세우고, 공자를 비롯하여 안자, 증자, 자사자, 맹자의 4성(四聖)·10철과 주돈이, 정호, 정이, 소옹, 장재, 주희 등 송조 6현(宋朝六賢) 등 21위를 봉안하고, 동무(東廡)·서무(西廡)에 설총, 최치원(이상 신라), 안향, 정몽주(이상 고려),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이상 東方五賢), 김인후, 이이, 성혼, 조현, 김장생, 김집, 송시열, 송준길, 박세채 등 동방 18위와 중국 유현(儒賢) 94위 등 모두 112위의 위패를 봉안하고서 매년 봄·가을에 두 차례 석전을 지냈다.

일제강점기에는 성균관 및 향교는 교육기관의 기능을 상실하고, 문묘의 석전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변모하였고, 1937년부터는 석전도 양력 4월 15일과 10월 15일로 바뀌었다. 1949년에는 전국유림대회의 결의에 따라 동무·서무에 봉안하였던 112위 중 우리나라 명현 18위는 대성전에 중향하고 중국 유현 94위의 위패는 매안(埋安)하였다. 이에 대성전에는 공자와 4성, 10철과 송조 6현, 우리 나라 명현 18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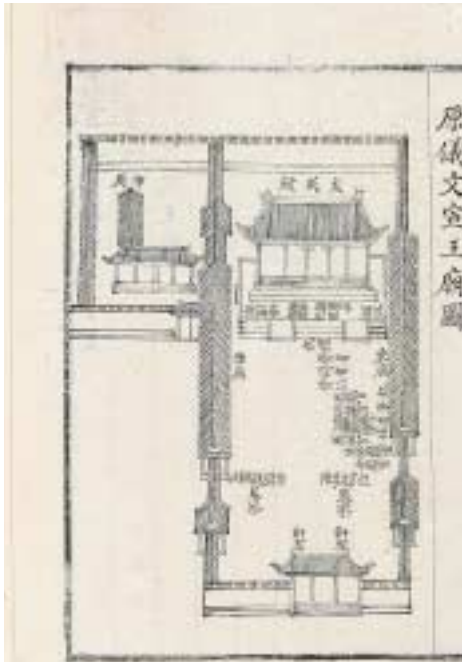
위패가 모셔져 있다. 그러나 강릉향교에서는 대성전에 공자를, 4성과 10철, 송조 6현을, 동무와 서무에는 동방 18현과 중국 유학자 94위를 모시고 석전을 지내고 있다.

지금도 성균관과 지방의 향교에서는 해마다 봄(음력 2월)과 가을(음력 8월)의 상정일에 석전을 봉행하고 있는데, 석전은 대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집례 및 묘사(廟司)가 먼저 섬돌 아래에서 4배(拜)를 올린 뒤 손을 씻고 자기 위치에 서며, 집례가 홀기를 창홀하면, 모든 제관들이 각자의 위치로 서서 4배를 하며,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는다. 그리고 묘사 및 봉향(奉香)·봉로(奉爐)가 대성전으로 올라 문을 열고 개독(開-*)한다. 알자와 찬인이 초헌관(初獻官)·아헌관(亞獻官)·종헌관(終獻官)·분헌관(分獻官)을 인도하여 정해진 위치로 나아가면, 알자가 초헌관에게 행사의 시작을 청하고, 악이 시작되면 헌관과 참례자 일동이 4배를 한다.

먼저 영신(迎神)의 의미로, 초헌관이 공자 신위, 안자 신위, 증자 신위, 자사자 신위, 맹자 신위 순으로 세 번 분향하고 폐백을 드리는 전폐례(奠幣禮)를 행한다. 그리고 첫 번째로 술잔을 올리는 초헌례(初獻禮)를 행한다. 초헌관이 공자 신위에 술잔을 올리고 조금 물러서서 꿇어 앉으면 대축이 축문을 읽는데, 안자·증자·자사자·맹자 신위 순으로 각각 술잔을 올린다.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아헌례와 마지막 술잔을 올리는 종헌례도 독축을 제외하고는 초헌과 같은 순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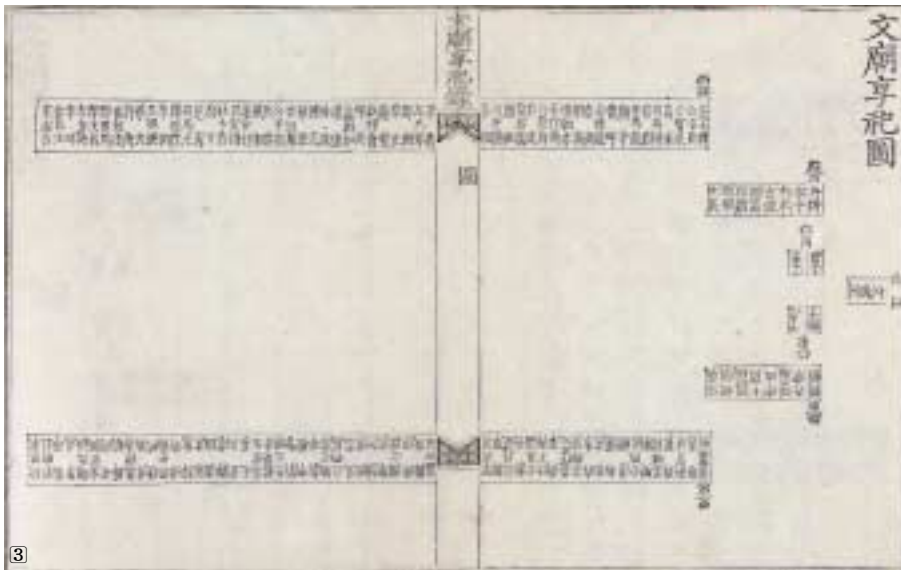
종헌례가 끝나면 분헌관이 종향(從享)되어 있는 10철과 송조 6현, 동방 18현에 대해 술잔을 드리는 분헌례(分獻禮)를 행한다. 분헌례 이후에는 석전에 쓴 술과 조육을 먹는 음복례(飮福禮)를 행한다. 초헌관이 음복위에 나가 서향하여 술을 마시고 조육을 조금 먹는다. 음복례가 끝나면 헌관 및 참례자가 일동 4배를 하며, 마지막으로 초헌관이 제사가 끝나서 축문과 폐백을 태우는 것을 지켜보는 망예례(望無禮)를 행한다. 이어 알자가 초헌관에게 예가 끝났음을 아뢰고 알자와 찬인이 헌관을 인도하여 물러나면, 집사자가 내려와 4배를 하는 것으로 석전을 마친다.



①



②



③

- ① 원의 문선왕묘도 『국조오례의』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② 친향 문선왕 진설도 『춘관통고』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③ 문묘향사도 『문묘향사록』 |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강릉향교

강원도 강릉시 교동에 있는 향교로, 1313년에 화부산(花浮山) 아래에 설립되었는데, 1411년에 소실되자 1413년에 중건되었다. 강릉향교에서는 대성전에 공자 및 4성과 10철, 송조 6현을, 동무와 서무에는 동방 18현과 중국 유학자 94위를 모시고 봄, 가을로 석전을 지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① 대성전 앞의 현관과 집사자
③ 자사자 신위전에 헌작하는 초헌관
⑤ 서무에서 분향하는 분헌관

② 공자 신위전에 분향하는 초헌관
④ 음복수조례
⑥ 명륜당에서 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

나주향교

전라남도 나주시 교동에 있는 향교로, 1407년(태종 7)에 창건되었고, 1701년(숙종 27)에는 계성사(啓聖祠)를 건립하였다. 일반적으로 향교의 배치가 앞에 명륜당이 있고, 뒤에 대성전이 있는데, 나주향교는 이와 반대로 앞에 대성전이 있고, 뒤에 명륜당이 있다. 동무와 서무가 소실되어 대성전 안에 공자 및 4성과 10철, 송조 6현, 동방 18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 ① 대성전
- ② 공자 신위전 제수
- ③ 전폐례
- ④ 조광조, 이황, 이이 위패
- ⑤ 원의 주현석전 정배위 진설도 『춘관통고』 I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밀양향교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에 있는 향교로,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으나 1602년(선조 35)년에 중창되었다. 대성전에는 공자및 4성, 송조 4현, 동방 18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 ① 분정 확인
- ② 초헌관 점시(點視)
- ③ 분헌례
- ④ 음복수조례

순천향교

전라남도 순천시 금곡동에 있는 향교로, 1407년(태종 7)에 창건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1801년(순조 1)에 현재의 위치로 이건되었다. 현재 대성전에는 공자 및 4성, 10철, 송조 6현, 동방 18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① 공자 신위전 현작
② 안자 신위전 현작

구례향교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에 있는 향교로, 1518년(중종 13) 현북 백련동 서북쪽에 창건되었는데, 매년 향사 때마다 호환(虎患)이 있었으므로 1704년(숙종 30)에 구례군의 진산인 봉성산 서응봉 아래 현재 위치로 이건하였다. 대성전에는 공자 및 4성, 송조 2현 및 동방 18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향교 식막 알묘례(謁廟禮) 구례향교 | 향교에서는 매년 봄, 가을의 석전 이외에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알묘례를 행한다.

2) 서원 향사

서원은 조선중기 이후 학문 연구와 선현 제향(先賢祭享)을 위하여 사림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송나라 주자가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을 열고 도학을 연마하는 장소로 보급한 이래, 우리 나라에서는 1543년(중종 38)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이 고려말 학자 안향(安珦)을 배향하고 유생을 가르치기 위하여 경상도 순흥에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처음으로 창건하였고, 후에 소수서원으로 사액을 받았다. 서원은 흔히 서재(書齋)·사우(祠宇) 등과 혼칭되면서 교육기관이자 향사 장소로서 인정되면서 향촌 사림의 정치적·사회적 기구로서 작용하였다.

17세기 후반 이후에 사족 사이에 동족 내지 가문 의식이 강화된 결과로, 후손에 의한 조상제향처 내지 족적 기반 중심으로 서원 건립이 자행되면서 1703년(숙종 29)에는 서원금지령이 내려졌고, 1865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학문과 충절이 뛰어난 인물에 대하여 1인 1원(一人一院) 이외 모든 첩설서원을 일시에 철폐하여 전국에 47개소의 서원만 남았다.

서원을 크게 선현의 제사를 지내는 사당과, 선현의 뜻을 받들어 교육을 하는 강당과, 원생 등이 숙식하는 동재(東齋)와 서재(西齋)로 구성된다. 그 중에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행하는 알묘례(謁廟禮)와 2월과 8월 두번째 정일(丁日)에 지내는 향사는 제향 기능 이외에 교육적, 사회적 의미가 커서, 서원 향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향촌 사회에서 정치적 위상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현재 서원철폐령에 남은 47개의 서원 이외에 제향 인물의 후손이나 문화부의 지원을 받아 많은 서원이 중건되기도 하였는데, 서원이 갖는 교육적 기능은 약화되고, 대신에 향교와 함께 지방유림들의 시회(詩會)나 강회(講會)가 열리는 장소나, 향사를 위한 제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도소

도동서원

대구광역시 구지면 도동리에 있는 서원으로, 한훤당 김굉필(1454-1504)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되어 위패를 모셨으며, 후에 한강 정구(鄭逋)를 추가 배향하였다. 1607년 ‘도동서원(道東書院)’이라고 사액되었으며, 1871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훼손되지 않은 47개 서원 가운데 하나이다.

서원 향사는 망기(望記)를 받은 유림들이 주로 참여하는데, 이에 도포를 착용하고 서원에 도착해서 시도기(時到記)에 이름, 생년, 주소를 기재하고서 서로 인사를 한다.

제원이 모두 모이면 강당에 모여 상읍례를 하며, 사당에 나아가 알묘례(謁廟禮)를 행한다. 서원 유사의 인도 하에 현관 및 제관들이 사당에 들어가면, 초현관이 관세위(瓊洗位)에 나아가 손을 씻고 중문 앞에서 분향을 하며, 참례자 전원이 재배를 한다.



도동서원 전경



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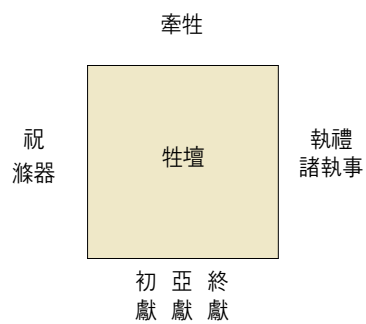


④

① 상음례
③ 알묘례 분향

② 사당
④ 알묘례 재배

알묘례가 끝나면 성생단(省牲壇)에 나아가 성생례(省牲禮)를 행한다. 향사에 쓸 희생(돼지)을 전사청에서 성생단으로 옮겨 희생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다.





① 성생단에 모인 제관
② 성생례

성생례가 끝나면 분정례를 행한다. 강당에서 상읍례를 한 후 각자의 자리에 앉아, 유사(유사)의 주도 하에 헌관, 축, 제관을 정하고, 이들에게 승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분정기에 기록하여 분정판에 붙이며, 강당에 걸어둔다.



- ① 분정례
- ② 축문 확인
- ③ 분정 확인 및 예행연습

축이 강당 중앙에 나와 축문을 쓴다. 축문을 다 쓰고 나면 헌관 및 제관에게 확인을 한다.

분정례가 끝나면 모두 일어나 상읍한 후 각자의 방으로 가서 휴식한다.

저녁에는 진설을 한다.

도동서원의 경우 행례는 축시(오전 1시~ 3시)에 한다. 강당에 모여 상읍하고서 줄지어 사당으로 올라간다. 행례는 홀기 낭독에 의해 진행되는데, 행례 절차는 먼저 초헌관(初獻官)이 제수 진설을 살펴보는 점시(點視)를 하고 다음으로 축이 위패의 주독(主-)을 여는 계독(啓-)을 하면, 축 및 제집사가 북향하여 재배를 하고 관세 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제자리에 나간다.

찬자의 인도 하에 헌관이 제자리에 서면 찬자가 초헌관의 좌측에 나아가 행사하기를 청하고, 삼헌관은 모두 재배한다.

春秋享祀祝文

維歲次 年 月 朔 日 後學某等 敢昭告于
贈右議政文敬公寒暄堂金先生維公夾持敬義兩進明誠
精積力九德立道成闡揚絕學百代儒宗密邇松楸 陪
儀容茲值仲(春秋)陳薦馨香用格時歆惠佑無疆以
贈領議政文穆公寒岡鄭先生配尚
饗

陳設圖

位			
鹿脯	豆	黍	稻
魚鹽	豆		
蘿	豆	豕腥	
〃	豆	燭	幣
	爵	爵	爵
		香爐	香盒
祝	〃	茅沙	
犧尊 象尊			
玄酒 清酒			

영신의 의미로, 초헌관이 문경공(文敬公; 김굉필) 신위전에 북향하여 무릎을 꿇고서 분향을 하고, 폐백을 바치는 전폐례를 행한다. 다음으로 문목공(文穆公; 정구) 신위전에 나아가 분향하고 폐백을 바친다.

그리고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초헌례를 행한다. 초헌관이 작세위(爵洗位)와 준소(尊所)에 서향하여 세작(洗爵)과 침주(斟酒)를 지켜본다. 이어 문경공 신위전에 나아가 북향하여 무릎을 꿇으면, 찬자가 작을 초헌관에게 주며, 초헌관은 작을 잡고서 술을 모사기에 세 번 붓고 헌작(獻爵)을 한다. 축이 초헌관의 좌측에 나아가 동향하여 무릎을 꿇고 축문을 읽는다. 독축이 끝나면 다시 작세위와 준소에 나가 세작과 침주를 지켜보며, 문목공 신위전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다. 찬자가 작을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은 작을 잡고서 술을 모사기에 세 번 붓고 헌작(獻爵)을 하며, 앞드렸다가 일어나 당 아래로 내려간다.



① 계독
② 침주

아헌례와 종헌례도 이와 같은데, 다만 독축만 하지 않는다. 종헌례가 끝나면 음복수조례(飮福受 禮)를 행한다. 찬자의 인도 하에 초헌관이 사당 위 음복위에 이르러 서향하여 무릎을 꿇고서 복주(福酒)와 조육(肉)을 맛보고 얹드렸다가 일어나 재배를 한다. 이어 초헌관을 제외하고 모든 참례자들이 재배를 한다.



① 헌작
② 음복수조례

축이 사당에 올라가 신위전의 변두(甁豆)를 하나씩 받들어 제 자리를 조금 옮기고 사당 아래로 내려오면 헌관이 모두 재배한다. 찬자의 인도 하에 초헌관은 망예위(望無位)에 이르러 북향하여 축이 축문과 폐백을 태우는 것을 지켜보고 내려온다. 찬자는 초헌관의 좌측에 나아가 '예필(禮畢)'을 고하고 헌관을 인도하여 강당으로 나가며, 찬자는 다시 들어와 축 및 제집사와 함께 재배하고 나간다. 축은 주독을 덮고, 장찬자(掌饌者)는 사람들을 데리고 제물을 거두어 문을 닫고 나온다.



① 망예례
② 감(坎)
③ 음복례

유림 묘제

한편 도동서원에서는 한훤당 김굉필의 묘제를 음력 10월 2일에 지낸다. 한훤당 선생이 도동서원의 주향(主享)이기 때문에 봄, 가을 향사 이외에 묘제에도 도동서원의 유사들이 중심이 되어 헌관 및 축을 정하고, 묘제를 준비한다.

아침 8시에 묘소 앞에 차일(遮日)을 치고 향사에 준해 진설을 한다. 다만 국수와 떡, 과일 등은 진설하되, 밥과 국은 진설하지 않는다. 진설은 다음과 같다.



진설이 끝나면 한훤당 묘소 서쪽에 있는 한훤당 부친의 묘제가 행해지는 것을 보고서 비로소 한훤당의 묘제를 지낸다. 묘제는 창홀에 의해 진행되는데, 집례와 집사자가 먼저 재배를 한다. 이어 헌관 이하 참례자 모두 재배를 한다. 초헌관이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향안전에 나가 무릎을 꿇고서 분향을 하며, 상석 아래에 술을 붓는 강신을 하고서 재배를 한다.

초헌례를 행한다. 초헌관이 작세위(爵洗位)에 나아가 세작(洗爵)하는 것을 보고 향안전에 나아가 무릎을 꿇으며, 잔에 술을 따라주면 초헌관은 술을 땅에 조금 부은 후에 헌작을 한다. 집사자가 육적(肉炙)을 올리면, 축이 동향하여 무릎을 꿇고서 다음과 같은 축문을 읽는다.

維歲次壬午年十月丁丑朔初二日後學 ○○○ 等敢昭告于
寒暄堂先生金文敬公之墓伏以氣序流易茲值初冬霜露既降瞻省封塋不勝感
慕陳薄羞用昭微 /仰惟精爽庶垂歆臨尙
饗

독축이 끝나면 헌관이 재배를 하고서 찬자의 인도 하에 제자리로 간다. 아헌례와 종헌례도 초헌과 같은데, 다만 독축을 하지 않고 진적에 아헌에는 계적을, 종헌에는 어적을 올린다.

종헌례가 끝나면, 이어 헌관과 참례자 전원이 사신 재배를 한다. 찬자의 인도 하에 헌관이 묘소에서 떠나면 집사자가 술잔에 손을 대고 나서 젓가락을 세 번 치는 것으로 철찬(撤饌)을 대신하며, 재배를 한다. 그리고 축문을 태운다.



한훤당 김경필 묘소 전경



① 서원에서 묘소가는길
② 제수 운반
③ 헌작

병산서원

경북 안동시 풍천면(豊川面) 병산동(屏山洞)에 있는 서원으로, 류성룡(柳成龍)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존덕사(尊德祠)를 창건하고 위패를 모셨으며, 후에 유진(柳軫)을 추가 배향하였다. 1863년(철종 14)에 ‘병산서원(屏山書院)’이라고 사액되었으며, 1865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훼손되지 않은 47개 서원 가운데 하나이다.



- ① 제수단자 확인 | 분정례가 끝난 후에 전사청에서 초헌관과 집례가 지켜보는 가운데 물목단자를 가지고 제수를 확인하며, 제수마다 '근봉(謹封)'이라 쓴 한지를 붙인다.
- ② 상음례
- ③ 독축 | 초헌관이 신위전에 나아가 북향하여 헌작을 하면 축이 헌관의 좌측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축문을 읽는데, 초헌관 이하는 서 있다.
- ④ 준소와 침주
- ⑤ 음복 | '음복 개좌 아뢰오'를 세 번 외치면, 강당에 모여 음복을 한다.



축문을 쓰는 축 ! 초헌관과 축이 존덕사 왼편에서 축판과 상을 놓고 서향하여 축문을 쓴다.
초헌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축이 축문을 쓰는데, 축문을 다 쓴 후에는 초헌관이 검열하고 사당 안에 놓는다.

돈암서원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리에 있는 서원으로, 김장생(金長生)을 주향으로 김집(金集), 송준길(宋浚吉), 송시열(宋時烈) 등 문묘에 배향된 선정신(先正臣)을 배향하였다. 1663년(현종 4)에 ‘돈암서원(遯巖書院)’이라고 사액되었으며, 1865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훼손되지 않은 47개 서원 가운데 하나이다.



- ① 축문 작성 | 초헌관이 진설을 살펴본 후에 사당 중문 앞에 북향하여 무릎을 꿇으면, 축이 동향하여 직접 내사연(內賜硯)에 먹을 갈고 축문에 초헌관의 이름을 기재하며, 초헌관은 이를 확인한다.
- ② 독축 | 초헌관이 알자의 인도하에 사계선생 신위전에 나아가 북향하여 헌작을 하면, 축이 초헌관의 좌측에서 동향하여 무릎을 꿇고서 축문을 읽는다.
- ③ 헌작 | 헌관은 준소에서 침주(斟酒)를 확인하며 신위전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사계, 신독재, 동춘당, 우암 선생 순으로 헌작을 한다.
- ④ 음복수조례 | 집사자가 음복상을 중문에 놓으면 초헌관이 알자의 인도하에 중문 앞에 서향하여 무릎을 꿇고 복주를 마시며, 조육을 맞는다.

필암서원(筆巖書院)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에 있는 서원으로, 하서 김인후(金麟厚)의 도학을 추모하기 위해 우동사(佑東祠)를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으며, 고암 양자징(梁子徵)을 추가 배향하였다. 1662년(현종 3)에 ‘필암서원(筆巖書院)’이라고 사액되었으며, 1865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훼손되지 않은 47개 서원 가운데 하나이다.



①



②



③



④



⑤



⑤

- ① 시회 | 향사 전날에 강당에 모여 분정례를 마치고 강회를 하며, 향사 당일 아침에는 시회를 한다.
- ② 제수 확인 | 사당으로 제수를 운반하기에 앞서 물목단자를 가지고 현관 및 제 집사에게 제수를 확인한다.
- ③ 계반개 | 제수를 진설할 때 보()와 궤()에 두껍을 덮어 두었다가, 향사때 계독(啓-)과 함께 보와 궤의 두껍을 연다.
- ④ 배향위 헌작 | 현관은 주향인 하서선생의 신위전에 헌작을 하고서, 배향위인 고암선생의 신위전에 헌작을 한다.
- ⑤ 망예례 | 음복수조례가 끝난 이후에 초헌관이 망예위에 나아가 축문과 폐백을 태우는 것을 지켜본다.

회연서원(檜淵書院)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에 있는 서원으로, 한강 정구(鄭逵)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으며, 석담 이윤우(李潤雨)을 배향하였다. 향현사에는 신연 송사이, 용재 이흥기, 육일헌 이홍량, 모재 이흥우, 동호 이서 선생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1690년(숙종 16)에 ‘회연서원(檜淵書院)’ 이라고 사액되었으나, 1865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훼철되었고, 1974년에 복원 되었다.



① 회연서원 전경

② 분정례 | 강당에 모여 현관 및 제 집사를 분정하고 축문을 쓴다

③ 성생례 | 사당 앞 성생단에서 현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희생(돼지)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④ 분향 | 영신의 의미로 초헌관이 신위전에서 분향을 하고 폐백을 올리는 전폐례를 행하고 있다.

⑤ 향현사 | 회연서원에서는 한강 정구 선생을 모시는 사당 이외에 성주 유림들이 추대한 유학자들을 향현사에 모셔 매년 춘추로 향사하고 있다.

⑥ 음복 | 향사를 마친 후에 강당에서 현관을 중심으로 음복상을 준비하고 강회 및 음복을 한다.

도원서원(道源書院)

전라남도 화순군 동북면 연월리에 있는 서원으로, 신재(新齋) 최산두(崔山斗)·석천(石川) 임억령(林億齡)·한강(寒岡) 정구(鄭逵)·우산(牛山) 안방준(安邦俊)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1687년(숙종 13)에 ‘도원서원(道源書院)’이라고 사액되었으나, 1865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훼손되었고, 1976년에 복원되었다.



① 상음례도

② 상음례 | 음례(摺禮)는 장소 관계나 기타 사정으로 절을 해야 할 대상에게 절을 할 수 없을 때 간단하게 공경을 나타내는 동작이다.

도원서원에서는 향사에 앞서 뜰에다 백회로 상음례도를 그려놓고 집례의 창홀에 따라 상음례를 연습한다.

③ 향약 강독 | 상음례를 연습하면서 집례가 『여씨향약』을 낭독하여 향사 및 향약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④ 헌작 | 도원서원에서는 서쪽에서부터 신재, 석천, 한강, 우산선생 순으로 헌작을 한다.

계양서당

경남 창녕군 고암면 계팔마에 있는 서당으로, 한훤당 김굉필의 후손인 계산현(桂山軒) 김희달(金希達)의 학행과 효행을 본받고자 창녕, 현풍 일대의 문하생들이 중심이 되어 향사를 지내고 있다. 이 향사에는 소학동자(小學童子) 한훤당의 후손인 만큼 매년 『소학』을 강론하면서 효행 실천의 참뜻을 기리고 있다.



- ① 소학 강회 | '소학세가(小學世家)'인 서흥김씨의 후손으로 『소학』을 해마다 강론하고 있다.
 ② 초헌례 | 초헌관이 계산현 선생의 신위전에서 무릎을 꿇고서 헌작을 하고 있다.
 ③ 서당 입구 | 계양서당은 효행을 강조하는 서당으로, 문의 이름도 '효일문(孝—門)'이라 하였다.

孝一門

桂陽書堂

제 2장 집안제사

- 제 1절 집안제사의 내용과 의미
- 제 2절 사당과 신주
- 제 3절 제물 진설
- 제 4절 집안제사의 종류와 관행



제 1 절

집안제사의 내용과 의미

1) 제사의 의미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하고 그 근본에 보답하고자 하는 정성의 표시이다. 『중용(中庸)』에 ‘事亡如事存 孝之至也’라 하여 돌아가신 조상을 섬기기를 계신 듯이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조상의 신주를 사당에 모시고, 집안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아뢰고, 아침저녁으로 부모님에게 인사드리는 마음으로 뵈고, 매달 초하루 및 보름에 차례를 지낸다. 설·추석 등에 차례와 절사를 지내고, 절기마다 천신하며, 봄·여름·가을·겨울에는 시제를 지냈다. 기일에는 기제를 지냈다. 이와 같이 사당에 조상이 계신 듯이 제사에 정성을 다하여, 조상으로부터 복을 받고 후손에게 효성과 공경의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2) 제사의 종류와 의미

조선시대에 제사의 규범서가 된 『주자가례(朱子家禮)』에는 사시제(四時祭)·초조제(初祖祭)·선조제(先祖祭)·네제(〰祭)·기일제(忌日祭)·묘제(墓祭) 등 6가지의 집안제사가 있다.

봄·여름·가을·겨울에 한 차례씩 4대친(고조·증조·조·고)을 모시는 사시제는 사계절이라는 자연의 운행에 따라 사당이나 정침에서 지낸다. 왕실 조상의 경우는 맹월(孟月; 1월, 4월, 7월, 10월)에 길일을 택하여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사대부 및 서민의 경우는 중월(仲月; 2월, 8월, 11월)에 길일을 택하여 사시제를 지냈다.

동지에 시조를 모시는 선조제는 동지가 양(陽)의 시작임을, 입춘에 시조 이하 고조 이상의 조상을 모시는 선조제는 생물이 시작하는 봄을, 중추에 아버지를 모시는 네제는 사물이 익는 가을을 상징하여 지내는 것이다.

반면에 기일제는 이러한 자연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조상의 죽음을 평생 기억하며 그를 추모하는 의례이다. 묘제는 시간보다는 무덤이라는 공간적 관념이 강하기는 하지만, 3월과 10월에 모시는 묘제는 이날에 초목이 처음 자라고 처음 시드는 날을 당하여 추모의 정이 생겨났기 때문에 지내는 것으로 상징하고 있다. 이와 연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설·한식·단오·추석 등 명절에 묘소에서 절사를 지내며, 매월 초하루와 보름 및 명절에 사당에서 차례 및 차사를 지냈다.

3) 제사의 변천

고려말 성리학의 수용과 더불어 중국의 『소학』과 『주자가례』가 사대부의 실천규범으로 인식되면서 우리나라에 유교식 제사가 점차 보급되었다. 『주자가례』를 수용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기제와 묘제를 중시하여, 『주자가례』에는 사시제·초조제·선조제·네제·기제·묘제 등 6가지의 제사가 있었으나, 『국조오례의』 및 『상례비요』 등에는 크게 사시제, 기제, 묘제만을 주요 제사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제사는 정침(또는 청사)에서 지내는 사시제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묘소를 중시하여, 사당에서보다는 설·한식·단오·추석 등 사명일(四名日)에 묘소에서 제사를 지내왔다. 사당에서의 사시제와 사명일의 묘제가 절기상으로 겹치거나, 묘제 관행이 성행하면서 사시제는 점차 축소되었다. 그리하여 4대 조상을 중심으로 사당에서 기제 및 명절 차례를, 묘소에서 3월 또는 사명일에 절사를 지내며, 5대 이상의 선조에 대해서 10월에 묘제(세일사 또는 시제)를 지내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가정의례준칙」을 제정하여, 기제는 2대에 한하여 지내고, 차례는 설과 추석에, 묘제는 한식·추석·중구 또는 적당한 날을 잡아 행례하게 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인 제사관행으로 4대친에 대한 기제와 함께, 설과 추석(또는 중구) 등의 차례와 성묘를 중요한 제사로 인식하고 있으며, 시제는 한식 또는 10월에 5대 이상 조상의 묘소에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4) 봉사 대수

처음 유교식 제례가 수용되었을 때 신분별로 봉사대수도 한정되어 있었다. 고려 공민왕 2년에 포은 정몽주가 제정한 제례 규정에는 대부 이상의 관원은 3대 봉사, 6품 이하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2대 봉사, 7품 이하의 하급 관원과 서민들은 부모만을 봉사하도록 하였다.

그후 조선시대 『경국대전』 「예전」편에, 사대부 이상은 4대 봉사, 6품 이상은 3대 봉사, 7품 이하는 2대 봉사, 일반 서인은 부모만 제사지내도록 하였고, 『국조오례의』에는 사시제를 2품 이상은 사중월(2월·5월·8월·11월) 상순에, 6품 이상은 사중월 중순에, 7품 이하는 사중월 하순에 모두 날을 택하여 거행하게 하였다. 이렇게 봉사 대수가 법제적으로 신분적인 차등이 있었지만, 『주자가례』를 실천하려는 사림(士林)을 중심으로 점차 4대 봉사를 하면서, 관행적으로 신분의 구별 없이 4대 봉사를 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의례준칙」이 제정되어, 기제는 조·고 2대에 한하여 봉사하도록 하였으나, 전통적인 관행으로 아직까지 4대 봉사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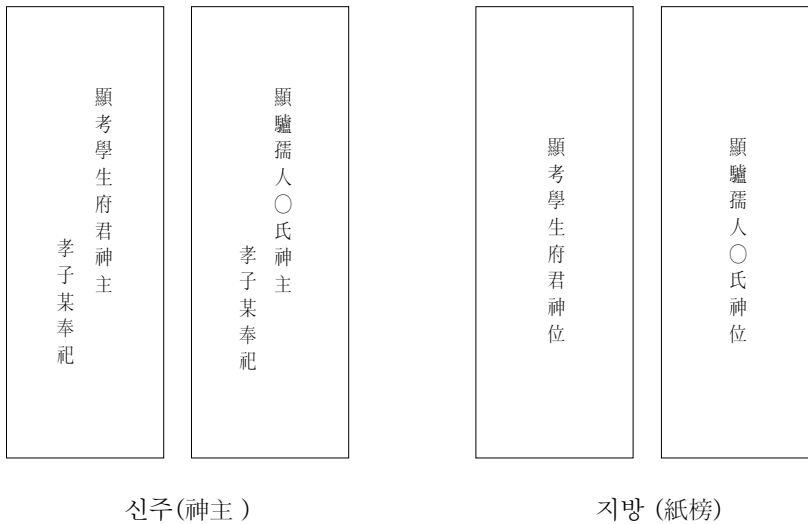
5) 제사 장소

조상의 신주를 모시고 있는 장소를 사당(祠堂) 또는 가묘(家廟)라고 한다. 사당에 서는 매월 초하루 및 보름, 명절 등에 차례를 지내며, 매일 아침에 찾아뵙거나, 집안에 큰 일이 있을 때 고하기도 하였다.

사시제 및 기제에는 사당에서 신주를 정침(또는 청사)으로 모시어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묘제는 묘소에서 지내나, 비가 올 때에는 재실(齋室) 등에서 지방(紙榜)으로 망제(望祭)를 지낸다.

6) 제사 대상

제사 대상은 원래 신주(神主)이나, 신주가 없을 때에는 지방(紙榜)이나 영정(影幀), 사진으로 대신한다.





제 2절

사당과 신주

1) 사당

사당은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곳으로, 왕실의 사당을 종묘(宗廟)라고 하며, 집안의 사당을 가묘(家廟)라고 한다. 고례(古禮)에서는 사당을 종묘 또는 예묘(藝廟)라고 하였는데, 종묘와 구별하여 사마광의 『서의』에는 영정을 모신다고 해서 영당(影堂)이라 하였고, 주자의 『주자가례』에 사당이라 칭하고 가묘라 하였다.

우리 나라에 사당제도가 수용된 것은 유교가 수용된 삼국시대 이후부터이다. 삼국시대에는 시조묘(始祖廟)에 제사를 지냈는데, 특히 신라에서는 종묘제를 오묘제(五廟制)로 운영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종묘와 별묘는 물론, 왕과 왕비의 영정을 모시는 경령전(景靈殿)과 진전(眞殿)이 있었고, 귀족들은 자기 조상을 위해 조상의 산소 근처에 원찰(願刹)이나 원당(願堂)을 지어 조상의 영정을 모시고 제사를 지냈다. 이처럼 국가에서는 왕실의 사당인 종묘를 중심으로 경령전이나 진전 등 조상의 영정을 모시었고, 관리들은 사찰 등에 원당을 지어 조상의 영정을 모셨다.

그러나 고려말 『주자가례』가 수용되면서 본격적으로 사당제도가 시행되었다. 『주자가례』에 따라 가묘를 세우고 영정을 대신해서 신주를 모시도록 권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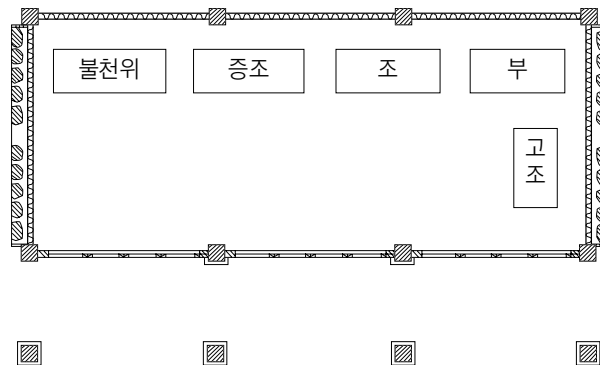
안동 퇴계중가의 사당 외문



- ① 가묘지도(家廟之圖) 『가례』
- ② 사당전도(祠堂全圖) 『가례집람』
- ③ 사당전도(祠堂全圖) 『상례비요』
- ④ 사당지도(祠堂之圖) 『사의』



① 논산 사계선생 묘역과 사계증가
② 사계증가의 사당
③ 사당의 방화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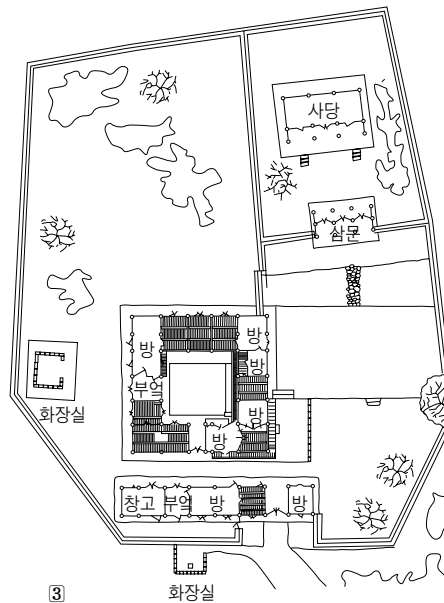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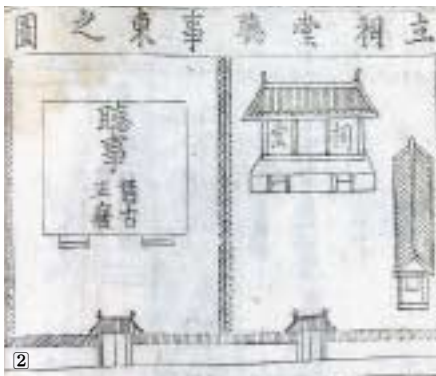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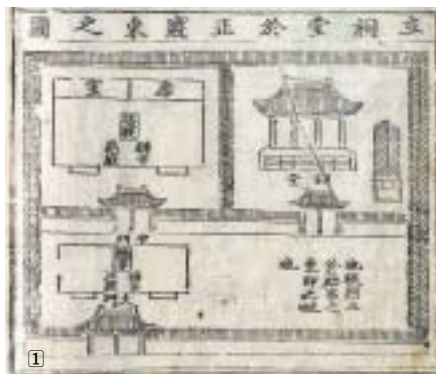
논산 사계증가 사당의 신위 배열도 I 사계선생 묘역 아래에 불천위인 사계선생과 증가의 4대친을 모시고 있는 사당이 있다. “사당 안의 4개의 감실 이외에 별도의 감실을 설치하여 5개의 감실을 만든다면 이것은 제후의 예이다”라는 사계선생의 예설(禮說)에 따라, 북벽의 4개 감실 이외에 동벽에 하나의 감실을 만들어 고조고 · 비를 모시고 있다.



① 안동 농암종가의 사당
② 안동 학봉종가의 사당

그래서 『주자가례』에 따라 사당(3칸)은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지어야 한다고 하였다. 사당은 정침(正寢) 동쪽에 위치하는데, 땅이 좁으면 청사의 동쪽에 위치하여도 괜찮다고 하였다. 우암 송시열은 “옛날에 도성을 건설할 때에 왼쪽은 종묘, 오른쪽은 사직단을 세웠으니, 사대부가에서도 이 예를 따라 오른쪽에는 청사를, 왼쪽에는 사당을 배치한다”고 하였다.

사당이 있는 집은 종자(宗子)가 대대로 지키어 나뉘지 못하게 하였다. 사당의 방향은 집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앞은 남쪽, 뒤는 북쪽, 왼쪽은 동쪽, 오른쪽은 서쪽으로 설정하게 하였다.



① 입사당어정침동지도(立祠堂於正寢之圖) 『상례비요』

② 입사당청사동지도(立祠堂聽事東之圖) 『가례집람』

③ 경주손씨 종가배치도 | 정침 동쪽에 사당이 위치하고 있다. 예전에 사당 앞에 제청이 있어서, 사당을 중심으로 사랑채와 제청에서 주로 제사를 지냈다. 현재 양민공의 불천위제사는 사랑 대청(廳事)에서, 비위인 풍덕유씨의 제사는 안채 대청(正寢)에서 지내며, 종부가 아원을 한다.

만약 집이 가난하고 땅이 좁아서 사당을 1칸만 짓게 되면, 사당 안 동쪽과 서쪽의 벽에 큰 궤(櫃)를 하나씩 만들어놓고 서쪽에 있는 궤에는 유서와 의물을, 동쪽에 있는 궤에는 제기를 각각 보관하게 하였다. 또는 사당이 없을 경우 별도의 사당방을 마련하거나, 사랑 대청 위에 벽감을 두어 조상의 신주를 모시기도 하며, 일반 서민의 경우에는 주독장을 만들어 조상의 신주를 모시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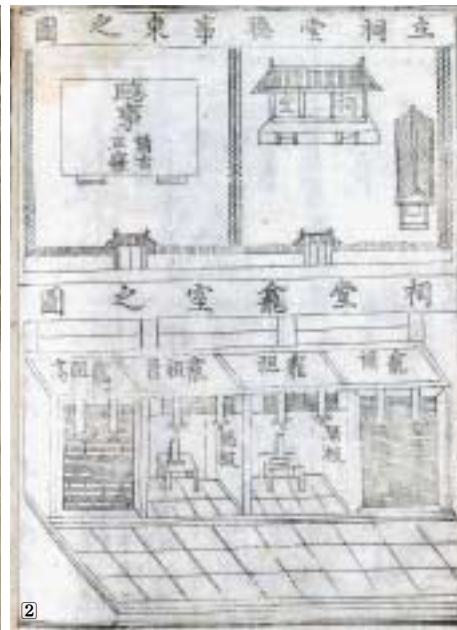


- ① 충재종가의 사당과 제청(羹醬閣) ! 불천위 제사의 경우 문인의 후손들이나 유생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불천위 사당이 있는 종가의 경우에 사당과 연계하여 사랑채를 확대하거나 별도의 제청을 두기도 하였다.
 ② 사당일칸도(祠堂一間圖) 『가례집람』
 ③ 사당일칸도(祠堂一間圖) 『상례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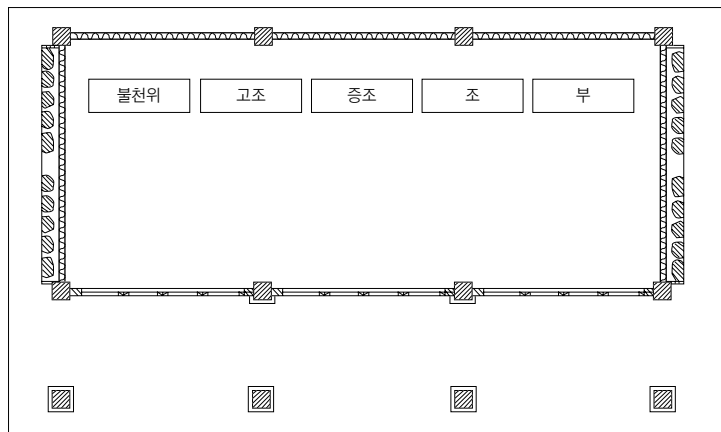


- ① 여주 해평윤씨의 사당방 I 집 안에 별도의 사당방을 마련하여 조상의 신주와 영정을 모시고 있다.
 ② 고양 율곡종가의 감실장 I 종가가 원래 해주에 있었으나, 한국전쟁으로 피난을 와서 현재 아파트내 서재 벽에 감실장을 마련하여 율곡선생의 신주를 모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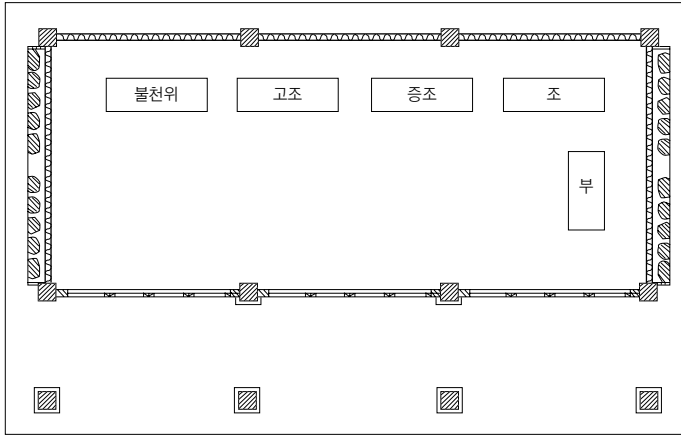
사당은 북벽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1가(架)를 설치하고, 4등분하여 4개의 감실(龕室)을 만들며 나무판으로 막아서 구분을 한다. 서쪽 감실부터 고조고·비(高祖考驢), 증조고·비(曾祖考驢), 조고·비(祖考驢), 고·비(考驢)의 순으로 신주를 모신다.



① 사당지도 (祠堂之圖) 『주자가례』
② 사당감실지도 (祠堂龕室之圖) 『가례집람』



사당의 신위 배열도(一자 배치)



사당의 신위 배열도(ㄴ자 배치) 1 불천위가 있는 종가의 경우, 가묘 이외에 별도의 별묘를 세우거나, 사당 안에 북벽이나 동벽에 1개의 감실을 더 두어서, 불천위와 4대전을 함께 모시기도 한다.

한편 고제(古制)에 따라 고조고·비를 사당 중앙에 위치시키고 ‘좌소우목(左昭右穆)’, ‘부소자목(父昭子穆)’에 따라 좌우로 증조고·비, 조고·비, 고·비의 신주를 모시기도 한다. 그리고 ‘소 항렬은 항상 소 항렬이고, 목 항렬은 항상 목 항렬이다(昭常爲昭 穆常爲穆)’고 하여, 새로운 소 항렬의 신주가 사당에 들어오면, 전체 신주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소 항렬만 옮기기도 한다.



①



②

① 금정사우별 소목도 『사례집요』
② 대구 한원당 종가의 사당 내부

그리고 방친(傍親) 가운데 후손이 없는 경우에 종조부모(從祖父母)의 신주는 고조의 감실에, 증숙부모(仲叔父母)의 신주는 증조의 감실에, 처와 아우와 제수의 신주는 조(祖)의 감실에, 아들·며느리·조카·질부의 신주는 고(考)의 감실에 각각 함께 모신다.

사당 안에는 감실마다 탁자 위에 주독(主-?)을 놓고 그 속에 신주를 모시며, 감실 밖에는 각각 작은 발을 내린다. 그 발 밖의 사당 한가운데에 향탁을 놓고 향탁 위에는 동쪽에 향함(香盒), 서쪽에 향로(香爐)를 놓아둔다. 사당 밖 두 섬돌 사이에 둔 향탁 위에도 마찬가지로 향로와 향함을 놓아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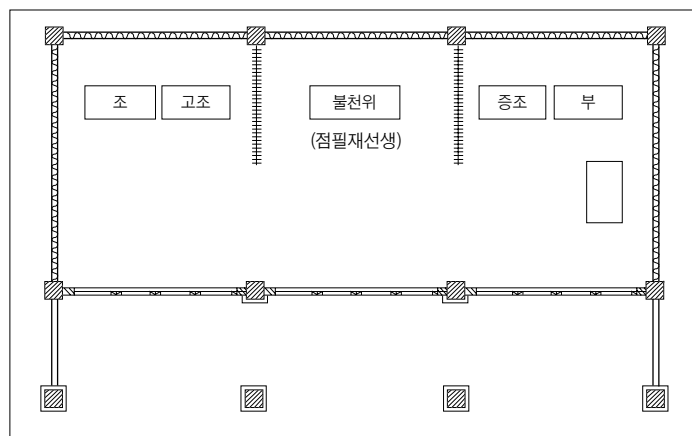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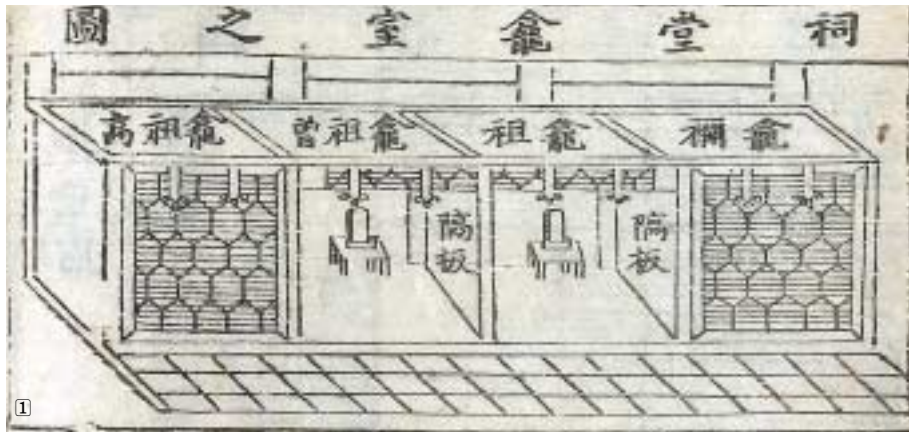
②

① 고령 점필재종가의 사당
② 고령 점필재종가의 사당 내부



고령 점필재종가의 사당 신위 배열도

사당에서는 신알례(晨謁禮) · 출입고(出入告) · 삭참(朔參) · 망참(望參) · 정조참(正朝參) · 동지참(冬至參) · 속절차례(俗節茶禮) · 천신례(薦新禮) · 유사고(有事告)를 한다. 그리고 불천지위(不遷之位)도 부조묘(不逝廟)가 있을 경우에는 가묘 이외에 따로 사당을 가묘 서쪽에 짓고 사당의 절차와 같이 하며, 따로 별묘를 짓지 못할 때에는 가묘의 맨 서쪽 1칸을 나무판자로 막고 별묘의 형식을 갖춘다.



① 사당감실지도(祠堂龕室之圖) 『상례비요』
② 대전 동춘당종가의 사당 감실과 발(簾)
③ 동춘당종가의 동춘당 신위

2) 신주

신주(神主)는 조상의 신령(神靈)을 나타내는 신체(神體)를 말한다. 신체로는 사판(祠版), 위패(位牌), 패자(牌子), 목주(木主), 우주(虞主), 연주(練主), 지방(紙榜), 지표(紙標) 등인데, 오늘날 '신주'라 하면, 보통 종묘(宗廟)나 가묘(家廟)에 모셔진 목주를 말한다. 신주는 조상의 혼이 깃들어 있는 신체로 여기어 사당이나 벽감(壁龕)에 모시고 살아계실 때와 같이 아침 저녁으로 인사를 드리고,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뢰기도 하였다. 이는 곧 조상으로 인식하여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 집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것으로 여기었다.

고대 중국에서는 시동이라 하여 할아버지의 제사에 손자를 제사상 위에 앉혀놓고 제사를 지내왔다. 그러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자제(子弟)로서 시동을 삼다보니, 고조(高祖), 증조(曾祖), 조(祖), 고(考)가 분별이 안되어서 목주를 사용해서 알게 하였다고 한다. 반면 『오경이의』에는 대부분 비단을 묶어 신체를 나타내고, 사는 띠를 묶어 신체로 나타냈는데, 비단이나 띠가 오래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단단한 나무로 대신하였다고 한다.

사마광의 『서의』에 처음으로 비단을 묶어 신에 의뢰한다는 설을 따라 혼백으로 바꾸었다. 혼백은 건 1필을 사용해서 양단(兩端)을 말아 서로 향하게 묶는다든지, 백견(白絹)을 접어서 긴 끈을 만들고 서로 관통하게 하는 동심결(同心結)의 형태가 있었다. 동심결의 경우에도 위로는 머리를 내고 옆으로 두 귀를 내며, 아래로는 그 나머지에 이어 두 발을 만들어 사람의 형상을 닮게 하였다. 혼백은 죽은 자를 대신 하던 신체로서 신주가 세워지면 묘소나 사당 계단 아래에 묻었다.



① 결백(結帛)과 속백(束帛) 『가례집람』

② 혼백도(魂帛圖) 『사례집요』

이러한 혼백 이외에 관모와 의복과 신발을 사용하여 사람의 형상처럼 장식한다든지, 화상을 그려 영당에 모신다든지, 흙으로 빚은 소상(塑像)을 만드는 등 여러 형태의 신체가 존재하였다. 이에 송나라의 사마광은 『서의』에 “세속에서는 모두 초상화를 그려 혼백의 뒤에 놓는다. 남자는 살아 있을 때 그린 초상화가 있으면 그것을 써도 괜찮다. 그러나 부인의 경우 살아 있을 때에는 깊숙한 규문(閨門)에 거처하였고, 외출할 때에는 덮개 가마를 타거나 얼굴을 가렸으니 죽었다고 해서 어찌 화공에게 직접 깊은 방안에 들어가 얼굴을 덮은 비단을 들고서 붓으로 얼굴을 살피며 그 용모를 그리게 할 수 있겠는가?”하여 이를 예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정자도 용모가 닮지 않으면 귀신이 의뢰할 수 없다고 하여 초상화를 가지고 제사지내는 것을 반대하였다.

사마광 당시에도 가묘를 세우도록 권장하였으나 제도로 정착되지 못하였다. 다만 문로공(文潞公)만이 서경(西京)에 가묘를 세웠음으로 사마광이 『서의』에서 행례의 장소로서 가묘 대신에 영당(影堂)을 내세웠다. 당시 영당에는 조상의 유품과 사판, 영정 등이 모셔져 있었다.

그러나 주자는 『주자가례』에서 정자의 신주제도에 사서인은 신주를 사용하지 않고 다만 패자(牌子)를 쓴다고 하였으나, 패자 또한 정해진 제도가 없으니, 신주와 같이 크기와 높이를 하되, 쪼개서 합치거나 함중을 만들지 않는 것은 괜찮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주제도는 정자가 만든 것이지 애초에 조정에서 세운 법이 아니므로 관품에 관계없이 사서인이 신주를 사용해도 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주자는 『주자가례』에서 사마광의 영당 대신에 사당(가묘)을 권두에 내세워 가례 행용의 중심처로 설정하였고, 간편함을 좇아 밤나무로 만든 목주 하나만으로 신주를 대용하게 규정하였다.

우리 나라에 신주가 수용된 것은 유교가 수용된 삼국시대 이후로 보인다. 삼국시대에 시조묘(始祖廟)가 존재하였고, 신라의 경우 종묘제를 오묘제(五廟制)로 운영하고 있었던 점에서 신주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라시대에는 오늘날 문묘에 모셔진 성현의 위패 대신에 당으로부터 들어온 문선왕과 10인의 철인(哲人), 72제자의 영정을 대학에 안치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아직 목주가 일반화된 것 같지는 않다.

고려시대에는 유교와 불교, 도교 등의 영향으로 종묘에서의 신주 이외에 소상이나, 영정 등이 신체로서 모셔졌다. 이 시기까지만 해도 신주는 중국에서와 같이 당나라의 『개원례』의 규정에 따라 천자나 제후의 격에 맞게 종묘에서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의 경우에는 종묘에 한해서 신주가 사용되었다. 경령전(景靈殿)이나 진전(眞殿) 등에서는 왕과 왕비의 영정을 모셨고, 귀족들은 자기 조상을 위해 조상의 산소 근처에 원찰(願刹)이나 원당(願堂)을 지어 조상의 영정을 모시고 제사를 지냈

다. 문묘에도 아직까지 위패가 아닌 소상이나 영정이 모셔져 있었고, 공신당에도 위패 대신에 공신들의 영정이 모셔져 있었다. 성종 2년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영정을 그려 모셨다는 기록이나, 죽은 나무의 모양이 어머니 형상과 비슷해 극진히 예를 다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렇듯 고려시대에는 유교와 불교, 도교 등의 영향으로 종묘에서의 신주 이외에 소상이나 영정 등이 신체로서 모셔졌다.



- ① 순흥화상(順興畵像) 『동국신속삼강행실』 1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고려 성종 2년에 구례현 사람 손순흥은 모친이 돌아가시자 영정을 그려 제사를 지내고, 살아계실 적과 같이 3일에 한번씩 묘소에 갔다고 한다.
- ② 윤문도형(潤文圖形) 『동국신속삼강행실』 1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복윤문은 부모상에 6년동안 여묘살이를 하였으며, 상이 끝나자 부모의 영정을 그려 아침 저녁으로 상식(上食)을 하였다고 한다.
- ③ 우명순효(友明純孝) 『동국신속삼강행실』 1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하우명은 모친이 돌아가시자 여묘살이를 하였으며, 3년상이 끝나자 영당을 지어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 ④ 광림목상(光廉木像) 『동국신속삼강행실』 1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고려 성종 2년에 평양 목단리에 사는 박광림은 모친이 돌아가신 지 7일 만에 갑자기 나무가 말라 죽었는데 그 형상이 모친과 비슷하여 방안에 모시고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 ⑤ 석주각목(釋珠刻木) 『동국신속삼강행실』 1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고려 문종 때 석주는 어려서 중이 되었는데, 나무로 부모의 형상을 만들어 아침 저녁으로 공양하였다고 한다.
- ⑥ 김한각목(金閑刻木) 『동국신속삼강행실』 1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김한은 여묘살이를 하면서 나무를 깎아 부모의 형상을 만들고 썩은 사이에 모시었다고 한다.

고려말부터 신주가 일반화된 『가례』의 수용으로 영당 및 위호를 대신해서 가묘를 세우고, 영정 대신에 신주를 모시도록 권장하였다. 태종 원년에 가묘 설립 및 신주 사용은 물론이고 신주가 없는 경우 지방(紙榜)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였고, 외방으로 나가는 수령이 적장자가 아니면 또한 주현의 사당에서 지방을 써서 행례(行禮)하도록 하였다. 지방은 임시방편적인 것으로, 『가례』 소주에는 “형이 제사를 지낼 때 동생은 집사로 참여하거나 혹은 물질로 돕는 것이 마땅하나,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형의 집에는 신주를 설치하지만, 동생은 신주를 세우지 못하니, 다만 제사 지낼 때만 즉시 신위를 설치하되, 지방으로 신위마다 표기하고 제사를 마치면 불살라 버린다”고 하였다.

또한 윤회봉사 관행 등으로 일일이 신주를 받들고 제사를 지낼 수 없으므로 대부분 지방이나 지표(紙標) 등으로 제사를 지냈다. 이문건의 『목재일기』에, 서울에서는 가묘에서 신주로 봉사하였지만, 유배지인 성주에서는 집에서 지방이나 지표를 써서 봉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점차 사당이 사라짐에 따라 점차 지방으로 신주를 대신하거나 요즘같이 사진으로 신주를 대신하여 조상에 대한 예를 행하였다. 조선총독부에서 제정한 「의례준칙」에도 신주와 지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 때만 하더라도 신주를 보통 가주(假主) 또는 지방이라 칭하고 폭 2,3촌, 길이 6,7촌 되는 백지에 제신(祭神)의 칭호신위(稱號神位)를 묵서하며, 제사 때마다 이를 작성한다고 하였다. 배우자는 항상 합사(合祀)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종이편에 ‘조고주신위(祖考主神位)’, ‘조비김씨신위(祖 金氏神位)’라 쓰게 하였다. 그리고 지방은 보통 독(一)에 넣어 내면에 붙이거나, 독이 없을 때에는 병풍 또는 토벽(土壁)에 붙여서 제사지내게 하고, 또한 사진(寫眞)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① 작주(作主)

신주의 제작은 『주자가례』 치장조에, 신주의 크기는 『가례도』에 그림과 함께 설명되어 있다. 오늘날의 신주는 정자(程子)가 만든 것으로, 시일월신(時日月辰)에 근거해서 크기와 높이를 정하였다. 즉 받침대(부)는 사방 4촌인데, 이는 1년의 4계절을 상징하며, 신주 몸의 높이는 12촌인데, 이는 12월을 상징하며, 너비가 30분인데, 이는 한달의 날수 30일을 상징하며, 두께는 12분인데, 이는 하루 12시간을 상징한다. 또한 신주의 형태도 천원지방(天圓地方)에 따라 상원하방(上圓下方)의 형태로 하였는데, 위가 둥근 것은 하늘을 상징하고, 아래가 모진 것은 땅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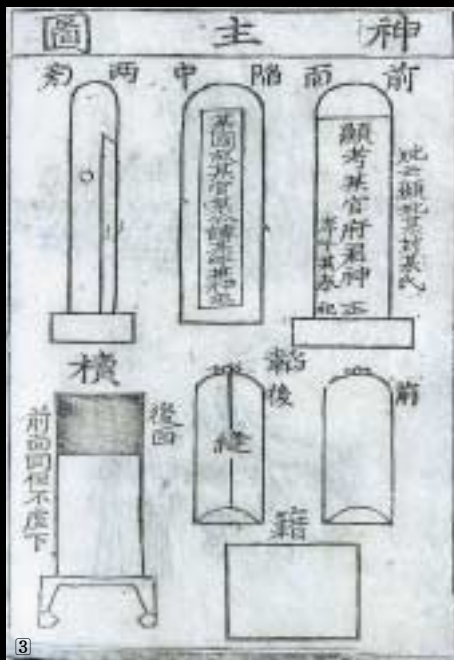
신주는 제주 후에 비로소 죽은 자를 대신하는 신체가 되고, 3년상이 지난 후에 사당이나 벽감 등에서 보통 4대, 약 100년 동안 모셔진다. 그래서 신주는 사람과 같이 평생을 같이 하는 것으로 여기었다. 이에 『백호통』에 “나무에는 처음과 끝이 있고, 사람과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에 대개 기록해서 후세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였다. 나

무가 죽으면 근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처음과 끝의 의의가 있다. 효자는 종묘에 들어가 비록 신주를 보더라도 또한 당연히 공경함을 다 해야 한다”고 하여 신주를 나무로 만든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백호통』에 “『논어』를 보면, 하우씨(夏禹氏)는 소나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소나무가 스스로 송동(/動)하기 때문이라 한다. 은나라 사람은 잣나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잣나무가 스스로 박촉(迫促)하기 때문이라 한다. 주나라 사람은 밤나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밤나무가 스스로 전율(戰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하여 하우씨는 소나무로, 은나라 사람은 잣나무로, 주나라 사람은 밤나무로 신주를 만들었다고 하며 그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상례 절차에 따라 우제 때에는 뽕나무로 우주를 만들고, 연제 때에는 밤나무로 연주를 만들어 바꾸었다고 한다.

그러나 『주자가례』에서는 『서의』에서 우주와 연주를 만드는 번거로움을 버리고 간편함을 좇아 밤나무로 한번 신주를 만들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주나라에서 밤나무를 사용한 것은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나무 중에 단단한 것을 취한 것이니, 지금 밤나무를 사용하는 것은 주나라의 제도를 따른 것이다. 만약 사방에 밤나무가 없으면 다만 단단한 나무를 쓰면 될 것이다”는 정자의 설을 따랐다.

이에 안정복도 『순암집』에서 중국은 지역이 넓어 토산물이 많이 다르므로 더러 밤나무가 없는 고장이 있기 때문에 단단한 나무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이지 다른 의의는 없으며, 후세에 와서 으레 주나라의 예를 따랐기 때문에 밤나무로 신주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하나라에서는 소나무를 사용하고 은나라에서는 잣나무를 사용하였던 것은 그 지방의 소유에 따라 사용한 것이라 하였다.



- ① 신주식(神主式) 『주자가례』
- ② 신주전도(神主全圖) 『사례편람』
- ③ 신주도(神主圖) 『사례집요』
- ④ 신주전도(神主全圖) 『사의』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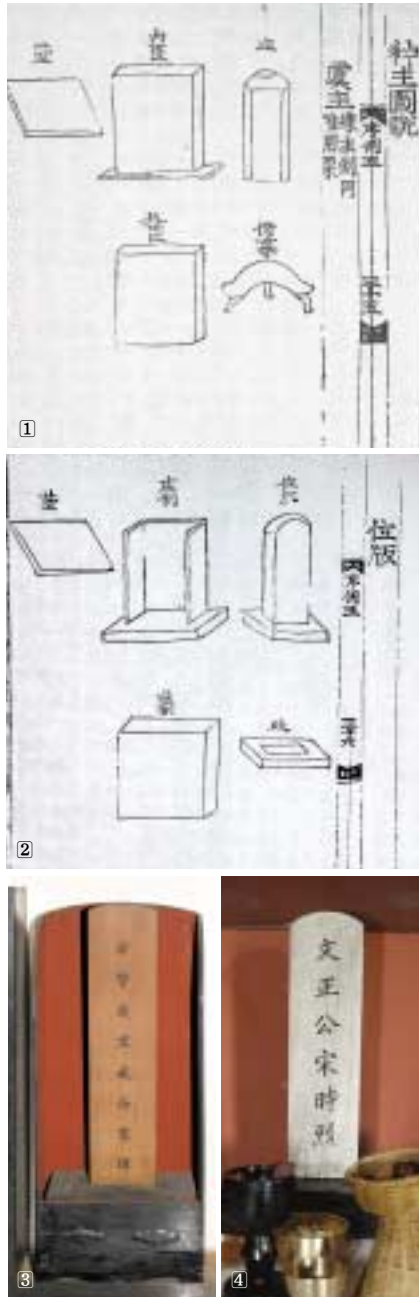
③

- ① 감실장 안에 신주갑(簞)으로 모셔진 신주 | 안동 학봉종가
 ② 감실장 안의 신주 | 상주 우복종가
 ③ 규(窺; 혼구멍) | 예천 초간종가

신주는 제판(祭板), 사판(祠版), 패자(牌子), 위판(位版) 등의 위패와 형태는 비슷하나 구조는 다르다. 신주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위패 등은 중국 고전에서 이른바 『주자가례』의 신주를 대신했던 목주(木主)로서 몸체와 받침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조오례의』에도 신주인 우주와 별개로 위판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부사서인의 신주는 『주자가례』에서 언급한 신주로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대부사서인의 신주와 위판은 재료와 높이가 같으나, 신주가 전신과 후신을 합하여 받침대에 끼이게 하고, 양 측면에 함중과 연결되는 구멍이 있는 반면에, 위패는 한 몸으로 받침대에 끼우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이 때의 위패는 사당에 모신 조상신 이외에 종묘에 모신 배향공신(配享功臣)이나 문묘(文廟), 서원(書院) 등에 모신 유자들의 신위를 나타낼 때 사용되거나, 국가제사의 하나인 풍운뢰우신(風雲雷雨神) 등 여러 제사 대상의 신위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다. 이것이 후대로 내려오면 위패나 사판이 점차 신주로 불리거나, 반대로 신주가 위패로 혼용해서 불리우게 된 것이다.



① 신주도설(神主圖說) 『국조오례의』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② 위판(位版) 『국조오례의』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③ 우찬성 문성공 이이 위패 종묘 공신당
 ④ 문정공 송시열 위패 강릉향교 서무

② 제주(題主)

제주는 하관 후 후토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지식을 묻은 이후에 신주에 사자(死者)의 이름을 쓰는 것을 말한다. 즉 신주에 혼령을 불러 넣는 것이다. 그 제주 과정은 『사례편람』에 “집사자는 탁자를 영좌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놓고 벼루와 붓과 먹을 놓는다. 탁자의 맞은 편에 세숫대야와 수건을 같이 놓는다. 주인이 그 앞에 서서 북향한다. 축은 손을 씻고 신주를 꺼내 탁자 위에 얹혀 놓고 글을 잘 쓰는 사람에게 손을 씻고 서향하여 서서 먼저 함중에 글을 쓰게 한다. 이어 분면을 쓰는데, 쓰는 일이 끝나면 축이 받들어 영좌에 놓고 혼백을 상자 안에 넣어 그 뒤에 놓는다. 향을 피우고 술을 따른 다음에 축판을 들고 주인의 오른쪽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읽는다. 축문을 다 읽으면 그것을 품고 일어나서 자리로 돌아간다. 주인은 재배하고 곡으로 슬픔을 다하고서 그친다”고 하였다.

제주 과정에서 신주의 함중과 분면에 제사하도록 되어 있다. 먼저 후신의 함중에는 작위와 성명을 쓴다. 『주자가례』에는 아버지면 ‘송고모관모공휘모자모제기신주(宋故某官某公諱某字某第幾神主)’라 하고, 어머니면 ‘송고모봉모씨휘모자모제기신주(宋故某封某氏諱某字某第幾神主)’라 썼다. 『국조오례의』 및 『사례편람』 등의 예서에는 아버지의 경우 함중에 ‘고모관모공휘모자모신주(故某官某公諱某字某神主)’라 하여 『주자가례』에 있는 ‘제기(第幾)’ 2자는 우리 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생략하였다. 어머니의 경우에도 ‘고모봉모씨휘신주(故某封某氏諱神主)’라 하여 본래 ‘자모제기(字某第幾)’ 4자가 있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생략하였다. 새로운 신주가 들어오거나 추증의 경우 고쳐서 다시 쓰는데, 함중의 내용은 고치지 않는다.

다음으로 전신의 분면에는 속칭(屬稱)을 쓴다. 『주자가례』에 속(屬)은 고증조고(高曾祖考)를 말하고, 칭(稱)은 관(官) 혹은 호(號)를 말하는데, 처사(處士), 수재(秀才), 기랑(幾郎), 기옹(幾翁)이 이에 해당한다. 즉 아버지면 ‘황고모관봉시부군신주(皇考某官封諡府君神主)’라 하고, 어머니면 ‘황비모봉모씨신주(皇 某封某氏神主)’라 하며, 관직이나 봉호가 없으면 곧 생시에 부르던 것으로 호칭을 삼았다. 그러나 분면의 황자(皇字)의 경우는 - 고례(古禮) 및 『가례』 구본(舊本)에는 고조고위에 황자를 붙였으나 - 원나라 대덕(大德) 연간에 성부(省府)에서 황자 사용을 금지하여 황자 대신에 현자(顯字)를 썼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현고모관봉시부군신주(顯考某官封諡府君神主)’, 어머니는 ‘현비모봉모씨신주(顯 某封某氏神主)’라 쓰고, 『국조오례의』 및 『가례집람』 등에도 현자를 썼다.



그러나 조선후기 효종대에 반청존명(反淸尊明)의 의리론이 강화되면서 송시열(宋時烈)은 현(顯)자의 사용이 호원지제(胡元之制)에서 나온 것이기에 신주에 쓸 수 없으니, 단지 속칭만을 쓰기를 주장하여 이를 금하는 조령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원진(韓元震)의 『남당집(南塘集)』에는 현자라는 말이 세속에 널리 쓰여졌고, 또한 조고(祖考)를 존칭하는 말로서 의리에 해로울 것이 없으며, 황고·현고의 칭호가 본래 주제(周制)에서 나온 것이고, 주자가 선조의 축문에 ‘유아현조(惟我顯祖)’라고 썼다고 하여 계속 현자를 사용하게 되었다.

관직명 표기에 있어서도 중국에서는 실직(實職)을 먼저 쓰고 증직(贈職)을 나중에 쓰는데 반해, 우리 나라에서는 증직을 먼저 쓰고 실직을 나중에 쓰기도 하였다. 그리고 관직이 없는 사람의 경우 학생, 처사, 수재 등 각기 마땅한 바에 따라 쓰게 하였고, 부인의 경우는 9품직에 해당하는 유인(孺人)으로 쓰게 하였다. 한편 중국에서는 부인의 경우 성씨만을 쓰게 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이 이씨 성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고,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김씨 성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주이씨’, ‘경주김씨’ 등의 향관(鄉貫)을 써서 구별하기도 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분면 아래 왼쪽면에 ‘효자모봉사(孝子某奉祀)’라 쓴다. 원래 『가례도』에 ‘효원손모봉사(孝元孫某奉祀)’라고 썼다가 『가례의절』에서부터 ‘효원손’을 ‘효자’로 바꾸어 썼다. 그런데 그 아래 왼쪽이라는 것이 신주의 왼쪽인지, 아니면 제주하는 사람의 왼쪽인지 논의가 있었다. 『퇴계선생언행록』을 보면, 우성전이 일찍이 신도(神道)는 오른쪽을 존위로 여기며 왼쪽을 하위로 여기기 때문에 신주의 방제를 신주의 왼쪽에 쓰는 것이 옳다고 하자, 이황은 중앙을 존위로 하면 방제는 어느 쪽이든 굳이 상하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김이정이 동당이실(同堂異室)의 제도를 가지고 말하면 신주의 왼쪽에 쓰는 것은 아래에 있는 것이 되지만, 소목(昭穆)의 위차로 보면 도리어 위에 있는 것이 되어, 위니 아래니 논할 것은 없다고 하였다. 나아가 이황은 『이정전서(二程全書)』, 『문공가례도(文公家禮圖)』, 『대명회전(大明會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신주의 오른쪽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씨(何氏)의 『소학도(小學圖)』에는 신주의 왼쪽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만약 의리에 해로운 것이 없다면 옛날부터 전해오는 설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황의 주장에 의해 방제는 제주하는 사람의 방향에서 신주의 왼쪽에 쓰게 되었다.



① 상여 만장 행렬 | 창녕 이종민 유월장
② 제주 (함중)
③ 제주 후 신주를 맞추는 축

③ 봉안(奉安)

제주가 끝나면 『주자가례』에는 축관(祝官)이 신주를 받들어 영좌에 놓고 혼백을 상자 안에 넣어 그 뒤에 놓으며, 향을 피우고 술을 따른 다음에 축관을 들고 주인의 오른쪽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읽으며, 그것을 마치면 그것을 품고 일어나서 자리로 돌아간다.

그런데 『국조오례의』에는 제주전을 올린다. 즉 “제주가 끝나면 축이 받들어서 영좌에 두고 혼백을 상자 안에 두어서 그 뒤에 두고 전을 베푸는데, 찬의 종류는 광중에 임해서 올리는 전과 같다. 축관은 영좌의 왼편에 놓는다. 축이 손을 씻고 향이 놓여 있는 책상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꿇어 앉아서 세 번 향을 피우고 술을 떠서 책상 위에 올린다. (연속해서 3잔을 올린다.) 앉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주인의 오른쪽에 꿇어 앉아서 축문을 읽는다. 끝나면 가지고 일어나서 자리로 돌아간다. 주인이 두 번 절하고 슬픔을 다하여 곡하고 그친다”고 하였다.

비록 『주자가례』에는 제주전 규정이 없었으나, 『국조오례의』에 의해 제주전이 규정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대례(大禮)로 여기고 제주전을 올리기도 하였다.

제주 및 제주전 이후에는 신주와 혼백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 우제를 지내며, 삼우제 후에 혼백은 묘소에 묻고 신주는 사당에 부제한다. 신주는 3년상이 끝날 때까지 상청의 영좌에 모셨다가 담제 후에 길제(吉祭)를 지내고 사당에 모신다.



① 제주전(題主奠) | 창녕 이종민 유월장 ② 반혼(返魂)
③ 우제상(虞祭床) ④ 혼백 매안

④ 길제(吉祭)와 조천(醺)

신주는 담제(醢祭 : 대상 다음다음 달에 지내는 제사) 후 길제를 지낸 후에 사당에 모셔진다. 새로운 신주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4대친을 벗어난 5대 조상의 신주를 사당에서 물리고, 정식으로 새로운 신주를 사당에 모시는 절차이다.

길제는 담제를 지낸 다음달에 지내는데, 보통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정해서 지내며, 길제를 지낼 때 신위를 합하여 지낸다. 만약 담제가 사시제의 달을 만나게 되면 바로 이달에 길제를 지내되, 고와 비는 신위를 따로 하고, 축문과 축판도 달리하며, 길제를 지낸 후에 신주독을 합한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사당에 들어가셨다면, 어머니 상이 끝난 뒤에는 길제에 채천하는 절차가 없다.

길제를 지내기 위해 하루 전날 사당에 가서 개제(改題)를 고유(告由)하고, 신주를 내어 신주의 전면을 향을 넣어 끓인 물에 씻고 회분을 바른다. 이어 회분이 마른 후에는 고조위부터 세대 및 봉사의 이름을 고쳐 쓴다. 개제가 끝나면 다시 사당으로 신주를 모시며, 고조, 증조, 조위는 다시 사당에 모시게 됨을 아뢰고, 5대조는 채천하여 매안함을 고한다.

이어 정침의 서북벽에 5대조의 신위부터 차례대로 고조위, 증조위, 고위를 마련하되 남향하게 하고, 조위는 서쪽에, 조비는 동쪽에 마련하여 각각 한 교위와 탁자를 써서 합친다. 동벽에는 부모의 신위를 서향하여 마련하되, 고위는 북쪽에 비위는 남쪽에 마련한다.

다음날 아침에 주인 이하가 길복(吉服)으로 갈아 입고, 나물과 과일을 진설하며, 날이 밝으면 신주를 받들고 자리로 나아간다. 제사상은 시제와 같은데, 제사 절차도 참신(參神), 강신(降神), 진찬(進饌), 초헌, 아헌, 종헌, 유식(侑食), 합문(闔門), 계문(啓門), 수조(受 訖), 사신(辭神) 순으로 시제와 같이 행해진다. 다만 초헌에 먼저 5대조 신위 앞에 나아가 술잔을 올리고 축문을 읽으며 차례로 아버지 신위 앞까지 나아가 앞과 같이 행한다.

그리고 주부는 이날 만큼은 화관에 활옷을 입고 아헌을 행한다.

의식이 끝나면 신주를 받들어 사당에 간다. 친숙이 다한 신주를 받들어 곁방에 모시고, 고조 이하의 신주를 사당으로 받들어 차례로 모신다. 고비 중에 먼저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이에 이르러 신주독에 합하여 봉안하는데, 모두 모신 뒤에는 발을 내리고 문을 닫고 물러난다. 그리고 제사상의 남은 음식을 물리어 음복을 한다.

그 다음에는 5대조의 신주를 받들어 묘소 곁에 묻는다. 채천한 신주를 당사자의 묘소 오른쪽에 묻는데, 먼저 구덩이를 판 후에 목갑을 먼저 구덩이 속에 안치한 다음에 신주독을 그 목갑 속에 안치한다. 자손들이 모두 사신 제배를 한 다음에 목갑의 뚜껑을 닫고 흙을 덮어 단단히 다진 뒤에 때를 입힌다.

영덕 갈암종가의 길제



- ① 출주고사 ② 출주
- ③ 신주 분면 지우기 ④ 함중(陷中)과 분면(粉面)
- ⑤ 개제 ⑥ 개제 후 재배
- ⑦ 길제 초헌 ⑧ 독축
- ⑨ 독축 ⑩ 길제 아헌
- ⑪ 매안할 5대조 신주 ⑫ 매안할 신주싸기
- ⑬ 매안 ⑭ 매안한 5대조의 묘소

만약 친족 중에 친속관계가 다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최장방으로 옮겨서 제사를 주관하게 한다. 이 때 신주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신주를 고쳐 쓰되, 방제(旁題)에는 ‘효(孝)’라고 쓰지 않는다.

주독

사당 안에 신주를 모셔두는 곳이 독(-), 또는 주독(主-)이다. 독은 독좌(-座)와 독개(-蓋)로 구성되는데, 이것은 흑칠(黑漆)을 한다. 독좌는 사각의 다리 모양을 한 받침대(趺) 위에 앞 면이 없는 3편으로 둘러쌓인 것으로, 그 안에 신주를 놓는다. 독개는 4면과 위를 막고 아래가 없는 상자로 독좌를 덮는다.

그런데 『가례도』에는 신주전도와 아울러 독도자식(-韜藉式) 아래에 좌식(坐式)과 개식(蓋式), 그리고 독식을 함께 그려 놓았다. 반면에 『가례의절(家禮儀節)』 및 『삼재도회(三才圖會)』에는 신주도에 좌개식은 생략하고 양창독만 독식으로 제시하였다. 좌식과 개식도 주독의 일종이고, 양창독은 주독의 일종인데, 둘다 『가례도』에 그림으로 제시함으로써 주독을 사용하는데 혼란이 생기게 된 것이다.

즉 『가례도』의 해석 여하에 따라 좌개 또는 양창독 한가지만 사용하거나, 신주를 좌식에 안치하고 다시 양창독에 보관하는 경우에까지 이른 것이다. 또한 『국조오례의』에도 『가례도』에 따라 좌식, 개식, 독식(양창)을 그려놓음으로써 김장생이 『가례집람』에 “좌식(坐式)과 양창독의 그림이 『가례도』 권수(卷首)에 있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은 둘다 사용한다든지, 좌식(坐式)만 사용한다든지, 양창만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① 독식(-式) 『가례언해』 |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② 독도(-韜) 『가례언해』 |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③ 독식(-式) 『국조오례의』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가례원류』를 보면, 성혼도 『가례도』에 좌식의 구분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의 신주독이고, 양창독은 속칭 장(槨)이라 하였다. 『주자가례』에는 기제(忌祭)에 하나의 신위를 모시는데, 좌식은 각각 하나의 신주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각기 좌식을 설치한다면 장을 만들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식도 신주를 좌식에 안치하였다가 다시 양창독에 보관하는 것은 귀중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선인들이 이미 사용하던 독을 일시에 철거하는 것은 미안한 일이라고 하였다.

이에 김장생은 “옛날에는 신주를 좌식에 두어 비단으로 만든 도로 덮었고, 개를 더하여 독에 두었는데, 오늘날에는 간편함을 따라 좌식과 양창독을 둘다 사용하지 않고 단지 좌개만을 도독이라 하여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말년에 남옹(南翁)의 가례본(家禮本)을 보고서 비로소 좌식(坐式)이 사마공가(司馬公家)에서 사용한 것이고, 양창(兩窓)은 한위공가(韓魏公家)에서 사용한 것을 알게 되었으며, 『주자가례』에서 이른바 독이란 것은 단지 사마씨의 제도를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그는 『가례집람』 도설과 『상례비요』 등에 양창독의 그림은 생략하고 독좌식, 독개식 그림을 그려 넣었다.

『가례증해』를 보면, 송시열은 “좌(坐)는 그 밑바닥에 신주를 놓는 것이고, 개(蓋)는 위로부터 덮어놓는 것이다. 좌와 개를 합한 것이 독이다. 양창 또한 독이다”라고 하여, 좌식만을 독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좌개를 독으로 볼 경우, 이것은 신주가 독에 들어갔다가 다시 독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가 있는 후에도 『사례편람』 및 『가례원류』에는 여전히 『독좌도』, 『독개도』 및 『창독도』를 함께 제시하였다.



① 독좌식(坐式) 독개식(蓋式) 『가례집람』
 ② 창독도(窓圖) 『사례편람』
 ③ 쌍창독(雙窓) 『사의』

한편 『상례보편』에는 『국조오례의』에 제시된 양창독은 생략하고 『독좌』 및 『개』 그림만 제시하였고, 『가례증해』에도 『독좌도』, 『독개도』만 제시하였다. 『사례집요』에는 개좌식의 독을 옆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독은 점차 사마광가에서 사용한 좌식과 개식으로 사용되게 되었지만, 여전히 가가례와 『사례편람』의 영향 등으로 좌식에 신주를 안치하고 다시 좌식을 양창독 안에 모시는 경우도 병행되었다. 이에 양창독은 신주를 보관하는 주독의 역할 이외에 주독을 보관하는 감실(龕室)의 역할도 겸하게 되었다.



①



③



②

- ① 독(一) 『사례집요』
 ② 감실장 안의 주독 | 상주 우복증가
 ③ 감실장 | 상주 우복증가

사당에 모셔진 신주는 4대에 걸쳐 매월 초하루와 보름, 명절 등에 차례를 지내며, 기제나 시제 등에는 출주하여 정침이나 청사에 모셔져 제사를 받고난 후에 다시 납주하여 사당에 모셔진다. 그러다가 새 신주가 사당에 들어와 5대가 되면 체천하여 최장방으로 옮겨지거나, 묘소에 묻히게 되어 묘제의 대상이 된다. 국가에 공이 있는 공신이나, 지방 유림 또는 문중의 추대를 받아 불천위가 된 경우에는 사당에 계속 모셔지거나, 별묘에 모셔지기도 한다.



① 고산 사당 내부 | 해남 고산종가
② 사당 감실장

제 3절

제물 진설

제사음식은 '천생지양지물(天生地養之物)'을 정성껏 마련한다. 제사의 규범이 된 『주자가례』 진설도에는 제찬(祭饌)으로 과일 6품, 소채·포해 각 3품, 어·육·만두·떡 각 1반, 간적(肝炙) 1곳, 육적 2곳이 규정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주자가례』를 수용하였지만, 여기에서의 제사음식이 중국의 생활 방식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게 재해석하거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용하여 음식을 준비하였다. 제사절차에 따른 제사음식을 『주자가례』, 『국조오례의』, 『격몽요결』, 『사례편람』 진설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진설할 때

① 과일(果)

과일은 먼저 1열에 놓는다. 『주자가례』를 따르는 『상례비요』 및 『사례편람』에 과일은 지산(地産)이라 하여 짝수로 놓는다. 즉 기본적으로 6품(品)으로 하는데, 형편에 따라 4품, 또는 2품으로 한다. 그런데 『국조오례의』와 『격몽요결』 등 조선초기의 예서에는 5품 등 홀수로 놓았다

진설도에는 '果(과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과일 이름은 기재하지 않았다. 다만 목과(木果)로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놓는다고 하였다. 주요 과일로는 대추, 밤, 감, 배를 놓는데, 이밖에 시과(時果 : 철에 나는 사과, 포도, 참외, 수박 등)를 놓는다. 대추, 밤, 감(곶감), 배는 사시사철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과일로서, 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건과(乾果)이다.

한편 조과(造果 ; 약과, 다식, 산자)는 기름에 튀긴 음식으로, 밀가루 음식(麵食)에 해당하지만, 지방에 따라서는 소채와 함께 1, 2열에 올려놓거나, 해산물인 꼬막은 해과(海果)로서 놓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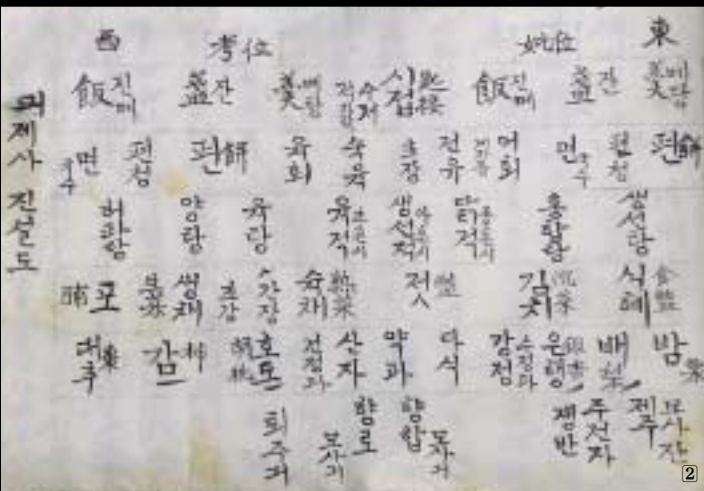
반면에 과일 중에 복숭아는 공자가 “복숭아는 최하위 과일이다”고 하여 쓰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복숭아가 신을 쫓는다고 하여 쓰지 않는다. 그러나 복숭아는 중국에서는 신선이 먹는 과일로 여겼으며, 건도(乾桃)로서 제사상에 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복숭아의 육질이 연하여 쉽게 상하기 때문에 제사상에 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진설도에 구체적으로 과일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해당 산지에서 나는 과일을 중심으로 쓰되, 사시사철 준비할 수 있는 건과로서 올리며, 만약 과일을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과나 수정과, 정과 등으로 대체 하도록 한 조상의 배려로 보인다.

과일은 대체적으로 조율이시(棗栗梨柿 ; 또는 조율시이) 또는 홍동백서(紅東白西)로 놓는다. 조율이시는 대체적으로 서쪽에서부터 대추, 밤 순으로 놓으며, 홍동백서는 음양오행에 따라 붉은 색의 대추와 감은 동쪽에, 흰색의 밤과 배는 서쪽에



①



②



③

① 출주전의 과일 진설

② 진설도 ! 대전 동춘당종가에서는 과일을 홍등백서로 하되, 서쪽에는 대추, 감, 동쪽에는 배, 밤을 놓고, 그 사이에 산자, 약과, 다식 등의 조과를 놓는다.

③ 장성 하서종가의 해과(海果) ! 바다 과일로써 꼬막을 놓는다.

놓는 것을 말한다. 진설도에는 구체적인 과일을 놓는 순서를 적어놓지 않았다. 다만 한주 이진상의 『사례집요』에는 서쪽을 위로 하여 대추, 밤, 감, 배 순으로 놓고 시과(時果)를 놓는다고 하였고, 『의례』 사우례(士虞禮)에는 대추와 밤을 놓는데, 대추가 아름답기(맛이 있기; 美) 때문에 서쪽에 놓는다고 하였다.

② 소채(蔬菜)

소채는 침채(沈菜; 김치), 숙채(熟菜; 나물), 초채(醋菜) 등을 말하는데, 2열에 놓는다. 침채는 김치로서 파, 마늘, 고추 등의 냄새나는 양념을 넣지 않는다. 숙채는 나물로서 도라지, 고사리, 배추 등을 쓰는데, 3색 또는 2색을 준비한다. 초채는 무를 식초에 절인 것으로, 『격몽요결』에는 초접 대신에 올린다.

③ 포해(脯, 魚)

포해는 소채와 함께 2열에 놓는다. 포는 육포(肉脯), 건어(乾魚), 건치(乾雉), 문어(文魚), 전복(全鰓) 등을 말하는데, 『주자가례』에는 서쪽에 놓는다. 『국조오례의』에서는 동쪽에 놓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퇴계중가에서는 가운데에 놓는다. 한편 포 대신에 자반(생선)을 놓거나(율곡), 자반 위에 포를 놓기도 한다(명재).

해는 염해(魚)와 식해(食 魚)를 말하는데, 『상례비요』 및 『사례편람』에는 동쪽에 놓는다. 식해는 원래 중국의 육장(肉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생선을 소금에 절인, 일종의 젓갈을 말한다.

『국조오례의』 및 『점암선생문집』에는 식해를 서쪽에 놓는다. 반면에 『농암선생문집』에는 식해 대신에 식해(食醢)를 서쪽에 놓았는데, 식해는 우리가 즐겨마시는 음료수를 말한다. 식해와 식해는 발음과 글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예서에서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진설도에는 실제로 ‘식해’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식해를 놓기도 하며, 상주 우복중가와 같이 식해로서 소금에 절인 생선을 놓기도 한다.

④ 초장(醋 · 醬)

초는 반찬의 하나로, 『주자가례』에는 4열 시접의 좌측에 놓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초보다는 장을 주식(主食)으로 하기 때문에, 율곡 이이는 식초 대신에 초채를 국의 우측에 놓고, 청장(淸醬)을 2열 중앙에 놓았다.

이에 우암 송시열은 “『주자가례』에서는 초를, 『격몽요결』에서는 장을, 『상례비요』에서는 둘 다 놓았다. 『격몽요결』, 『상례비요』 등에 초를 쓴 것은 당시의 풍속을 따른 것이니, 장과 중복되는 혐의가 있다면, 초를 장에 넣어 1기로 쓰는 것도 괜찮다”고 하였다. 즉 초간장을 놓아도 된다고 한 것이다. 『사례편람』에는 『상례비요』에 따라 청장과 초접을 놓았는데, 청장은 채소 옆에 놓고, 초는 고기와 생선회를 놓을 때 옆에 놓는다고 하였다.



예천 초간종가의 진설 I 대구포 위에 육포를 얹은 포를 『국조오례의』와 같이 동쪽에 놓았다

2) 진찬할 때

① 어육(魚肉)

고기와 생선은 3열에 놓는다. 고기(肉)는 중국을 중심으로 서북쪽(육지)에서 나기 때문에 오른편(서쪽)에 놓고, 생선(魚)은 동남쪽(바다)에서 나기 때문에 왼편(서쪽)에 놓는다고 한다. 『의례』 「소뢰례(小牢禮)」에는 생선의 머리를 오른쪽에 놓고 배를 신위를 향하게 놓는데, 귀신에게 배를 보이게 하는 것은 배에 기가 모이기 때문이고, 산 사람에게 지느러미가 보이게 하는 것은 지느러미는 맛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제사상에 어육을 놓는데, 이를 날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익힌 것으로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율곡 이이는 생선 생물로, 사계 김장생은 탕(湯)으로, 우암 송시열은 생선회와 육회(우암)로 해석하였는데, 육회로는 간랍(肝納)과 처념[千葉]을 썼다.

고기 가운데 개고기와 생선 가운데 잉어는 제사상에 쓰지 않는다. 개는 집에서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차마 제사음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개를 희생의 하나로 썼기 때문에 일부 집안에서 개를 제사상에 올리기도 하였다고 한다.

잉어는 공자 아들의 이름이 리(鯉; 잉어)이고, 당나라 황제의 성이 이(李)씨임으로 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휘(諱)하여 쓰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생선중에 ‘치’로 끝나는 갈치, 날치, 꿈치 등 등이 푸른 생선은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안동 지역에서는 소금에 절인 고등어, 방어, 상어 등을 쓴다.

② 떡과 국수

떡(米食)과 국수(麵食)는 3열에 놓는다. 떡은 미식으로 동쪽에 놓고, 국수(또는 만두)는 서쪽에 놓는다.

떡은 인절미 내지는 시루떡을 7첩(疊) 또는 5첩으로 괴는데, 지나치게 높게 괴는(高排) 것은 금하였다. 하지만 11첩 내지는 최고 21첩까지 본편으로 괴며, 그 위에 청절편, 작과편 등을 웃기로 쌓아올리는 것으로 제사의 규모나 정성을 표시하기도 한다. 떡 옆에는 편칭을 놓는다.

국수는 면식으로, 이 대신에 만두를 놓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만두가 대표적인 면식의 하나이나, 우리 나라에서는 이 대신에 국수(濕麵; ㄱ水)을 놓았다.

③ 밥과 국(飯羹)

밥과 국은 4열에 놓는데, 생시와 반대로 밥은 오른쪽에, 국은 왼쪽에 놓는다. 퇴계 이황은 밥을 기준으로 하여 우진(右陳)이라 하여 ‘신도(神道)는 오른쪽을 높인다’고 하였다. 하지만 숟가락을 동쪽을 향하게 꽂는 것은 오랜 습속에 따른 것이라 하였다.

반면에 사계 김장생은 국을 기준으로 하여 우설(右設; 생시와 같이 밥을 왼쪽에, 국을 오른쪽에 놓는다)과 좌설(左設;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이 밥은 오른쪽에, 국은 왼쪽에 놓는다)로 설명하였다.

이밖에 탕(湯)은 『격몽요결』 진설도에는 3열에, 『겸암선생문집』 진설도에는 4열에 놓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탕에 어육을 쓰면 국에는 채소만을 쓰며, 탕에 어육을 쓰지 않으면 국에는 고기만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①



②

- ① 봉화 총재증가의 떡 | 불천위 제사에 본편으로 시루떡 대신에 동곳떡(가래떡)을 쌓아올리고, 그 위에 청절편, 밀비지, 송기떡, 경단, 속단자, 부편, 작과편, 전, 산심, 조약, 깨구리 등으로 장식을 한다.
 ② 대전 동춘당증가의 떡 | 떡 옆에 편청(조청)을 놓는다.

3) 헌작할 때

① 술(酒)

술은 청주(淸酒)를 주로 쓰는데 소주(燒酒)도 쓴다. 소주는 원나라 때 들어온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문소전(文昭殿)에서 여름에 소주를 사용하였다. 율곡 이이는 “상중(喪中) 조석제(朝夕祭)에 여름에는 청주의 맛이 변하기 때문에 소주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하였으며, “조상이 생전에 술을 못 마셨다면 단술(醴)로 대신해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② 적(炙)

적(炙)은 간적(肝炙)과 육적(肉炙)을 말하는데, 3열 중앙에 놓는다. 중국에서는 술을 마실 때마다 구운 고기(炙)를 먹었는데, 이 때문에 적을 올릴 때(進炙)마다 적에 소금을 가하거나, 적의 우측에 놓기도 한다. 『주자가례』에는 초헌에 간적을, 아헌, 종헌에 육적을 올리는데, 간적 대신에 육적(소고기)을 올리고, 아헌과 종헌에는 어적(승어)과 계적(닭, 꿩)을 올리기도 하며, 진찬에 생선, 소고기, 닭고기 순으로 쌓아올린 도적(都炙)을 올리기도 한다.

4) 진다(進茶)할 때

차는 합문(闔門) 이후에 국을 내리고 올린다. 중국에서는 차를 많이 마셨기 때문에 『헌다』, 『진다』라는 절차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차가 귀하었기 때문에 차 대신에 물을 쓰며, 승녕(熟水)의 의미로서 손가락으로 밥을 세 번 퍼서 물에 맡기도 했다.



①



②



③

- ① 장성 하서증가의 어적! 생선 위에 낙지를 올린 어적을 놓는다.
 ② 안동 서애증가의 도적! 생선, 쇠고기, 문어, 닭고기 순으로 도적을 쌓고 청지를 붙이며, 진찬 때 놓는다.
 ③ 대전 동춘당증가의 육적과 소금! 육적 위에 소금을 올려놓는다.

제 4절

집안제사의 종류와 관행

1. 기제

1) 기제의 정의

기제는 기일제사의 약칭으로, 기일 즉, 고인이 돌아가신 날에 해마다 한번씩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기제를 지내는 대상은 고조(高祖)까지이다. 기일은 피눈물을 머금을 만큼 슬퍼서 다른 일에 미칠 수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평상시와 달리 술을 마시지 않으며, 고기를 먹지 않는다. 또한 음악을 듣지 않으며, 검은 두건에 흰 옷, 흰 띠를 두르고, 저녁에는 사랑채에서 잠을 잔다.

봉사 대수

『주자가례』에는 봉사 대수가 4대까지이나, 『경국대전』 및 『국조오례의』에는 신분별로 대수가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중기에 이르러 4대 봉사가 보편화 되면서,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4대 봉사를 하였다. 오늘날에는 「가정의례준칙」에 따라 2대 봉사를 장려하고 있으나, 관행적으로 4대 봉사 또는 3대 봉사를 하고 있다.

주관자

제사는 종가의 종손이 주관한다. 종손이 없을 때는 차자나 차손이 주관한다.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고인의 직계자손으로 하며 가까운 친척도 참석한다.

제사 시간

제사는 고인이 돌아가신 날 자정부터 준비하여 새벽 1시 이후나, 해 뜨기 이전에 지낸다. 전날 저녁부터 모여 제사 준비를 하였다가 자정이 지난 이후에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제사일을 돌아가신 전날로 잘못 알기도 한다. 그래서 돌아가신 전날을 입제일이라 하고, 돌아가신 날을 파제일이라 한다.

제사 시간은 예서(禮書)에 “다만 너무 빨리 해서도 안되고 너무 늦어도 안된다”고 하였다. 보통 여름철에는 오전 4시경, 겨울철에는 닭이 울 때 지낸다. 오늘날에는 돌아가신 날 자정 이후에 많이 지내기도 하지만, 핵가족화와 직장 출근, 교통사정을 고려하여 후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돌아가신 날 저녁에 지내기도 한다.

제사 장소

기제는 안채나 사랑채의 대청, 또는 제청에서 지낸다. 일반 기제는 대체로 안채의 대청에서 지내나, 불천위 등의 큰 제사에는 사랑채의 대청이나 별도의 제청에서 지낸다.

17세기 이후로 가부장사회가 강화되고 남녀의 구분이 엄격해지면서 외간 남자들의 안채 출입을 금하였다. 특히 불천위 제사의 경우 문인의 후손들이나 유생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불천위 사당이 있는 종가의 경우에 사당과 연계하여 사랑채를 확대하거나 별도의 제청을 두기도 하였다. 남자 중심으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예서 및 홀기에는 주부가 아헌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대부분 주부가 아헌을 하지 않는다.

경주 양동마을의 경주손씨종가에서는 예전에 사당 앞에 제청이 있어서 여기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현재 양민공의 불천위 제사는 사랑 대청(廳事)에서, 비위인 풍덕유씨의 제사는 안채 대청(正寢)에서 지내는데, 종부가 아헌을 하고 있다.

단설과 합설

『주자가례』 및 『사례편람』 등에는 그날 돌아가신 조상의 신주만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단설(單設)로 되어 있다. 도암 이재는 『사례편람』에 “기일은 상례가 끝난 뒤이니, 그 부모가 죽은 날을 당하여 마땅히 이날에 돌아가신 부모를 생각하여 그 신위에게만 제사를 지내야 하며, 다른 신위에게 덧붙여 미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것은 배위에게 야박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슬픔이 제사지낼 사람에게만 있기 때문이다”고 하여, 『주자가례』에 따라 단설로 제사 지낼 것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날 만큼은 곡을 한다.

퇴계 이황은 “기일에 합설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예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집에서는 일찍부터 합설을 하여 제사를 지냈는데, 내가 종자(宗子)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다. 내가 죽은 이후부터는 세속의 풍속(합설)을 따르지 말라”고 하여, 퇴계종가에서는 단설로 제사를 지낸다.

그러나 회재 이언적이 “『주자가례』에는 기일에 다만 한 신위만을 모신다고 하였고, 『정자제례』에는 기일에 부모를 짝하여 모신다고 하였다. 두 학자의 예가 다르지만, 아마도 한 신위만을 모시는 것은 예절에 옳은 것이고, 부모를 함께 모시는 것은 인정에 근본한 것이다”고 한 이후로, 정리상 한 분만 모시기가 미안하다 하여 한 상에 두 분을 모두 모시는 합설(合設)을 하거나, 각 상을 차려 모시는 각설(各設)을 하기도 한다.

2) 불천위 제사

불천위는 영원토록 사당에서 옮기지 않는 신위를 말한다. 원래 기제사는 4대에 한정하여 모시지만, 국가에 공훈이 있거나 학식이 뛰어난 학자는 영원토록 사당에서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이를 불천위(不遷位), 불천지위(不遷之位), 부조위(不位)라 하며, 이를 모시고 있는 사당을 부조묘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제사를 보통 불천위대제(不遷位大祭), 불천위기사(不遷位忌祀)라고 한다. 불천위는 종가나 묘소 등의 사당에 모시고 종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일반 4대 조상과 같이 설, 추석 등의 명절에는 사당에서 차례를 지내며, 기제 및 시제는 제청에서 제사를 지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묘사(墓祀)를 지내기도 한다. 사당에 모셔진 불천위의 칭호는 ‘시조(始祖)’라고 거론되기도 하였지만, 대개 ‘선조(先祖)’ 또는 ‘몇대조’로 호칭한다.

조선초기에는 사당을 중심으로 품계에 따른 제사 대상이 정해져 있었고, 대수가 지나면 묘소에 신주를 묻게 하였다. 『경국대전』 예전(禮典) 봉사조(奉祀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무관 6품 이상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의 3대를 제사하고, 7품 이하의 조부모, 부모 2대를 제사하고, 서인은 단지 죽은 부모만을 제사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불천위도 대수에 한정되어 『경국대전』에는 처음으로 공신이 된 자만은 제사할 자손의 대수가 다하여도 신주를 묻지 않고 별도로 한 개의 감실을 만든다고 하였고, 『국조오례의』에도 처음으로 공신이 된 자는 영원토록 사당에서 옮기지 않으니, 대수(3대) 이외에 별도로 1개의 감실을 세워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다.

원래 불천위는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공신이 된 자만을 불천위로 허락하였다. 그러나 조선중기에 들어서 『주자가례』의 보급에 따라 사대부에서 서인에 이르기까지 4대봉사가 일반화되면서 불천위를 모시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사계 김장생은 『의례문해』에서 “사당 안 4개의 감실 이외에 별도의 감실을 설치하여 5개의 감실을 만든다면 이것은 제후의 예이다. 우리 종가에 5대조는 불천위이기 때문에 4대조가 비록 대수가 다 하지는 않았지만, 별실(別室; 淨室)로 내어 모시고 있다”고 하여, 불천위를 모시고 있는 집안에서는 불천위 이외에 3대만을 모셔야 한다거나, 3대에 걸쳐 불천위가 나오는 경우에는 처음으로 불천위가 된 조상만을 사당에 모시고, 다음으로 불천위가 된 조상은 대수가 다하면 사당에서 옮겨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으로는 『주자가례』에 “대종가의 시조는 대수가 다하여도 그 신주를 묘소에 보관한다” 하여, 불천위는 별도로 묘소에 사당을 짓고 모시도록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는 『주자가례』의 취지에 맞추면서 국법의 공신을 우대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예를 들면 포은 정몽주의 경우, 묘소 아래에 이미 서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당을 세우는 것은 중복될 우려가 있으니, 종가에 사당을 세울 것이며, 익재 이제현의 경우는 영당(影堂)이 있으니, 신주와 영정을 함께 모시자고 한 것이 그것이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불천위를 포함해서 5대를 모시면 제후의 예라는 명분에서 탈

피하기 위해 종가의 사당 곁에 별묘를 세우거나, 아니면 묘소 아래에 사당을 세워 불천위를 모시려 하였다. 한편으로는 왕실의 사당인 종묘에서조차 5묘제이면서 불천위를 묘수(대수)에 포함하지 않은 것처럼, 사대부들도 불천위를 대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사당 안에 몇 개의 감실을 더 두거나, 별도로 사당을 세워 불천위를 모시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불천위에는 개국공신 등 공신 및 왕자, 부마(駙馬), 그리고 왕비의 부모 등이 포함된다. 국가에서는 역대 공신들에게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1등, 2등, 3등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 등급에 해당하는 공신호, 영정, 토지, 노비 등을 주고 그 자손들에게 음식을 주는 등 부조지전(不レ之典)을 베풀었다. 한편 종묘의 세실에 배향한 공신과 문묘에 배향된 유학자들은 선현들의 논의에서 자주 불천위로 상정되고 있었지만, 『경국대전』 등의 법전에는 근거할 만한 조문이 없었다. 이에 고종대에 이르러 비로소 『대전회통』에 공신의 신주는 비록 대수가 다 되었어도 묻지 않으며, 종묘와 문묘에 배향된 신하들은 모두 공덕이 있는 만큼 공신의 예우대로 모두 옮겨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일정한 규례로 삼기도 하였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불천위를 정한 것에 대해 특별히 국법으로 금하지도 않았다. 조선전기에는 『경국대전』에 의해 오직 공신에 대해서만 불천위를 허락하였는데, 조선중기에 이르러 사림이 지방 사회를 주도하면서 공신 이외에 충신, 절의(節義), 학행(學行) 등으로 뛰어난 자에 대해서는 각 지방 유생들의 상소가 있으면 이를 허락하고 권장하는 형편이었다.

특히 서원 및 사우(祠宇) 설립과 병행하여, 지방에서는 비록 문묘 배향 또는 종묘 배향공신 등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학행이나 덕행이 뛰어난 자를 추천하여 증직(贈職) 및 시호(諡號)를 요청하고, 아울러 부조지전이 내려지도록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에 국가로부터 부조지전의 명령이 내려지면 종가나 묘소 아래에 사당을 세우게 하고, 해당 관청에서 제수를 지급하고 치제문(致祭文)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 밖에 문중의 파시조로서 불천위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에 조정 중신간의 과당적 이해가 개입되어 불천위가 급격히 증가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불천위 결정은 국가나 유림, 문중에서 생존시 업적이나 지위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단순한 조상 숭배가 아닌 기념비적 내지 추도식의 성격을 갖는다. 더구나 불천위 제사가 국가에서 인정한 제사인 만큼 국가에서는 봉사손으로 하여금 불천위 제사를 이어가도록 관직을 수여하는 등 특별한 우대를 하였다. 제사는 종손이 주관하지만, 참여자가 문중의 성원만이 아니라 지방의 유림이나 유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불천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유대관계 및 문중 성원간의 단합과 동질감을 강화시켜 주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문중 안에 국가 또는 사회에서 인정하는 종묘배향공신 및 문묘배향자 등 불천위가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3) 기제 절차

조선시대에는 『주자가례』의 제사 내용이 사대부의 실천윤리로 수용되면서 각 지방 또는 문중에 따라 행례 방식이 다른 가가례(家家禮)가 형성되었다. 그것은 『주자

朱子家禮		國朝五禮儀		四禮便覽	
陳設		陳設		陳設	
出主	焚香 出主告辭 出主(正寢) 啓-	出主	啓- 出主(祠堂)	出主	焚香 出主告辭 出主(正寢/廳事) 啓-
參神	主人 以下 再拜	參神	主人 以下 再拜	參神	主人 以下 再拜
	焚香 斟酒 灌于茅上 再拜		焚香(三上香) 斟酒 灌于茅上		焚香(再拜) 斟酒 灌于茅上(盡傾) 再拜
進饌	魚·肉, 米·麵食, 羹·飯	進饌	飯·羹·麵·餅 ·魚·肉·炙·肝 插匙正箸	進饌	魚·肉, 米·麵食, 羹· 飯
初獻	斟酒 奠爵 祭之茅上 進炙肝 讀祝 再拜 徹酒 및 徹肝	初獻	斟酒 奠爵 讀祝	初獻	斟酒 奠爵 祭(三祭/少傾)之茅上 進炙肝(啓飯蓋) 讀祝 再拜 徹酒 및 徹肝
亞獻	斟酒 奠爵 祭之茅上 進炙肉 再拜 徹酒 및 徹肝	亞獻	斟酒 奠爵	亞獻	斟酒 奠爵 祭之茅上 進炙肉 再拜 徹酒 및 徹肝
終獻	斟酒 奠爵 祭之茅上 進炙肉 再拜	終獻	斟酒 奠爵	終獻	斟酒 奠爵 祭之茅上 進炙肉 再拜(不徹酒 및 徹肝)
侑食	添酌 插匙正箸 再拜			侑食	添酌 插匙正箸 再拜
闔門					(無門處 降簾 或屏)
啓門	進茶			啓門	(徹羹) 進茶(代以水) (下匕箸合飯蓋)
辭神	主人以下 再拜	辭神	主人以下 再拜		主人以下 再拜(焚祝文)
納主	合- 納主(祠堂)	納主	合- 納主(祠堂)	納主	合- 納主(祠堂)
撤		撤		撤	

가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고, 『주자가례』의 제사방식이 중국의 생활방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게 해석하거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용하여 제사를 지냈기 때문이다.

『주자가례』, 『국조오례의』, 『사례편람』의 기제 절차를 정리하면 앞의 표와 같다.

『주자가례』의 기제 절차는 기본적으로, 진설, 출주, 참신, 강신, 진찬, 초헌, 아헌, 중헌, 유식, 합문, 계문, 사신, 납주, 철찬이다. 그런데 이를 수용하였던 조선전기의 『국조오례의』는 『주자가례』와 기제 절차는 같으나, 내용상 많은 차이가 있다. 즉 순서는 『주자가례』를 따랐지만, 행례의 내용은 국가제사에 준하는 향사적 성격을 보여준다. 즉 헌관의 헌작 후 재배가 없으며, 진찬에 삼시정저를 하면서, 유식 및 합문과 계문의 절차가 생략되어 있다. 반면에 향사에 있는 전폐례, 음복수조, 망예례의 절차는 생략되어 있다.

반면에 『사례편람』은 거의 『주자가례』의 기제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구체적인 행례 절차를 포함시켰다. 즉, 강신의 분향후 재배, 초헌의 진적(進炙) 후 계반개(啓飯蓋), 중헌의 재배 후 불철주(不徹酒) 및 불철간(不徹肝), 계문의 철갱(徹羹), 하비저(下匕箸)와 합반개(合飯蓋), 사신 재배 후의 분축문(焚祝文)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주자가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사례편람』을 편찬할 당시의 우리 나라 유학자들이 우리 실정에 맞게 명시한 제례 내용을 반영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에 『사례편람』을 중심으로 기제 절차를 정리하면서 각 지역 종가의 불천위제 및 기제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여 관찰한 종가는 경기도 고양 율곡종가, 충청도 논산 사계종가, 의정공종가, 대전 동춘당종가, 청주 우암종가, 전라도 지역의 장성 하서종가, 영광 영월신씨종가, 해남 고산종가, 경상도 안동 퇴계종가, 학봉종가, 서애종가, 의성김씨종가, 농암종가, 봉화 충재종가, 경주 경주손씨종가, 상주 우복종가, 고령 점필재종가, 대구 한훤당종가, 예천 초간종가 등이다.

① 제사 준비

하루 전날 재계(齋戒)하고 제청에 신위를 마련할 준비를 한다. 형편에 따라 안채 또는 사랑 대청이나, 별도의 제청이나 사당에서 모시는데, 양장(仰帳)과 병풍을 치고 자리를 깔며, 교의, 제상, 향탁, 향로, 향합 등을 준비한다. 제청 등에 문이 없으면 발 또는 병풍 혹은 휘장 등을 준비해 둔다.

주인은 재계하는 제사 전날 자정 이후에 제사를 지낸다는 것을 고하는 참례(參禮)를 하거나, 묘소에 가서 봉심(奉審)을 하기도 한다



① 안동 서애종가의 참례 Ⅰ 제사 전날에 종손이 사당에서 가서 자정(子正) 이후에 제사를 지낸다는 것을 고하는 참례를 한다.
 ② 영광 영월신씨가의 봉심 Ⅰ 제사 전날에 묘소에 가서 봉심을 한다. 오늘이 기일임을 고하며, 묘소가 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①② 안동 학봉종가의 분정 I 분정을 하고서 분정판에 맞게 오린 한지에 현관, 축, 집례, 집사자의 이름을 써서 분정판에 붙이고, 안채 대청의 동편에 걸어둔다.

분정이 끝나면, 분정에 맞게 사당, 안채 및 사랑채 대청, 제청 등을 청소하고, 교의, 제상, 병풍, 제기 등을 제청에 옮겨 놓는다. 그리고 안채에서는 종부를 중심으로 집안 친척들이 모여 정성스럽게 제사음식을 준비한다. 불천위제사에 날고기를 쓰는 종가에서는 도적(都炙)을 쌓을 때 남자들이 하며, 떡을 쌓을 때에는 여자들이 한다.

② 진설(陳設)

다음날 새벽 아침(자정 이후)에 나물과 과일과 술과 제물을 차린다. 주인 이하는 집사자와 함께 제청에 나아가서 손을 씻고 신위전에 과일접시를 탁자 남쪽 끝에 놓는다. 나물과 포와 식혜는 서로 섞어 차례로 놓는다. 잔과 잔받침, 식초접시를 북쪽 끝에 놓되, 잔은 서쪽에, 접시는 동쪽에 놓고, 숟가락과 젓가락은 가운데에 놓는다.

현주 및 술병은 술병걸이에 놓되, 현주는 서쪽에 놓고, 화로에 숯을 피운다. 주부는 제물을 데워서 모두 뜨겁게 하여 합(盒)에 담아 동쪽 계단 밑에 있는 큰 상 위에 놓는다. 『사례편람』 등 예서에는 과일부터 진설을 하는데, 이 때에는 대체로 찬 음식 및 잔과 시접 등을 놓는다. 즉 기본적인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을 모시려는 것이다. 진설이 끝나면 조상을 모시기 위해 사당으로 가서 출주를 한다.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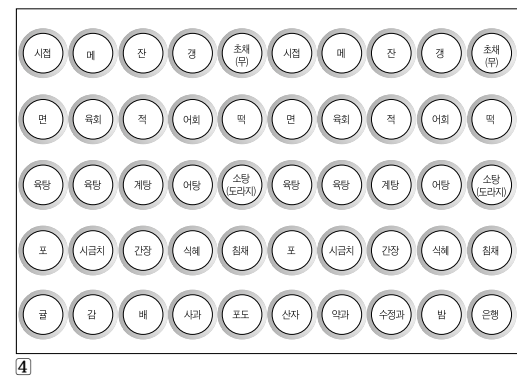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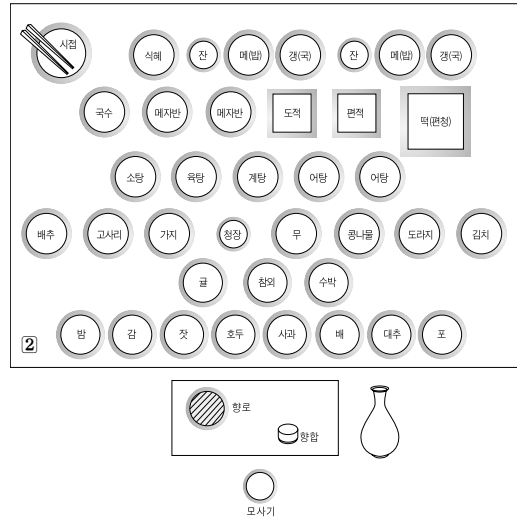


②

① 매위설찬지도(每位設饌之圖) | 『가례언해』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
② 시제진찬지도(時祭進饌之圖) | 『사례편람』



- ① 대부사서인시향(大夫士庶人時享) 『국조오례의』 I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② 청주 우암종가의 모사기와 현주 I 모사그릇에 깨끗한 모래를 넣고 그 위에 붉은 색을 묶은 띠를 세워놓았다. 그리고 현주의 의미로서 병에 정화수를 담아 놓고 한지로 덮어두었다.
- ③ 봉화 충재종가의 진설 I 『국조오례의』와 같이 초헌 잔, 아헌 잔, 종헌 잔 등 세 개의 술잔을 쓴다



- ① 2품 이상 진설도(二品以上陳設圖) 『농암선생문집』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② 안동 농암증가의 불천위 제사상
- ③ 매위설찬지도(每位設饌之圖) 『격몽요결』
- ④ 일산 율곡증가의 불천위 제사상



- ① 영광 영월신씨의 진설 ! 저녁 10시경부터 병풍 및 제상을 놓고서 제사음식을 모두 진설한다. 진설이 끝나면 제기마다 뚜껑을 덮고, 차일을 치며 불을 끄고서 닭이 우는 새벽 4시까지 기다린다. 제사 음식에 먼지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닫고 차일을 치는 것이다
- ② 예천 초간중가의 진설 ! 자정이 되면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집사자 순으로 손을 씻고서 밤, 곶감, 은행, 호두, 땅콩, 배, 대추, 메론, 감, 수박, 약과, 굴, 사과, 유과, 어포, 육포 순으로 진설하며, 이어 출주를 한다.



- ① **고양 율곡종가의 진설** I 과일부터 진설을 하는데, 『격몽요결』과 같이 5 과일(대추, 밤, 배, 감, 사과)을 놓는다. 과일 진설이 끝나면, '이제 제사를 시작한다'는 집례의 창홀(唱筭)에 따라 참례자들이 모두 신위전에 서 있다. 초헌관인 종손이 손을 씻은 후에 출주를 한다.
- ② **안동 퇴계종가의 진설** I 과일을 먼저 진설하고서 대구포를 놓는데, 퇴계종가에서는 포를 가운데에 놓는다(中脯). 포는 대개 서편에 놓는데, 예전에 집사들이 행례할 때 자주 도포 소매에 걸려 떨어지므로, 이후로 포를 가운데에 놓았다고 한다.



①



②



③

- ① 기제도(忌祭圖) 『겸암선생문집』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② 안동 겸암종가의 진설 | 과일부터 진설을 하며, 진설이 끝나면 출주를 한다
- ③ 안동 서애종가의 진설 | 진설을 하고서 출주를 한다.

앞과는 다르게 조상을 모신 후에 진설하는 경우도 있다. 고령 점필재종가, 대구 한원당종가에서는 먼저 사당에서 신주를 받들어 교의(交椅)에 모신 후에 진설을 한다. 즉 조상을 모신 후에 과일부터 진설을 하는 것이다.



- ① 고령 점필재종가의 진설 I 종손이 신주를 받들어 사랑 대청에 마련한 교의에 모시며, 주독 뚜껑과 신주갑을 벗긴다. 이어 바깥줄의 과일부터 진설을 하는데, 아현의 계적과 종현의 어적을 제외하고 메(밥), 갱(국), 그리고 초현의 육적까지 모두 올린다. 즉 진설과 진찬을 겸한 것이다.
- ② 대구 한원당종가의 진설 I 제청에 먼저 병풍, 교의, 제상, 향상, 향로, 향합 등을 준비하고서 출주를 한다. 사당에서 신주를 받들어 교의에 모시며, 주독 뚜껑과 신주갑을 벗긴다. 이어 안줄의 메(밥), 갱(국)부터 진설을 하는데, 적을 제외하고는 모두 올린다.

③ 출주(出主)와 계독

1차 진설이 끝나면 조상을 모시기 위해 사당으로 가서 신주를 모셔오는 것을 출주(出主)라고 한다. 날이 밝아오면 신주를 받들어 모시기 위해 주인 이하가 사당으로 간다. 주인이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향을 피우고 다음과 같이 출주고사(出主告辭)를 고한다.

『사례편람』 출주고사

今以
顯考學生府君遠諱之辰敢請
神主出就正寢恭伸追慕

지금 현고학생부군의 기일에
감히 청컨대 신주를 정침으로 모셔
공경히 추모하는 뜻을 펴고자 합니다.

출주고사가 끝나면, 감실에서 고위(考位) 신주를 신주독에 거두어 정침에 모신다. 주인은 주독을 열어 신주를 내어 교위 위에 모시고 신주갑(韜)을 벗긴다. 이를 계독(啓-*)이라 한다. 비위(位)의 경우는 주부가 받든다.

『주자가례』 및 『사례편람』에는 기일에 드는 한 신위만을 모시는데, 이를 단설(單設)이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이언적(李彦迪)의 『봉선잡의(奉先雜儀)』에 인정상 두 분을 모셔도 무방하다고 하여, 대부분 기일에 드는 사람의 배위(配位)까지도 함께 모시는데, 이를 합설(合設)이라고 한다. 합설에는 각 상을 차례 제사를 지내는 각설(各設)을 하기도 하며, 또는 한 상에 두 분을 함께 모시기도 한다.

그리고 출주고사를 읽을 때 감실문을 닫고 하며, 고사가 끝나면 감실문(또는 주독문)을 열고 신주를 내어 모시는데, 충재종가나 퇴계종가에서는 사당에 들어가 감실문(또는 주독문)을 열고 출주고사를 읽기도 한다.

단설



- ① 예전 초간종가의 출주 | 진설이 끝나면 사당에 가서 출주고사(出主告辭)를 읽고 기일에 드는 신주를 받들어 모셔온다.
② 안동 서애종가의 출주 | 종손이 사당 가운데에 가서 분향을 하고, 출주고사를 읽는다. 출주고사를 읽은 후에는 재배를 하며 감실문을 열고 신주를 받들어 대청으로 모셔온다. 이 때 참례자들이 읊을 한다.



봉화 총재종가의 출주 1 종손(종손이 연로하여 차종손이 대신하였다)과 측관, 촛대를 든 집사자 1명이 사당으로 들어가 신위 앞에서 재배를 한다. 감실문과 양창독 문을 열어놓고 아래와 같이 출주고사를 읽는다.

今以
顯先祖考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知經筵判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贈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令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諡忠
定公府君遠諱之辰敢請神主出就廳事恭伸追慕

합설



대전 동춘당종가의 출주 I 자정 12시 30분이 되면, 제상의 촛대에 촛불을 켜고 송씨별묘(宋氏別廟)로 향한다. 종가에는 두개의 사당이 있는데, 송씨별묘는 동춘당 송준길을 모시는 사당이고, 송씨가묘는 4대친을 모신 사당이다. 출주를 위해 대청 뒤의 문을 통해 송씨별묘로 가는데, 종손은 동쪽 계단으로 오르고 나머지 집사자는 서쪽 계단으로 오른다. 종손이 사당문을 열고 사당으로 들어가서 발을 걸어 올리고 장독보를 걸으며 장독(주독) 문을 연다. 종손 이하 모두 재배한다. 종손이 분향하고 재배한다. 종손이 출주고사를 읽는다. 이하 모두 엎드렸다가 독축이 끝나면 일어선다. 종손만 재배한다.



①②③ 영광 영월신씨의 출주 1새벽 4시에 일어나 초롱을 들고 안채 뒤쪽에 있는 사당으로 가서 분향을 하며 출주고사를 읽고 신주를 받들어 안채 대청의 교의에 모신다.
그리고 합설로 기제를 지내기 때문에 고조와 고조비를 모시며, 작은 할머니는 교위에 올리지 않고 다만 상아래에 별도의 메와 갹, 수저를 놓고 함께 제사를 지낸다. 주독 두경을 연 후(개독)에는 바로 모든 제기의 두경을 연다



상주 우복증가의 출주 I 진설 후에 출주를 하기 위해 종손 이하 모두 사당으로 간다. 종손은 사당에 가서 서문 앞에서 재배를 하고, 중문으로 들어가 촛불을 켜고 분향을 한다. 그리고 출주고사를 읽은 후에 종손만이 재배를 하고 양창독(兩窓-)에서 주독을 받들어 안채 대청으로 모셔온다.

今以

顯十五代祖考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世子貳師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弘文
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諡文莊公行正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弘文
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世子左賓客府君

顯十五代祖 贈貞敬夫人全義李氏

顯十五代祖 貞敬夫人眞城李氏遠諱之辰敢請神主出就正寢恭伸追慕



- ① 경주손씨종가의 출주 1 전설이 끝나면 종손 및 제집사가 출주를 위해 사당에 가서 재배를 한다. 종손은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사당 안 신위 앞에 이르러 감실문을 열지 않고 북향하여 무릎을 꿇는다. 축관도 무릎을 꿇고서 출주고사를 읽으며, 고사가 끝난 후에 신주를 받들고 대청으로 나간다.(고위는 사랑채 대청에서, 비위는 안채 대청에서 모신다. 예전에는 사당 앞에 제청이 있어서, 여기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 ② 안동 농암종가의 출주 1 안동댐 건설로 본택은 안동 옥정동에, 사당은 현재 올미재에 있어서, 제사를 위해 올미재 사당으로 와서 출주를 한다. 사당 안 서쪽에 모셔진 농암선생의 감실문을 열고서 부복하여 출주고사를 읽는다. 고사를 끝난 후에는 재배를 하고 미리 준비한 상자에 농암선생과 안동권씨의 신주를 받들고 승용차로 안동시 본택으로 간다.

今以
顯先祖考遠諱之辰敢請
顯先祖考崇政大夫行知中樞府事贈諡孝節公府君
顯先祖 貞夫人安東權氏 神主出就安東正寢
恭伸追慕



청주 우암증가의 출주 I 진설이 끝나면 출주를 위해 우암선생 신주가 모셔져 있는 사당방으로 간다. 먼저 영정 앞에 처친 양장을 걷고 참례(參禮)를 행한다. 종손이 분향을 하고 출주고사를 읽으며, 고사가 끝나면 화상(畫像) 친필 족자와 영정, 주독(대축이 모시고 간다)을 받들고 대청으로 나온다.

今以

先祖考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傳致仕奉朝賀贈大匡

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贈諡文正公

府君遠諱之辰敢請

先祖考先祖 神主出就廳事 恭伸追慕



今以
顯先祖考文成公府君遠諱之辰敢請
顯先祖考文成公府君
顯先祖 貞敬夫人盧氏神主出就廳事恭伸追慕

- ① 청주 우암종가의 계독 1대청 벽에 족자와 영정을 모시어 걸고, 주독을 열어 우암선생의 신주와 비위 신주를 교의에 모신다. 우암선생의 신주는 소종손이, 비위 신주는 소종부가 모시는데, 원래 종부가 하나, 종부가 연로하기 때문에 소종부가 대행한 것이다.
- ② ③ 일산 율곡종가의 출주 1과일 진설 후에 종손과 집사자가 향로와 향합을 받들고 신주가 모셔져 있는 서재로 간다. 종손은 감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서 분향을 하고 재배를 한다. 이어 대축이 출주고사를 읽으며, 고사가 끝난 후에는 종손만이 재배를 하고 감실문을 열어 주독을 내려 모신다. 대축(大祝)은 고위(考位) 신주를, 좌집사자는 비위(驢位) 신주를, 우집사자는 향로와 향합을 받들고 신위전의 교의에 고위는 왼쪽에, 비위는 오른쪽에 모신다. 그리고 주독 뚜껑과 신주갑(簞)을 벗겨 신주 좌우에 놓는다



고령 점필재증가의 출주 I 자정이 되면 제손들이 도포를 입고 사랑채 대청에 모인다. 이어 출주를 하기 위해 촛대를 든 집사자 뒤로 종손이 따르고, 제손들이 뒤를 이어 사당으로 간다. 종손이 사당에 이르러 사당문을 열고 들어가 감실장 문을 열고 서면 축이 종손의 좌측에 나와 서서 출주고사를 읽는다. 고사가 끝나면 종손이 재배를 하는데, 종손의 일배가 끝나면 곧이어 제손들이 재배를 한다. 종손이 신주를 모신 주독을 받들고 사랑채 대청에 마련한 교의에 모신다. 이어서 진설을 한다.

今以

顯先祖考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行
資憲大夫刑曹判書兼知經筵春秋館事弘文館提學同知成均館事諡文忠公府君遠諱之
辰敢請神主出就廳事恭伸追慕



장성 하서중가의 출주 1 진설을 하고서 출주를 위해 종손 및 집사자가 사당으로 간다. 종손이 신위전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서 분향을 하고 재배를 한다. 이에 참례자 모두 재배를 한다. 종손이 신위전에 부복을 하면 대축이 종손의 왼편에서 동향하여 무릎을 꿇고서 출주고사를 읽는다. 이 때 참제자는 모두 서 있다.

今以

顯先祖考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行務

工郞守弘文館副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春秋館記事官 贈諡文正公府君遠諱之辰敢請

顯先祖考

顯祖考 神主出就正廳恭伸追慕



今以

顯十九代祖考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監春秋館事諡文敬公行承議
郎刑曹佐郎府君遠諱之辰敢請

顯十九代祖考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監春秋館事諡文敬公行承議
郎刑曹佐郎府君

顯十九代祖 贈貞敬夫人順天朴氏神主出就廳事恭伸追慕



대구 한훤당중가의 출주 1 오전 1시경에 제사를 모신다. 12시 30분경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서 도포를 입으며, 제청(사랑채)에서 출주를 하기 위해 사당으로 간다. 사당에 도착하면 사당문을 열고 그 앞에 자리를 깔고 일제히 재배를 한다. 이어 부복하고서 축이 출주고사를 읽는다. 고사가 끝나면 일제히 일어나며, 종손이 사당으로 들어가 감실장 문을 열고 주독을 받들어 나온다. 주독을 교의에 모시고 주독 뚜껑과 신주갑을 벗기고 이어서 진설을 한다.



- ① **논산 의정공중가의 출주** | 제상 위에 제수를 진설한 후에 출주를 위해 종손 및 집사자들이 사당으로 간다. 종손이 사당 안에 들어가 감실문을 열지 않고 신위전에 분향을 하고 재배하며, 출주고사를 읽는다. 이 때 종손 이하 모두 부복을 하며, 고사가 끝난 후에는 종손이 감실문을 열고 주독보에 싸인 주독을 받들고 안채 대청으로 모신다
- ② **논산 사계중가의 출주** | 진설이 끝나면, 출주를 위해 종손 및 집사자가 사당으로 간다. 종손은 사당에 들어가 감실문을 닫은 채 분향을 하고 재배를 하며, 출주고사를 읽는다. 고사가 끝나면 감실문을 열고 신주보에 싸인 주독을 받들어 대청으로 모신다.



今以

顯十四代祖考嘉義大夫兵曹參判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
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諡文元公府君遠諱之辰敢請

顯十四代祖考

顯十四代祖 贈貞敬夫人昌寧曹氏神主出就廳事恭伸追慕

④ 참신

주인 이하가 조상을 맞이하는 의식으로, 주인 이하 자리가 정해지면 참례자 전원이 참신(參神)재배를 한다. 참신 재배 후에는 나이드신 어른과 병든 사람은 다른 장소에서 쉰다.

신주는 그 자체가 신체임으로 조상으로 여겨 참신을 먼저 한다. 사계 김장생이 “신위를 마련하여 신주가 없으면 먼저 강신하고 뒤에 참신한다. 묘제 역시 그러한데 『주자가례』에는 ‘우선 참신하고 나중에 강신한다’ 하니 그 뜻을 알지 못하겠다. 『격몽요결』에 ‘묘제에는 먼저 강신한다’ 하니, 아마 옳을 듯 하다”고 하였듯이, 지방으로 제사를 지낼 때에는 강신을 하고, 뒤에 참신을 한다. 지방은 임시로 한지에 이름을 쓴 것이어서, 지방에다 신을 의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신을 함으로써 지방에 신을 의뢰하여 조상으로 받드는 것이다.

하지만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지만, 강신을 먼저 하고 참신하는 경우도 있다. 즉 『사례편람』에 설날, 동지, 초하루, 보름에 사당에서 신주독을 열고 참례를 행할 때에는 강신하고서 참신을 행하듯이, 집안에 따라서 신주에 대한 유무 및 인식 여하에 따라 참신과 강신의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



안동 서애증가의 참신 재배 I 교의에 신주를 모시고 주독 뚜껑과 신주갑(簞)을 벗기면, 종손 이하 참례자 모두 참신 재배를 한다.



① 영광 영월신씨가의 참신 재배 | 종손 이하 참례자 모두 참신을 하는데, 남자는 재배, 여자는 사배를 한다.
② 청주 우암증가의 참신 재배 | 종손 이하 참례자가 모두 참신 재배를 하는데, 소종부는 사배를 한다.



- ① 안동 농암종가의 참신 재배 | 종손이 분향 및 뽕주(耐酒)를 하고, 조금 물러나 강신 재배를 한다. 이어 참신례를 행하는데, 종손을 제외하고 참례자 모두 참신 재배를 한다.
- ② 고령 점필재 종가의 참신 재배 | 종손이 먼저 참신 재배를 하는데, 종손의 일배가 끝나면 참례자 모두 뒤이어 참신 재배를 한다.



- ① 논산 사계종가의 참신 재배 | 신주를 교의에 모시면 참례자 모두 참신 재배를 한다. 이어 종손이 신위전에 나와 강신례를 행한다.
② 해남 고산종가의 참신 재배 | 사당에서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출주의식이 생략되고, 대신에 감실장에서 신주를 받들어 신주갑을 벗기면 종손 이하 참례자 모두 참신 재배를 한다.

⑤ 강신

하늘과 땅에서 조상의 혼백을 인도하는 의식이 강신(降神)이다. 주인이 신위전에 나아가 하늘에서 혼(魂; 陽氣)을 모시기 위해 향을 사른다. 즉 향을 향로에서 태워 그 연기로서 하늘로부터 혼을 인도하는 것이다. 『상례비요』에는 사당에서 참례를 할 때 분향하고서 분향 재배를 한다고 하여 기제사에도 분향 재배를 한다. 이를 준행하는 사계종가, 우암종가 등 기호지역에서는 분향 후에도 분향 재배를 한다.

하늘의 혼에 이어서, 땅에서 백(魄; 陰氣)을 모시기 위해 술을 따라 모사기에 붓는다. 즉 띠풀과 모래로서 땅을 상징하는 모사기에 술을 부음으로써 땅의 백을 인도하는 것이다. 모사기에 띠를 사용하는 것은 『주례』 주에 “그 몸체는 순하며, 결이 곧고 부드러우며 깨끗하니, 제사를 받드는 덕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였다. 우암 송시열은 “띠를 붉은 색으로 묶는 것은 그 문채를 빛나게 하려 함이고, 모래는 깨끗이 하려 함이다”고 하였다.

이에 주인은 하늘과 땅에서 혼백이 모두 오셨다고 하여 강신 재배를 한다. 퇴계종가, 서애종가 등 영남지역에서는 『주자가례』를 따라 분향과 퇴주(-酒) 후에 강신 재배를 한다.



봉화 총재종가의 분향 | 종손이 참신 재배 후에 다시 신위전에 나와 무릎을 꿇으며, 향상의 향합에서 향을 꺼내어 세 번 향로에 놓고 향불을 피운다. 이어 술을 따라 모사기에 붓고 강신 재배를 한다.



- ① 안동 퇴계종가의 분향 1 신위전에 나가 무릎을 꿇고 향을 피우는 분향을 한다. 종손은 술을 모사기에 세 번 나누어 따르고 강신 재배를 한다.
- ② 경주 손씨종가의 분향 1 종손이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신위 전에 이르러 북향하여 무릎을 꿇고서 향을 세 번 올린다. 『대제홀기』에는 분향 후 엎드렸다가 일어나 재배한다고 되어 있으나, 지금은 분향 후 바로 뉘주하고서 강신 재배를 한다.
- ③ 청주 우암종가의 분향 1 종손이 신위전에 나와 무릎을 꿇고서 세 번 향을 올려 분향 강신 재배를 한다. 이어 강신례를 행하는데, 집사자가 종손이 든 강신잔에 술을 따르면 종손은 모사기에 술을 세 번 따르고 강신 재배를 한다.



① 고령 점필재종가의 강신 Ⅰ 종손이 신위전에 나와 무릎을 꿇고서 분향을 하고, 이어 집사자가 따라준 술을 모사기에 붓고 일어나 강신 재배를 한다.

② ③ ④ 대구 한훤당종가의 강신 Ⅰ 종손이 신위전에 나와 무릎을 꿇고서 분향을 하고 일어나 분향 재배를 하며, 이어 집사자가 따라준 술을 모사기에 붓고 일어나 강신 재배를 한다. 허전(許傳)의 『사의(士儀)』에 따라 분향 재배와 강신 재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⑥ 진찬

주인과 주부가 생선과 고기, 떡과 국수, 국과 밥 등 더운 음식을 올리는 것을 진찬(進饌)이라 한다. 주인이 올라가면 주부가 따른다. 집사자 한 사람은 쟁반에 생선과 고기를 받들고, 한 사람은 쟁반에 떡과 국수를 받들고, 한 사람은 국과 밥을 받들어 따라서 올라간다. 신위전에 이르면 주인은 고기를 받들어 잔과 잔받침의 남쪽에 놓고, 주부는 국수를 받들어 고기 서쪽에 놓는다. 주인은 생선을 받들어 초접시 남쪽에 놓는데, 머리를 오른쪽으로 배를 앞쪽으로 올린다. 주부는 떡을 받들어 생선 동쪽에 놓는다. 주인은 국을 받들어 초접시 동쪽에 놓고, 주부는 밥을 받들어 잔과 잔받침의 서쪽에 놓는다. 모두 마치면 주인 이하가 모두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요즘에는 집사들이 주로 진찬을 한다.



안동 검암종가의 진찬! 강신례를 행하고서 진찬을 한다. 탕, 떡과 국수, 국과 밥 등 더운 음식을 올린다. 이 때 생선, 소고기, 닭고기 등으로 쌓아올린 도적을 중앙에 올린다. 그래서 초헌, 아헌, 종헌마다 헌작 후에 적을 올리는 진적(進炙)이 생략된다. 영남지방 가운데 안동의 퇴계종가, 서애종가, 학봉종가 등에서는 도적을 올리지만, 상주의 우복종가, 고령의 점필재종가, 대구의 한훤당종가, 경주의 경주손씨종가에서는 삼헌마다 소고기, 생선, 닭고기 적을 달리 올린다

⑦ 초헌

첫 번째 잔을 올리는 것을 초헌(初獻)이라 한다. 초헌은 주인이 한다.

침주(斟酒)

주인이 올라가 신위전에 나아가면 집사자 한 사람이 술주전자를 들고 그 오른쪽에 서고 주인이 고위의 잔과 잔받침을 받들어 신위 앞에 동향해서 선다. 집사자가 서향하여 잔에 술을 따르면 주인은 이를 받들어 먼저 자리에 올리고, 신위 앞에 북향하여 선다.

『주자가례』 및 『상례비요』 『사례편람』 등에는 위와 같이 주인이 직접 신위전에서 잔을 내려서 서면 집사자가 침주(斟酒)를 하고, 전주인은 전작(奠爵)을 한다.



- ① **논산 사계종가의 전작** | 종손이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으며, 신위전에 나아가 먼저 고위잔을 가져와 동향하여 선다. 집사자가 서향하여 술을 따라주면 술잔을 고위 자리에 놓는다. 비위잔도 이와같이 한다.
- ② **청주 우암종가의 전작** | 종손이 고위의 술잔을 내려 동향하여 서면 집사자가 서향하여 술을 따른다. 종손이 술잔을 제자리에 놓는다.
- ③ **해남 고산종가의 침주** | 종손이 신위전에 나아가 먼저 고위잔을 가져와 동향하여 서면 집사자가 서향하여 술을 따른다.
- ④ **장성 하서종가의 침주** | 종손이 신위전에 나와 서면 좌집사자가 고위 잔반을 내려 종손에게 준다. 종손이 잔반을 받아 동향하여 서면 우집사자가 서향하여 술병을 들고 술을 따른다. 종손이 술잔을 좌집사자에게 주면, 좌집사자는 술잔을 고위 자리에 올려 놓는다.



하지만 주인이 신위전에 북향하여 무릎을 꿇으면, 좌집사자가 잔과 잔받침을 내려 주인에게 주고, 우집사자가 술을 따르며, 다시 주인이 술잔을 들어 읊하였다가 좌집사자에게 주면 좌집사자는 술잔을 제자리에 올리기도 한다. 『국조오례의』 및 『가례의절』에 따라 침주(斟酒), 전작(奠爵)으로서 첫 번째 잔을 올리는데, 이때 채주는 안 한다.



① 안동 농암종가의 침주 I 종손이 신위전에 무릎을 꿇으면 좌집사자가 고위잔을 내려 모사기가 놓여 있는 작은 상 위에 놓는다. 우집사자가 술병을 들어 술을 따라 종손에게 준다. 종손은 술잔을 들었다가 좌집사자에게 주면 좌집사자는 술잔을 제자리에 놓는다. 비위도 이와 같이 한다.

② 안동 겸암종가의 전작



- ① 안동 학봉종가의 침주 | 종손이 관세위에 가서 손을 씻고 고위전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다. 집사자가 술잔을 내려 종손에게 주고 술을 따르면 종손은 술잔을 읊하였다가 집사에게 주고, 집사는 술잔을 제자리에 놓는다. 그리고 육적을 올리고 밥 뚜껑을 연다. 비위도 이와 같이 한다.
- ② 고령 점필재종가의 전작과 정저 | 종손이 신위전에 나와 무릎을 꿇으면 집사자가 제상 앞의 작은 상에 놓은 고위 잔을 종손에게 드리고 술을 따르면, 종손은 술잔을 다시 집사자에게 준다. 집사자는 술잔을 고위 자리에 놓고 갯 뚜껑을 열고 그 위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올려놓는다.

채주(祭酒)

집사자는 고위의 잔과 잔받침을 받들어 주인의 좌측에 선다. 주인이 무릎을 꿇으면 집사자도 무릎을 꿇는다. 주인이 고위 잔과 잔받침을 받아 왼손으로 잔받침을 잡고 오른손으로 잔을 잡아 모사기 위에 세 번 조금씩 붓는다. 잔과 잔받침을 집사자에게 주어 먼저 자리에 되돌리게 한다. 이를 채주라고 한다.



- ① 해남 고산종가의 채주 | 전작후에 종손이 었드리면 좌집사자가 고위잔을 내려 종손에게 준다. 종손은 술잔을 받아 읊하였다가 세번 모사기에 나누어 붓고 빈잔을 좌집사자에게 준다. 우집사자가 술잔을 내려 종손에게 주면 종손은 술잔을 받아 읊하였다가 세 번 모사기에 나누어 붓고 빈잔을 우집사자에게 준다.
- ② 논산 사계종가의 채주 | 집사자가 고위잔을 내려 종손에게 주면 종손은 술을 모사기에 세 번 붓는다. 비위도 이와 같이 한다.
- ③ 고양 율곡종가의 초헌 채주 | 『격몽요결』에 따라 초헌에만 삼채를 하고, 아헌 및 종헌에는 채주를 하지 않는다.

진적(進炙)

주인이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 서면 집사자는 간(肝)을 화로에 구워 접시에 담는다. 형제 중 맏이 한 사람이 그것을 받들어 고위 앞의 시접 남쪽에 올린다. 오늘날에 초헌에는 적간 대신에 육적(소고기)을 주로 올리며, 도적(都炙)의 경우는 진찬 때 미리 올리기 때문에 삼헌에 진적(進炙)이 생략된다. 그리고 화로에 굽는 대신에 미리 구어서 올리며, 또는 날고기를 올리기도 한다.



- ① 영광 영월신씨의 진적 | 화로에서 직접 고기적과 생선적을 구워 젓가락으로 제상에 올린다. 계반개는 출주 후에 한다.
- ② 고양 올곡중가의 진적 | 초헌 채주 후에 고위와 비위전에 육적(소고기)을 각각 올린다. 계반개는 첨작 후에 한다
- ③ 논산 의정공중가의 진적 | 밥 두경을 열면 집사자가 육적(육적에 꽃아둔 기가 서쪽으로 가게 함)을 올린다.
- ④ 대구 한훤당중가의 진적 | 종손이 신위전에 부복하면 집사자가 육적을 올린다. 계반개는 종헌 후에 한다.
- ⑤ 해남 고산중가의 진적 | 밥 두경을 열고 도적을 올린다. 도적을 올렸기 때문에 아헌 및 종헌에 진적 절차가 생략된다.

계반개(啓飯蓋)

이 때 밥 뚜껑을 연다. 『주자가례』에는 이러한 절차가 없으나, 『상례비요』에는 이 때 밥 뚜껑을 열어 그 뚜껑을 그릇 남쪽에 놓는다고 하였다. 즉 사계 김장생이 “제사 지낼 때 순가락을 밥 가운데 꽂는 것은 유식 때 하지만, 밥 뚜껑을 여는 것은 응당 초헌을 하고 축문을 읽기 전에 하여야 할 것이다”고 하여, 이 때에 밥 뚜껑을 연다. 다른 집안에서는 이 때 밥 뚜껑을 열어 순가락을 꽂고 젓가락을 시접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기도 하며, 종헌 후 유식 때에 밥 뚜껑을 열고 순가락을 꽂고 젓가락을 가지런히 올려놓기도 한다



상주 우복종가의 계반개 I 우집사자가 육적을 올리면, 좌집사자가 밥 뚜껑을 연다.

독축(讀祝)

축관이 축판을 들고 주인의 왼쪽에 서서 무릎을 꿇고 축문을 읽는다. 『가례의절』에는 주인 이하는 모두 무릎을 꿇는다. 축을 읽을 사람이 없으면 주인이 스스로 읽는다. 사계 김장생은 “축문을 읽을 때 소리가 너무 높아도 안되고, 너무 낮아도 안된다.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면 된다”고 하였다.

維

年號幾年歲次干支幾月干支朔幾日干支孝子某官某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歲序遷易諱日復臨追遠感時昊天罔極謹以清酌庶羞恭伸奠獻尙

饗

유세차 간지 모월 간지삭 모일 간지에 효자 모는 현고학생부군에게 감히 밝히 아뢰입니다.
해가 바뀌어 제사날이 다시 다가왔음에 추모하는 마음이 하늘처럼 그지없습니다.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으로 공경히 제사를 올리옵니다.

한편 점필재종가에서는 『주자가례』축문과는 다르게 한다. 내용은 대개 비슷하나, 형식면에서 조금 다르다. 이것은 『국조오례의』의 축문 양식과 점필재 김종직이 쓴 『이준록(彝尊錄)』의 축문 양식에 따른 것이다.

維歲次癸未八月朔癸酉十九日辛卯十七代孫炳堦敢昭告于

顯先祖考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

象監事行資憲大夫刑曹判書兼知經筵春秋館事弘文館提學同知成均館事諡

文忠公府君神主伏以氣序遷易諱日復臨追遠感時不勝永慕謹以菲儀式陳明薦以

顯先祖驢 貞敬夫人夏山曹氏神主

顯先祖驢 貞敬夫人南平文氏神主配尙

饗

독축이 끝나 축관이 일어나면 주인이 재배하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사가 다른 그릇에 술과 간을 물리고 잔은 먼저 자리에 놓는다. 이날은 기일이기 때문에 주인은 곡하며, 마땅히 곡해야 할 사람은 곡하여 슬픔을 다하기도 한다.



- ①영광 영월신씨의 독축! 독축 후에 곡(哭)을 한다. 곡은 생전에 불효했던 일들을 빌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종손이 먼저 곡하면 참례자 모두 따라 곡을 한다.
- ②청주 우암중가의 독축! 대축이 종손의 좌측에 나아가 축문을 읽는데, 이 때 참례자 모두 부복을 한다.

維歲次壬午六月己卯朔初八日庚戌孝孫永達敢昭告于
先祖考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監春秋館事世子傳致仕奉朝賀贈大匡輔國崇
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贈諡文正公府君
先祖驢貞敬夫人李氏歲序遷易
先祖考諱日復臨迨遠感時不勝永慕謹以清酌庶羞恭伸奠獻尙
饗



① 안동 검암중가의 독축 | 축이 종손의 좌측에 나가 무릎을 꿇고서 축문을 읽는데, 참례자는 부복을 한다.
② 상주 우북중가의 독축 | 축이 종손의 좌측에 나가 무릎을 꿇고서 축문을 읽는데, 참례자는 서 있고 종손만이 부복을 한다.



- ① 해남 고산종가의 독축 | 축이 종손의 좌측에 나가 무릎을 꿇고서 축문을 읽는데, 참례자는 모두 부복을 한다.
② 안동 퇴계종가의 독축 | 축관이 종손의 좌측에 동향하여 무릎을 꿇고 독축을 하는데, 종손 이하 모두 부복을 한다.

維歲次干支月干支朔 日干支 孝代孫 某敢昭告于
顯代祖考崇政大夫判中樞府事兼知經筵春秋館事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經筵弘
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諡文純公府君歲序遷易諱日復臨追遠感時不勝永慕謹以清酌庶
羞恭伸奠獻尚
饗



대구 한훤당종가의 독축 | 축이 주인의 좌측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서 축문을 읽는데, 참례자는 서 있고, 종손만 부복을 한다.

維歲次癸未十月辛未朔初一日辛未孝十九代孫秉義 敢昭告于
 顯十九代祖考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監春秋館事諡文敬
 公行承議郎刑曹 佐郎府君
 顯十九代祖驢贈貞敬夫人順天朴氏歲序遷易
 顯十九代祖考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監春秋館事諡文敬
 公行承議郎刑曹佐郎府君諱日復臨追遠感時不勝永慕謹以清酌庶羞恭伸奠獻尚
 饗

⑧ 아헌

아헌은 두번째 술잔을 올리는 것이다. 아헌은 주부가 한다(주부가 없을 때에는 동생이 아헌을 한다). 주부가 올라가 신위전에 나가면 집사자 한 사람이 술주전자를 들고 그 오른쪽에 서며 주부가 고위의 잔과 잔받침을 받들어 신위 앞에 동향해서 선다. 집사자가 서향해서 잔에 술을 따르면 주부는 이를 받들어 먼저 자리에 올리고, 신위 앞에 북향하여 선다. 집사자는 고위의 잔과 잔받침을 받들어 주인의 좌측에 선다. 주부가 무릎을 꿇으면 집사자도 무릎을 꿇는다. 주부가 고위 잔과 잔받침을 받아 왼손으로 잔받침을 잡고 오른손으로 잔을 잡아 모사기 위에 세 번 조금씩 붓는다. 잔과 잔받침을 집사자에게 주어 먼저 자리에 되돌리게 한다.

주부가 앉으려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 서면 부녀자가 적육(炙肉)을 받들어 고위 앞의 시접 남쪽에 올린다. 안주의 의미로서 적(닭고기 또는 송어)을 올린다. 주부는 사배를 한다. 집사자가 다른 그릇에 술과 적을 물리고 잔은 먼저 자리에 놓는다.

주부가 없어 동생이 아헌을 하면 종헌은 동생의 부인이 한다. 불천위의 경우에는 불천위 아들의 후손이 헌관을 맡기도 한다. 오늘날 아헌은 대부분 종손의 동생이나, 집안의 연장자가 하며, 불천위 제사의 경우 불천위의 둘째 아들의 후손들이 아헌을 하기도 한다.



상주 우복종가의 아헌 | 종부가 신위전에 나와 무릎을 꿇는다. 좌집사자가 술잔을 내리면 주부가 퇴주기에 술을 붓고 잔상에 올려 놓는다. 퇴주가 끝나 종부가 잔상의 고위잔을 들면 집주자(執注者)가 술을 따른다. 종부가 술잔을 들었다가 좌집사자에게 주면 좌집사자는 술잔을 제자리에 놓는다. 비위 잔도 이와 같이 한다. 우집사자가 어적(魚炙)을 작은 상에 올린다.



- ① 영광 영월신씨의 아헌 I 주부가 집사자가 따라주는 술잔을 올리면 집사는 적을 화로에 구워 올린다. 주부와 참례한 여자들은 모두 사배를 한다.
- ② 경주손씨중가의 아헌 I 경주손씨가에서는 주부가 아헌을 한다. 주부가 신위전의 좌측에서 신위를 바라보며 무릎 꿇으며 주부를 꿇으면 집사자가 술을 따라 올리고, 대나무 꼬지에 꽃은 적육을 적 위에 올려놓는다. 주부는 아헌 사배를 한다
- ③ 논산 의정공중가의 침주 I 아헌관이 잔을 가져와 들면 우집사가 술을 따르고, 아헌관은 술잔을 들어올린 후 술잔을 고위 잔 위치에 놓는다.



- ① 장성 하서종가의 진적 | 집사자가 우측 상에 있는 적(炙) 하나를 젓가락으로 내려 어적(魚炙) 위에 올려 놓는다
 ② 논산 사계종가의 진적 | 집사자가 어적을 올린다. 아헌 재배가 끝나면 술과 함께 어적을 물린다.
 ③ 청주 우암종가의 진적 | 집사자가 계적을 각각 고위와 비위의 육적 옆에 놓는다.

⑨ 종헌

형제중의 맏이나 장남, 친척 중의 연장자가 한다. 종헌관이 올라가 신위전에 나아가면 집사자 한 사람이 술주전자를 들고 그 오른쪽에 서고 종헌관이 고위의 잔과 잔받침을 받들어 신위 앞에 동향해서 선다. 집사자가 서향해서 잔에 술을 따르면 종헌관은 이를 받들어 먼저의 자리에 올리고, 신위 앞에 북향하여 선다. 집사자는 고위의 잔과 잔받침을 받들어 종헌관의 좌측에 선다. 종헌관이 무릎을 꿇으면 집사자도 무릎 꿇는다. 종헌관이 고위 잔과 잔받침을 받아 왼손으로 잔받침을 잡고 오른손으로 잔을 잡아 모사기 위에 세 번 조금씩 붓는다. 잔과 잔받침을 집사자에게 주어 먼저 자리에 되돌리게 한다. 종헌관이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 서면 집사자가 적육을 받들어 고위 앞 시접의 남쪽에 드린다. 이 때 적육으로 생선 또는 닭고기를 올린다. 종헌관이 재배하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초헌과 아헌에는 다음의 헌작을 위해 재배 후에 바로 술을 퇴주기에 물리지만, 종헌에는 다음의 유식을 위해 술잔과 적을 그대로 둔다. 『주자가례』에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지만, 『사례편람』에는 종헌에 퇴주와 적을 물리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한편 초헌과 아헌에 채주를 하지 않고 침주(斟酒), 전작(奠爵)만 하는 경우에는 종헌에 전작하기 전에 삼채를 한다. 즉 유식때 침작을 위해 술을 조금 퇴주기에 붓고 올리는데, 이를 제작(除酌)이라 한다. 또는 유식의 침작을 위해 침주때 술을 조금만 붓고 올리기도 한다.



논산 사계종가의 진적 | 종헌에 집사자가 계적을 올린다.

⑩ 유식(脣食)

주인이 식사를 권유하는 의미로서 잔에 술을 더 채우는 것을 첨작(添酌)이라 하고, 밥에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은 시접 위에 가지런히 놓는 것을 삽시정저(挿匙正箸)라 한다.

즉, 주인이 올라가 주전자를 들어 제사상의 고위 술잔을 가득 채우고 향안의 동남쪽에 선다. 주부는 올라가 밥에 숟가락을 꽂으며(자루가 서쪽으로 가게 한다) 젓가락을 시접 위에 가지런히 놓고(머리를 서쪽으로 가게 한다) 향안의 서남쪽에 선다. 모두(주인과 주부) 북향하여 재배하는데, 주부는 사배한다.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첨작(添酌)

유식에 술을 채우는 것을 첨작이라 한다. 지역에 따라서 주전자 대신에 술병을 쓰며, 또는 첨작용 잔을 마련하여 잔을 채우기도 하며, 밥 뚜껑에 술을 따라 잔을 채우기도 한다.



- ① 안동 농암종가의 첨작 1 유식 때 집사자가 밥 뚜껑을 열면(啓飯蓋), 축이 신위전에 나와 첨작을 하고, 좌우집사자가 시접에서 숟가락을 내려 데에 꽂고, 젓가락은 떡 위에 올려놓으면 주인 이하 모두 재배를 한다.
- ② 논산 사계종가의 첨작 1 종손이 주전자를 들고서 고위 잔과 비위 잔을 가득 채운다. 집사자가 숟가락을 밥에 꽂는 삽시(挿匙)만 한다. 종손이 재배를 한다. 계반개는 초현에 하였는데, 이 때 젓가락을 숟가락과 함께 시접 위에 바로 놓는다.
- ③ 안동 서애종가의 첨작 1 종손이 신위전에 나와 부복하였다가 제상으로 가서 밥 뚜껑을 들면 좌집사가 술병을 들고 술을 따른다. 종손은 밥 뚜껑에 있는 술을 술잔에 가득 채운다. 이어 종손이 숟가락을 밥에 꽂고(插匙) 젓가락을 시접 위에 가지런히 놓는다(正箸). 종손만 재배를 한다.



- ① **고양 율곡종가의 첨작** | 종손이 신위전에 나와 첨주잔으로 첨작을 한다. 고위 전부터 밥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밥에 꽂으며, 젓가락을 시접 위에 가지런히 놓는다. 종손만이 재배를 한다.
- ② **논산 의정공종가의 첨작** | 초헌관인 종손이 술주전자를 들고 나머지 빈잔을 채운다. 이어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을 시접 위에 바로 올려놓고, 종손만 재배를 한다.



- ①②③ 고령점필재종가의 유식 | 종손이 신위전에 나와 부복하면 집사자가 고위의 밥 뚜껑을 열어 종손에게 주고 술을 따른다.
 종손이 밥 뚜껑을 집사자에게 주면 집사자는 고위, 비위 순으로 세잔에 나누어 붓는다. 이어 고위 밥에 숟가락을 꽂고,
 비위 밥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꽂는다. 젓가락은 육적 위에 가지런히 놓는다. 종손이 유식 재배를 한다.
 ④ 장성 하서종가의 첨작 | 집사자가 첨주잔으로 고위와 비위잔에 술을 붓는다 .





①②③ 대구 한훤당중가의 유식 I 집사자가 밥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밥에 꽂는다. 종손이 신위전에 나가 무릎을 꿇으면 집사자가 밥 뚜껑을 내려 종손에게 주고 술을 따른다. 종손은 밥 뚜껑을 올렸다가 집사자에게 주면 집사자는 밥 뚜껑을 받아 각각의 술잔을 가득 채운다. 종손만이 유식 재배를 하고 물러선다.

삽시정저(挿匙正箸)

집사자가 숟가락을 밥 가운데에 꽂고 젓가락을 시접 위에 가지런히 놓는 것을 삽시정저라고 한다. 정저는 젓가락을 바르게 놓는다는 의미로서, 대체로 시접 위에 가지런히 놓는데, 적이나 편 위에 올려놓기도 하며, 국 그릇위에 올려놓기도 한다.



청주 우왕종가의 삽시정저 1 소종손이 주전자를 들고서 고위 잔에 술을 가득 채우고, 소종부가 주전자를 들고서 비위 잔에 술을 가득 채운다. 이어 소종손은 고위, 소종부는 비위의 숟가락을 밥에 꽂고(동쪽으로 향하게) 젓가락을 시접 위에 가지런히 놓고 유식 재배를 한다.

⑪ 합문

식사를 하시도록 축관이 문을 닫고 나가는 것을 합문(闔門)이라 한다. 축관이 문을 닫고(문이 없는 경우에는 발을 내리거나 병풍을 친다) 주인이 동문에 서서 서쪽을 향하고 여러 남자들은 그 뒤에 선다. 주부는 서문에 서서 동쪽을 향하고 여러 부녀자들이 그 뒤에 선다. 어른의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조금 쉰다. 참시자는 한끼 아홉번 밥을 뜨는 시간동안 엄숙하게 기다린다.

문이 없을 경우에는 병풍으로 제사상을 가리고 참사자 전원이 한참 동안 엎드리는 것으로 합문을 대신하기도 한다.



해남 고산중가의 합문 I 사당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간다.



- ① 고양 율곡종가의 합문 | 제사상의 촛불을 모두 끄고 돌아서거나, 다른 방으로 들어가 쉰다
② 안동 학봉종가의 합문 | 제사상 앞에 설치한 양장으로 제사상을 가리고 모두 부복한다.



안동 서애증가의 합문 I 집사가 병풍으로 제사상을 가리면 종손 이하 모두 엎드려 잠시 동안 기다린다.



- ① 예천 초간증가의 합문 | 병풍으로 제사상을 가리고 문을 닫으며, 종손 이하 모두 부복한다.
② 고령 점필재증가의 합문 | 제사상 뒤에 처진 병풍의 양끝을 접어 제사상을 일부 가리면 종손 이하 참례자 모두 부복한다.



- ① 안동 퇴계종가의 합문 | 제사상 뒤의 병풍으로 제사상을 가리면, 종손 이하 모두 부복한다.
- ② 경주 손씨종가의 합문 | 병풍으로 제사상을 가리고 모두 부복한다.
- ③ 대구 한훤당종가의 합문 | 집사자가 병풍으로 제사상을 가리고 합문례를 행한다. 종손 이하 제손들은 2-3분 정도 부복한다.
- ④ 안동 농암종가의 합문 | 병풍으로 제사상을 가리지 않고 옆문과 앞문만 닫는다. 종손 이하 모두 부복한다.
- ⑤ 상주 우복종가의 합문 | 병풍으로 제사상을 가리지 않고 종손 이하 모두 부복 한다.



⑫ 계문

축이 세 번 헛기침을 하여 식사가 끝났음을 알리고 문 여는 것을 계문(啓門)이라 한다. 식사 후에 송냥을 마시는 것처럼, 주인과 주부는 국을 물리고 차를 받들어 올리는데, 이를 진다(進茶), 헌다(獻茶)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차가 귀하였기 때문에 차 대신에 물을 올리며, 송냥의 의미로서 물에 밥을 세 번 떠서 말고 그릇 안에 숟가락을 걸쳐 놓기도 한다.

이 때에도 송냥드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절하지 않고 서서 조금 기다리거나, 또는 몸을 굽히는 국궁(鞠躬)을 한다. 잠시 후에 송냥을 다 드신 것으로 여겨 집사자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시접에 내려놓고(下匙箸, 落匙箸) 밥 뚜껑을 닫는다(合飯蓋).



- ① 상주 우복종가의 진다 I 집사자가 국 그릇을 내려 국을 그릇에 물리고, 물을 부어 올린다. 그리고 밥을 세 번 떠서 물에 밥을 풀고 숟가락을 걸쳐 놓는다.
- ② 청주 우암종가의 진다 I 국을 내리고 송냥을 올린다.
- ③ 고령 첨필재종가의 진다 I 제상의 국을 작은 상에 내려 안채에 가서 물리고, 다시 작은 상에 송냥을 올려 제상에 올린다. 그리고 밥을 퍼서 물에 만다.



- ① 청주 우암증가의 속사소경 ！ 송늬를 올린 다음 잠시동안 서서 기다린다.
- ② 고령 점필재증가의 국궁 ！ 잠시 동안 국궁을 한다. 얼마 후에 몸을 편 이후에 종손이 신위전에 나와 부복을 하면 집사자가 술잔을 내려 종손에게 준다. 종손은 술을 퇴주기에 붓고 술잔을 작은 상에 놓는다. 이어 손가락을 내리고 밥 뚜껑을 닫으며, 젓가락도 내린다
- ③ 안동 서애증가의 국궁 ！ 집사가 국 그릇을 내리고 물그릇을 올린다. 밥을 세 번 떠서 물에 말고 손가락을 둔다. 종손 이하 잠시동안 국궁을 한다.

고이성(告利成)

기제에서는 사시제(四時祭)와 같이 주인이 신위전에 나와 복주(福酒)와 조육(肉)을 먹는 음복수조(飮福受)를 하지 않는다. 대신에 주인이 동쪽 계단 위에 서향하여 서고, 축(祝)이 올라가 서쪽 계단 위에 서서 동쪽을 향하여 예가 끝났음을 고하는 이성(利成)을 외치기도 한다.

『증보사례편람』에는 “이는 봉양함이고, 성은 마침이니, 그 신을 봉양하고 예가 끝났음을 고하는 것이다. 또한 이성계의 ‘이성’이라는 이름을 피하여 ‘예성(禮成)’이라고 바꾸어 일컫기도 한다”고 하며, ‘예필(禮畢)’이라고도 한다.



① 봉화 총재종가의 고이성 I 축이 종손에게 가서 예가 끝났음을 알리는 ‘이성(利成)’을 고한다.
② 안동 서애종가의 고이성 I 진다를 하고 국궁이 끝나면, 집사자가 손가락을 시접 위에 내려놓고 주독 뚜껑을 덮는다. 축이 종손에게 가서 읊하고 ‘이성(利成)’을 고한다.

⑬ 사신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조상이 떠나시는 것처럼 주인 이하 모두 사신재배(辭神再拜)를 한다. 이어 축문을 불사르는데, 이를 ‘분축(焚祝)’이라 한다.



- ① 봉화 총재종가의 사신재배 Ⅵ 종손 이하 모두 사신재배를 한다
 ② 청주 우암종가의 사신재배 Ⅵ 전원이 재배를 하며, 재배 후에도 잠시동안 시간을 가지며 기다린다.



- ① 고령 점필재종가의 분축 I 향로 위에서 축문을 태운다.
② 상주 우복종가의 퇴주 I 종손 이하 모두 사신 재배를 한다. 이어 조금 기다린 후에 종손이 신위전에 나와 무릎을 꿇으면 좌집사자가 고위잔 및 비위잔을 내려 종손에게 준다. 종손은 술잔의 술을 모두 퇴주기에 쏟는다.

⑭ 납주

주인이 신주를 받들어 신주독에 거두고 사당에 다시 모시는 것을 납주(納主)라 한다. 지방으로 제사를 지낼 때에는 축문과 함께 불사른다. 주인이 올라가 신주를 받들어 신주독 앞에 들리고 사당으로 다시 모신다. 신주를 먼저의 자리에 편안히 모시고 발을 내려 문을 닫고 물러난다.

⑮ 철찬

제사상의 음식을 모두 치우는 것을 철찬(徹饌)이라 한다. 기제에는 사시제와 달리 음복이 없었으나, 오늘날에는 제사를 마친 후에 제사음식으로 음복을 하며, 이날에 성묘를 하고 곡하기도 한다. 주부는 철찬하는 것을 지켜보며, 잔 및 퇴주기에 있는 술을 병에 따라 붓는다. 그리고 과일과 소채, 고기는 모두 평상시에 쓰는 그릇에 담고, 제기는 씻어 보관한다.



- ① 대구 한현당종가의 납주와 분축! 퇴주를 하고, 합독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분축을 한다.
 ② 안동 서애종가의 납주! 신주를 다시 사당에 모신다.
 ③ 안동 서애종가의 철찬! 철찬(徹饌)을 할 때, 먼저 밥을 제청의 가장 높은 곳에 올린다. 이것은 이 집안에 내려오는 습속으로 밥을 높이 올려두면 자손 중에 높은 벼슬의 인물이 나온다고 한다.
 ④ 고령 점필재종가의 철찬! 대추부터 철찬을 하는데, 줄지어 음식을 안채로 옮긴다.

2. 묘제와 시제관행

1) 예서의 사시제와 시제관행

원래 시제는 2월·5월·8월·11월 중에 사당에 모신 4대친의 신주를 안채나 사랑채의 대청에 함께 모시고 지내는 제사로, 『주자가례』에서 가장 중요시한 제사였다. 그래서 『상례비요』, 『사례편람』에서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예서에서는 사시제를 중심으로 기제와 묘제를 설명하였다. 『격몽요결』이나 『사례집요』에도 정침 또는 중당에서 사시제를 지내는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하여 두었다.

국가제사로서 종묘시향이 1월, 4월, 7월, 10월 중에 거행된 것에 반해, 사대부가의 사시제는 그 다음달인 2월, 5월, 8월, 11월에 거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시제는 『국조오례의』의 경우에는 사당에서 지내기도 하지만, 『주자가례』 이후의 예서에서는 대부분 안채나 사랑채, 또는 제청에서 사당의 4대친의 신주를 모셔다가 지내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묘제를 중시하여 사시마다 묘소에서 절사를 지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2월에는 한식, 5월에는 단오, 8월에는 추석, 11월에는 동지와 중복되어, 율곡 이이의 경우, 설과 단오에는 사당에서 차례를, 한식과 추석에는 절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또는 시제와 속절 차례 및 절사를 절충하면서, 설·단오·추석·동지에는 사당에서 차례를, 한식 및 10월경에는 묘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① 정침시제지도(正寢時祭之圖) 『가례언해』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② 중당시제도(中堂時祭圖) 『사례집요』

이에 사시제는 점차 설,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등 4명일, 또는 5명일에 사당에서 4대친에게 지내는 차례 또는 차사로 대체되어 갔고, 차례음식도 주과포를 중심으로 명절때마다 시식 또는 절식을 올리던 것에서 사시제 또는 기제에 준하여 마련하게 되었다.

반면에 묘제는 『주자가례』를 따라 3월에 1년에 1번 묘소에서 4대친을 포함해서 선조까지 제사를 지내거나, 설, 한식, 단오, 추석 등 4명일에 4대친에게 절사지내고, 5대조 이상의 선조에 대해서는 한식 또는 10월 초하루에 지내기도 하였다. 특히 3월이나 한식, 그리고 10월 초하루의 경우에는 4대친을 포함해서 선조까지 전 조상의 묘제를 지냄으로써 시향 또는 시사로 인식하게 되었다. 나아가 사시 묘제가 점차 한식과 10월 초하루로 축소됨에 따라, 이를 사시 묘제로서 시제라고 하고, 시제 대상도 관행적으로 5대조 이상의 선조로 인식하였다.

2) 묘제

정의

조상의 묘소에 가서 지내는 제사로, 묘사(墓祀) 또는 묘전제사(墓前祭祀)라고 한다. 5대 이상의 조상에 대해서는 일년에 한번 제사를 모신다고 하여 세일제(歲一祭), 세일사(歲一祀)라 하며, 설,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등 명절에는 4대친에 대해 묘제를 모신다고 하여 절사(節祀)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오늘날에는 묘제를 시제(時祭), 시사(時祀), 시향(時享)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5대 이상의 조상을 모시는 묘제를 가리키며, 4대친에 대한 묘제를 사산제(私山祭)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제일

『주자가례』에는 3월 상순에 날짜를 정하여 묘제를 지냈다고 되어 있으나, 중국 송대 유학자들이 한식과 10월 초하루에도 지낸다고 하여, 대체로 3월 및 한식, 10월 1일에 많이 지낸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묘제를 중시하여 고려때부터 속절에 묘제를 지냈고, 조선시대에도 이를 이어 설·한식·단오·추석·동지 등에 묘제를 지냈다.

『사례집의』에는 4대친에 대한 『묘제의』와 5대 이상의 선조에 대한 『선조묘제의』를 구분하였는데, 『묘제의』는 3월 상순에 날을 가려 1년에 한번 제사를 지내며, 기일이나 절일에는 사당에서 먼저 차례를 지낸 후에 묘소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다. 반면에 『선조묘제의』는 10월 1일, 또는 상정(上丁) 혹은 다른 날로 편한 날을 따르는데, 1년에 한번 지낸다고 하였다.

묘제 대상

『주자가례』의 묘제 대상은 원래 4대친이나, 5대 이상의 조상도 1년에 한번 묘소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다. 이에 지역에 따라서는 10월에 시조로부터 부모묘까지 차례로 묘제를 지내기도 하고, 5대 이상의 조상 묘제는 세일사로 3월이나 10월에, 4대친의 묘제는 절사로 설, 한식, 단오, 추석에 지내는 묘제로 구분하기도 한다. 불천위의 경우, 충청 지역에서는 불천위를 사당에 모신 것으로 여겨 세일사 대신에 차사와 절사로 모시기도 하며, 경상 지역에서는 10월 묘제때 함께 모시기도 한다.

장소

묘제는 원칙적으로 묘에서 지내나, 우천시에는 재실에서 지방을 써서 합동으로 망제를 모시기도 한다. 재실에서 모실 경우에는 강신 후에 참신을 하며, 분축 때 지방을 함께 태운다.

오늘날에는 퇴계 이황(李滉)이 “같은 언덕에 묘가 많아서 각각 제사를 지내는 때가 많으니, 묘역을 청소한 후에 재실에서 지방으로 합동 제사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한 것처럼, 퇴계종가에서는 5년 전부터 묘에서 신위를 인향(引嚮)하여 안채 대청 및 추월한수정(秋月寒水亭)에서 합동으로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경기 지역에서는 재실이나 선조묘에서 합동으로 묘사를 지내기도 한다.

3) 묘제 절차

묘제 절차는 대체로 『주자가례』의 묘제를 따르고 있는데, 이는 4대친 및 5대조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례편람』의 경우에 축문을 보면 4대친을 대상으로 한식 때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뒷부분에 체천한 선조에 대한 축문은 10월에 지내는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는 5대 이상의 선조에 대한 묘제로서 묘제 절차를 현지조사 내용과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묘제의 현지조사로는 경기도 지역의 파주 파평윤씨, 파주 고령신씨, 연천 및 남양주 청풍김씨, 하남 동래정씨, 충청도 지역의 대전 안동권씨, 은진송씨, 논산시 광산김씨 별사, 전라도 지역의 해남 고산종가, 광양 초계최씨, 경상도 지역의 안동시 퇴계종가, 겸암종가, 상주시 우복종가, 경주시 경주손씨종가 등인데, 일부 종가의 경우 4대친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불천위 및 5대 이상의 선조에 대한 묘제를 보여주고 있다.

① 묘제 준비

하루 전날에 주인이 여러 집사자를 거느리고 묘사(재실)로 나아가 재계한다. 각 묘소마다 제물을 준비하며, 토지신에게 지낼 제물도 준비한다. 주인은 심의를 입고 집사자를 데

리고 묘소에 가서 재배하고 묘소 안팎을 돌며 슬프게 살피기를 세 번 한다. 그리고 묘소 및 주변을 청소한다.

저녁에는 재실에서 주인(또는 도유사, 문중의 연장자)이 중심이 되어 시도기(時到記) 또는 시도록(時到錄)을 가지고 각 묘소마다 헌관 및 축, 집례, 집사자 등을 정한다.



① 안동 전주류씨의 도적 준비

② 안동 전주류씨의 편(떡)고임 | 재실에서 유사를 중심으로 남자들은 각 묘소별로 도적을 싸고, 여자들은 편틀에 떡을 고인다



- ① 파주 고령신씨가의 참신 재배 | 고령신씨가에서는 참신례를 먼저 행한다. 집례가 창축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재배하며, 집례가 '참신' 하고 창축을 하면 초헌관 이하 모두 재배한다. 그리고 나서 강신례를 행한다.
- ② 대구 한훤당중가의 참신 재배 | 묘제에 밥과 국을 진설하지 않는다. 진설이 끝나면 참신 재배를 하고, 이어 강신례를 행한다

④ 강신

주인이 분향하고 강신잔에 술을 따라 모사기에 붓거나 석상 아래 땅에 붓고서 강신 재배를 한다. 『주자가례』에는 참신을 먼저 하고 강신을 나중에 하나, 『격몽요결』 묘제에는 강신을 먼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① 상주 우복종가의 분향 I 종손이 우복선생의 묘소에 나아가 분향을 하며, 술을 상석 아래에 뿌리고 강신 재배를 한다.
② 파주 파평윤씨의 강신 I 초현관은 향안 앞에 나아가 분향을 하며, 술을 모사기에 붓고 강신 재배를 한다. 이어 초현관 이하 모든 후손들이 참신 재배를 한다.

⑤ 초헌

주인이 첫 번째 잔을 올린다. 기제와 같이 주인이 침주(斟酒), 전작(奠爵), 쇠주(祭酒)를 한다. 이 때 육적을 올리고(進炙), 메의 뚜껑을 열며(啓飯蓋), 숟가락을 밥에 꽂고(插匙) 젓가락을 바로 놓는다(正箸).



① 대전 안동권씨의 침주
② 경주손씨종가의 침주



- ① 묘제도(墓祭圖) 『검암선생문집』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② 후토제도(后土祭圖) 『검암선생문집』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③ 안동 검암군의 현악 [초헌관이 묘소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좌집사는 고위 잔을 들어 초헌관에게 주고, 우집사는 술을 따라준다. 초헌관은 잔을 올렸다가 묘사기에 술을 조금 따르고 술잔을 좌집사에게 주면 좌집사는 제자리에 놓는다. 좌집사가 다시 비위 잔을 들어 초헌관에게 주고, 우집사는 술을 따라준다. 초헌관은 잔을 올렸다가 묘사기에 조금 따르고 술잔을 좌집사에게 주면 좌집사는 제자리에 놓는다. 이어 비위, 국수 등의 뚜껑을 열어나간다.]

대축이 주인의 왼쪽에서 아래와 같이 축문을 읽는다. 축관이 없으면 주인이 스스로 읽는다. 독축이 끝나면 주인이 재배를 한다. 집사자 한사람이 술을 거두어 퇴주기에 붓는다

維
年號幾年歲次干支十月朔日干支幾代孫孝某官某敢昭告于
始祖考(或先祖考或幾代祖考)某官府君(或某封某氏合位則列書)之
墓今以草木歸根之時氣追惟報本禮不敢忘瞻掃封塋不勝感慕謹以清酌
庶羞祇薦歲事尚
饗

유 연호 몇년세차 간지 시월 초하루 간지에 몇대손 모는 시조고(혹은 선조고, 몇대조고)부군과 모씨 묘소에 고향
니다. 지금 초목이 뿌리로 돌아가는 때에 추모하여 근본에 보답함을 예에 감히 잊지 못하여 우러러 무덤을 청소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건딜 수가 없습니다.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으로 경건히 제사를 올리옵니다.



- ① 경주손씨종가의 독축 | 축이 종손의 왼쪽으로 나와 북향하여 축문을 읽는다. 종손은 부복하고 참사자는 모두 서 있다.
독축이 끝나면 종손만이 재배한다.
② 대전 안동권씨가의 독축 | 축이 종손의 왼쪽에서 축문을 읽는데, 모든 후손들은 부복을 한다. 독축이 끝나면 현관만 재배한다.



- ① 대전 은진송씨가의 독축 | 축관은 초헌관의 왼쪽에서 축문을 읽는데, 이 때 모두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 독축이 끝나면 모두 일어나는데, 초헌관만 재배한다. 집사자는 고위부터 술잔을 물리어 서서 퇴주기에 붓는다.
- ② 대구 한월당증가의 독축 | 초헌관이 향안전에 나와 술을 따라 올리면, 축관이 나와 축문을 읽는다. 독축 후에 초헌관이 재배를 하고 물러나면 집사자가 술을 내려 상석 아래에 뿌린다.

⑥ 아헌

두 번째 잔을 올리고 재배를 한다. 아헌과 종헌은 모두 아들 또는 동생이나 친한 벗이 한다. 자제들이 없으면 주인이 스스로 삼헌을 한다.

⑦ 종헌

세 번째 잔을 올리고 재배를 한다.

⑧ 유식과 합문

『주자가례』 및 『사례편람』에는 묘제에 유식과 합문의 절차가 없다. 다만 『사례집의』에는 “침주(침작)는 없다(한강 정구). 엄숙하게 한번 밥먹을 시간을 기다린다(사계 김장생)”고 하였다.

이에 집안마다 침작을 하기도 하며, 집사자가 밥에 숟가락을 꽂고 숟가락을 접시 위에 가지런히 놓는 삽시정저(挿匙正箸)를 하고, 합문의 의미로 참사자 모두 부복하거나, 국궁을 하며, 뒤돌아서 있기도 한다.



- ① 파주 고령신씨가의 아헌 진적 | 아헌관이 술을 올리면 집사자가 계적을 올린다. 아헌관이 재배하면 술을 퇴주기에 물린다.
 ② 경주손씨중가의 아헌 진적 | 아헌관이 술을 올리면 집사자가 도적 위에 적간을 올린다.
 ③ 상주 우복중가의 침작 | 종헌을 마친 후에 밥 뚜껑을 열고 밥 뚜껑에 술을 부어 잔을 채운다.



- ① 안동 겸암종가의 합문 I 초헌관이 술이 든 밥 뚜껑을 올렸다가 좌집사에게 주면 좌집사는 술을 가득 채운다. 이어 순가락을 밥에 꽂고, 젓가락을 시접 위에 올려 놓은 후 초헌관만 유식재배를 한다. 제손 이하 모두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
 ② 안동 전주류씨의 합문 I 집사자가 밥에 순가락을 꽂고 젓가락을 국 위에 올려 놓는다. 초헌 이하 모두 잠시 동안 엎드린다.
 ③ 파주 파평윤씨의 합문

⑨ 계문과 진다

『주자가례』 및 『사례편람』에는 묘제에 계문과 진다의 절차가 없다. 다만 『사례집의』에는 “주인이 올라가 국을 물리고 송늬를 올려 차를 대신하며(율곡, 『격몽요결』)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간다(『주자가례』). 수조(受惜)하지 않고, 서서 조금 기다린다(사계 김장생). 집사자 한 사람이 올라가 수저를 접시 안에 내리고 밥 뚜껑을 닫고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격몽요결』)”고 하였다.

합문 후에 대축이 헛기침을 세 번 하면 계문하듯이, 참사자 모두 몸을 펴거나 일어서며, 집사자가 국을 물리고 송늬를 올리면 국궁을 한다. 즉 기제와 같이 밥과 국을 올렸을 경우에는 송늬를 드린다. 하지만 메와 갯을 올리지 않을 때에는 합문 및 진다가 생략되고 바로 사신 재배를 한다.

묘제에는 기제와 달리 음복수조하는 예도 있다. 주인이 신위전에 나아가 북향하여 무릎을 꿇으면 축관이 신위전의 술을 내려 주인에게 주면, 주인은 술을 조금 마신다. 이어 축관이 신위전의 밥이나 포 등을 내려 주인에게 주면 주인은 이를 맛본다. 그리고 축관이 서쪽 계단 위에 서서 동쪽을 향하여 ‘이성(利成)’이라고 외친다.



①



②



③

① 파주 고령신씨의 진다

② 파주 파평윤씨의 음복수조례 | 현관은 수조 위에 나가서 서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다. 대축은 잔반과 포절을 거두어서 수조 위에 놓는다. 현관은 술을 마시고 포를 받는다.

③ 파주 파평윤씨의 고이성 | 현관이 서쪽을 향하여 서면 대축은 동쪽을 향하여 읊을 하고서 '이성'이라고 고한다.

⑩ 사신

국궁 후에 집사자가 순가락과 젓가락을 접시 안에 내리고, 밥 뚜껑을 닫고 내려오면 참사자 모두 사신 재배를 한다.



- ① 대전 은진송씨가의 사신 재배 I 세 번 헛기침을 하면 집사자가 순가락과 젓가락을 내리고 메 뚜껑과 송늬 뚜껑을 덮는다. 집사자가 제 자리로 돌아오면 초헌관 이하 모두 사신 재배를 한다.
- ② 경주손씨종가의 사신 재배 I 상중에 있는 사람(服人)은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다만 제사가 끝난 후에 혼자 재배만 한다.

⑪ 분축

대축이 축문을 불사른다. 집사자가 제사상의 음식을 물린다.

이어 산신제(후토신)를 지낸다. 만약 같은 산 안이면 여러 묘위의 제사를 마치고 가장 높은 묘위의 묘소 오른쪽에서 지낸다. 하지만 묘제보다 산신제를 먼저 지내기도 한다.

산신제

- ① (진설) 깨끗한 자리를 펴고 제물을 진설한다.
- ② (강신) 분향을 하지 않고 술을 땅에 부어 강신하는데, 재배는 하지 않는다
- ③ (참신) 참사자 모두 재배를 한다.
- ④ (초헌) 초헌관이 첫 번째 잔을 올린다. 집사자가 젓가락을 접시 위에 바로 놓고 물러나면 축관이 초헌관의 왼쪽에서 축문을 읽는다. 독축이 끝나면 초헌관은 재배를 한다.

維年號幾年歲次干支幾月干支朔幾日干支某官姓名敢昭告于
土地之神某恭修歲事于某親某官府君之墓惟時保佑實賴神休敢以酒饌敬伸奠獻尚
饗

유세차 간지 모월 간지삭 모일 간지에 모관 ○○○는 토지의 신에게 아뢰니다. 모가 공손히
올해 제사를 모친 모관 부군의 묘소에서 지내옵니다. 이에 보호됨을 실로 신의 아름다움에 의지
하오니, 감히 술과 음식으로 경건히 올립니다.

- ⑤ (아헌) 아헌관이 두 번째 잔을 올리고 재배를 한다.
- ⑥ (중헌) 중헌관이 세 번째 잔을 올리고 재배를 한다.
- ⑦ (사신) 조금 뒤에 집사자가 젓가락을 접시 안에 내리면 참사자 모두 사신 재배를 한다.
- ⑧ (분축) 축문을 불살라 예를 마친다.
- ⑨ (철상) (음복) 제물을 모두 거두어 음복을 한다.



① 파주 고령신씨의 산신제 | 묘제를 지내기 전에 산신제 제관이 묘소의 오른쪽에 있는 산신단으로 가서 제물을 진설하고 제사를 지낸다.
② 대전 안동권씨의 산신제 독축 | 대전 안동권씨가에서는 묘제를 마친 후에 묘소의 뒤쪽에 있는 산신단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 ① 대전 은진송씨의 산신제 I 은진송씨가에서도 묘제를 지낸 이후에 산신제를 지낸다.
 ② 안동 검암중가의 음복 I 묘제가 끝난 후에 음복을 한다.
 ③ 안동 전주류씨의 음복 I 묘제가 끝나면, 묘소 아래 공터에 참사자 전원이 모여 음복을 한다.

합동묘사



- ① 남양주 청풍김씨의 현작(묘소) | 청풍김씨 문의공파 후손들의 시사로, 문의공 김식(金湜)의 모 사천목씨에서부터 21세 만선에 이르기까지 총 51위를 문의공 묘소에서 지방으로 함께 지냈다. 산신제를 먼저 지낸 후에 시사를 지낸다.
- ② 연천 청풍김씨의 현작(재실) | 청풍김씨 수와공 김잠(金潛) 후손들의 합동시사로, 14세 잠으로부터 22세 익성에 이르기까지 총 46위를 2개조로 나누어 2차에 걸쳐 지냈다. 장소는 연천군 수와공 재실로, 지방으로 제사를 지낸다.

별사

논산 광산김씨가에서는 사당에 모신 4대친에 대해 단오와 한식에 산소에서 절사를 지낸다. 불천위도 사당에 모시기 때문에 세일사(歲一祀)를 지내지 않고 명절에 차례와 함께 절사를 지낸다. 의정공 김국광은 이시애의 난을 진압한 공로로 적개공신이 되어 불천위가 되었는데, 신독재 김집이 『입의(立議)』를 통해 3년에 한번 10월달에 별사를 지내게 정하였다. 이에 의정공의 중손이 초헌을, 의정공의 둘째 아들의 중손이 아헌을, 의정공의 셋째 아들의 중손이 종헌을 맡는다. 별사 절차는 묘제와 같다.



① 논산 의정공종가의 독축 1대축이 초헌관의 좌측에 나아가면 초헌관과 대축, 참제자 모두 부복한다. 대축이 축문을 읽는데, 독축이 끝나면 초헌관이 초헌 재배를 한다.

② 아헌 침주 1아헌관도 초헌관과 같이 관세위로 나아가 손을 씻으며, 신위전에 나갔다가 고위 술잔을 내려 동향을 하면 집사가 서향하여 술을 따른다.

재실묘사

퇴계종가에서는 묘제를 묘제사 또는 시사(時祀)라고 한다. 묘제라고 하지만, 묘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재실에서 지낸다. 이는 중부 없이 연로하신 종손(李東恩, 96세)과 소종손(李根必, 72세)만이 종가를 지키고 있는 관계로, 문중 회의 결과, 퇴계 이황이 "같은 언덕의 많은 묘소에서 각각 묘제를 지내는 폐단이 있는데, 이것은 묘역을 청소하고 재사(齋舍)에서 지방으로 합제하는 것보다 못하다(『退溪先生文集』 卷 9 書 與金而精)"라고 한 것처럼, 5년전부터 묘에서 신위를 인향(引嚮)하여 안채 대청 및 추월한수정(秋月寒水亭)에서 합동으로 묘제를 지내며, 묘제 날짜도 양력 10월 3번째 일요일에 하되, 유일(酉日)과 신일(辛日)을 만나면 그 다음주에 묘제를 지낸다고 한다.



① 퇴계 이황 선생의 묘소 전경

② 안동 퇴계종가의 묘제 분정 I 퇴계종가에서는 퇴계선생부터 4대 조상(고조, 증조, 조, 고)에 이르기까지 종가의 직계조상에 대한 묘제를 지낸다. 이에 각 대수별로 향렬에 따라 인향유사(引嚮有司)는 물론 현관 및 집사자를 정하며, 축문 및 지방을 준비한다.



- ① 안동 퇴계중가의 삼시정저 | 종손이 신위전에 나와 무릎을 꿇으면 집사자가 밥뚜껑을 내려 종손에게 주고 밥 뚜껑에 술을 붓는다. 종손이 술이 든 뚜껑을 올렸다가 집사자에게 주면 집사자는 밥 뚜껑의 술을 세 개의 술잔에 차례대로 따른다. 이어 손가락을 밥 가운데에 꽂는다. 종손만이 유식 재배를 한다.
- ② 함문 | 유식 재배가 끝나면 종손 이하 모두 잠시 동안 부복을 한다. 얼마 후에 축(祝)이 일어나 헛기침 3번을 하면 참례자 모두 일어난다.

사당 묘사

해남 고산중가에서는 입향시조인 어초은(漁樵隱) 윤효정(尹孝貞)에 대해 별도로 사당을 지어 매년 음력 11월 15일에 시제(또는 묘제)를 지낸다. 이 사당은 고손(高孫)이었던 고산 윤선도(尹善道)가 자손에게 유교(遺敎)로서 고조는 시조로서 사묘(祠廟)를 별도로 지어 백세불천(百世不遷)할 것을 당부한 문중의 불천위이기 때문에 국법(國法)에 따라 시제만 지내고 기제와 차례를 모시지 않는다고 한다.

어초은의 시제는 묘소에서 지내지 않고 사당에서 지낸다. 현재 사당 앞에는 윤효정의 옛 묘비가 세워져 있고, 묘소에는 새로 만든 묘비가 있다. 이것은 옛비가 거의 마멸되었고, 묘비에 부인이 기재되지 않아서 새로 묘비(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成均生員尹公諱孝貞之墓贈貞夫人草溪鄭氏攬左)를 제작하면서 옛 묘비(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成均生員尹公之墓)를 사당 앞에 다시 세운 것이다. 묘소 아래 중가의 복단에 어초은의 시제를 준비하고 후손들이 모이는 추원당(追遠堂)이라는 재실이 있으며, 안채 뒤쪽에는 산신단이 있다.

어초은에게는 4아들이 있는데, 1자는 굴정(橘亭) 윤구(尹衢), 2자는 해빈(海濱) 윤항(尹衡), 3자는 졸재(拙齋) 윤행(尹行), 4자는 행당(杏堂) 윤복(尹復)이다. 그래서 시제에 초헌관에는 1자인 굴정의 종손이, 아헌관에는 2자인 해빈의 후손이, 삼헌관에는 3자인 졸재의 후손이, 종헌관에는 4자인 행당의 후손이 하는 등 4헌을 한다.



해남 고산중가의 침주 1헌관이 나와 신위전의 고위 잔을 내려 동향하여 서면 우집사자가 서향하여 술을 따르고, 헌관은 술잔을 제 자리에 놓는다.



- ① 해남 고산종가의 독축 I 종손이 헌작을 하면 집사자가 메 뚜껑을 열고, 참제자가 모두 부복하면 대축이 종손의 좌측으로 나와 북향하여 축문을 읽는다.
② 합문 I 유식 재배를 한 후 사당문을 닫고 나온다. 현관은 사당 마루에 앉고 참례자는 뜰에서 앉아 잠시 동안 기다린다.



산신제 I 사당에서의 시제가 끝나면 제관들이 안채 뒤 산신단에 가서 산신제를 지낸다.

3. 절사와 차례

1) 절사(節祀)

설, 한식, 단오, 추석 등 명절에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라고 하여 절사(節祀)라 한다. 절사의 대상은 사당에 모신 4대친이다. 『국조오례의』에는 종묘와 각 능원에 설,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등 속절(俗節)에 제사를 지냈는데, 민간에서는 이를 따라 이날에 술·과일·포 등의 음식을 준비하여 묘소에 가서 절사를 지냈다.

묘제(墓祭)는 원래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르면, 원래 3월 상순에 날짜를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묘제를 중시하여 고려 때부터 속절에 묘제를 지냈다. 『고려사』 최항 열전에는 기체에 성묘(상충)하거나, 윤택 열전에는 사시에 성묘하며, 묘소 근처에 원찰 또는 원당을 지어서 묘소를 관리하거나 제사를 지냈다. 이에 공양왕 때에는 『주자가례』를 수용하여 「사대부가제의(士大夫家祭儀)」를 정하였는데, 속절 만큼은 묘소에 가는 것을 허락하였다.

조선시대에도 이언적의 『봉선잡의』에 설·한식·단오·추석 등에 묘제를 지내도 인정상 괜찮다고 하여, 명절마다 차례와 함께 묘제를 지냈다. 그리고 율곡 이이는 『가례』 묘제는 원래 3월에 택일하여 1년에 1번 지내는데, 우리나라 풍속에는 4명일에 모두 묘제를 지낸다. 단 묘제를 사시에 지내니, 가묘의 사시제와 차별이 없어서 미안한 듯하다. 만약 중용의 도를 구한다면, 한식과 추석에는 『주자가례』의 묘제에 따라 제사 음식을 갖추어 축문을 읽고 토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설과 단오에는 간략하게 제사음식을 마련하여 단지 일헌만 하고 축문을 읽지 않으며, 토신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하였다.

『상례비요』 묘제 축식에는 한식의 예(雨露既濡)를 들었지만, 설일 때에는 ‘歲律既更’, 단오일 때에는 ‘時物暢茂’, 추석일 때에는 ‘白露既降’라고 하여 절사의 축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묘제 대상도 부, 조, 증조, 고조에 효자, 효손, 효증손, 효현손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호천망극(昊天罔極)’도 조 이상일 때에는 ‘불승영모(不勝永慕)’라고 표현하는 등 묘제의 대상이 4대친에 대한 절사의 대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주자가례』의 묘제는 4명일에 지내는 묘제, 즉 4대친에게 지내는 절사로서 이해하고 있었다.

維年號幾年歲次干支幾月干支朔幾日干支孝子某官某敢昭告于
顯考某官府君之墓氣序流易雨露既濡封塋昊天罔極謹以清酌庶羞祇薦歲事尚
饗

유세차 간지 모월 간지삭 모일 간지에 효자 모는 현고학생부군과 현비유인모씨 묘소에 고향
니다. 계절이 바뀌어 비와 이슬이 이미 젖었고, 봉분을 바라보니 하늘처럼 그지없어 삼가 맑
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으로 경건히 제사를 올리옵니다.

도암 이재는 『사례편람』에서 “지금 가묘에서 사시제를 지내고, 또 사절일에 묘제를 지낸다. 이는 묘제와 가묘제가 같아지는 것이니, 어찌 옳겠는가? 사절일(설, 한식, 단오, 추석)의 묘제는 우리나라 풍속에 행한지가 이미 오래되어 갑자기 바꾸는 것이 어려우므로, 율곡의 『격몽요결』에 간략히 줄였으나, 아직도 과중함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주자가례』를 정식으로 하여 3월달에 한번 제사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대개 옛날의 제사는 곧 사시제이니, 제사는 사시제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지금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혹은 전혀 시행하지도 않고, 또 삼절일(설, 단오, 추석)의 묘제를 폐기하기도 하니, 더욱 마땅치 않다. 세상에 다만 묘제만을 행하고 사시제를 지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를 옮겨다가 가묘에서 지내고, 묘소에는 한 번만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여 사절일에는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묘제는 1년에 한번 지내도록 권유한 것이다.

여기에서 사시제와 사절일 묘제는 모두 4대친에 대한 제사인데, 사당에서의 사시제는 행하지 않고, 대부분 사절일에만 묘소에서 지내는 절사만 지냄으로써 제사의 중요성을 따져 묘소에서는 1년에 한번만 지내도록 한 것이다. 절사는 사절일마다 묘소에서 지냈으나, 이재가 ‘3절일의 묘제도 폐기하기도 한다’고 지적한 것처럼, 이당시에도 한식의 절사가 가장 성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율곡 이이가 『격몽요결』에서 한식과 추석에는 묘제를, 설과 단오에는 차례를 지내자고 한 것 이후로, 한식과 추서에 절사가 가장 성행하였다.

그래서 『동국세시기』에는 도시 풍속으로 산소에 올라가 제사를 올리는 것을 절사라고 하였으며, 설날·한식·단오·추석 등 사명일에 행한다고 하였다. 이날에 술·과일·포·식혜·떡·국수·탕·적으로 제사드리며, 집안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한식과 추서에 가장 성하다고 한다. 명절에 산소에 올라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리나라의 풍속으로, 조정에서는 여기에 동지를 더하여 다섯 절사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정리한다면, 묘제는 원래 『주자가례』에는 3월에 택일하여 4대친 및 5대조 이상을 1년에 한번 지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예전부터 묘소를 중히 여겨 4명일에 4대친에 대해 묘제를 지내고, 5대조 이상은 한식 또는 10월 초하루에 1번 지내는 것으로 여기었다. 이에 『가례집람』, 『상례비요』, 『사례편람』 등의 예서에서는 묘제를 4대친에 대한 절사의 내용으로 정리하고 있다. 반면에 『사례집의』에는 4대친에 대한 「묘제의」와 5대 이상의 선조에 대한 「선조묘제의」를 구분하였는데, 「묘제의」는 3월 상순에 날을 가려 1년에 한번 제사를 지내며, 기일이나 절일에는 사당에서 먼저 차례를 지낸 후에 묘소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다. 그리고 「선조묘제의」는 10월 1일, 또는 상정(上丁) 혹은 다른 날로 편한 날을 따르는데, 1년에 한번 지냈다고 하였다.

요즘에는 명절이 설과 추석으로 제한되어, 차례와 함께 성묘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요즘에 와서는 절사를 거의 지내지 않는다. 다만 한식과 추서에 절사를 지내는

집안이 있기도 하지만, 10월달의 시제를 겸하여 지내기도 한다.

절사의 장소는 원칙적으로 묘에서 지내나, 요즘에 와서는 재실이나 사당에서 지낸다. 절사는 묘제이기 때문에 절사 절차는 묘제 절차와 같은데, 대략 진설, 강신, 참신, 초헌, 독축, 아헌, 종헌, 사신, 철상 순으로 행하며, 산신제도 지낸다.

한식 절사

한식에 묘소에 가서 지내는 제사로 이날에 사당에서 차사를, 묘소에서는 묘제를 지냈다. 한식의 성묘는 당나라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한식제를 지냈다. 고려시대에는 이날을 대표적인 명절로 여겨 국가에서는 종묘와 각 능원(陵園)에 제향하였고, 민간에서는 묘소에 올라가 성묘를 하였다. 이에 조선시대에는 한식이 4명일의 하나로서 4대친에 대한 절사를 지냈다.



① 당진 손기로그의 독축

② 합문 I 한식 절사를 묘소에서 지내는데, 이날 비가 와서 집에서 제사음식을 차리고 망제(望祭)를 지냈다. 한식의 시식(時食)인 인절미를 메강 대신에 올렸다.

청주 우암중가에서는 한식과 추석에 절사를 지낸다. 청주 집에서 새벽 일찍 차사를 지내고 나서, 우암 송시열 및 4대친의 묘소가 있는 괴산군 청천면에 와서 절사를 지낸다. 요즘에는 묘소까지 제사음식을 들고 올라갈 사람이 없어서 묘소 아래에 있는 재실에서 절사를 지내며, 집에서 마련한 간단한 음식을 가지고 묘소에 올라가 차사 절차에 준하여 천(薦)을 한다. 이것은 재실에서 절사를 지내는 것이 미안하다 하여, 집에서 직접 마련한 술, 과일, 육포를 가지고 묘소에서 천(薦)을 하는 것이다.

천의 절차는 차사(茶祀)에 준하는데, 먼저 묘소에 이르러 재배를 하며, 상석에 잔반 2개, 시접 하나에 젓가락 2벌, 육포 2개, 굴 2접시, 딸기 2접시를 각각 진설한다. 소중손이 묘소 앞에 나와 분향을 하고 분향 재배를 하며, 술잔을 들어 향탁 아래에 세 번 나누어 조금씩 붓고서 강신 재배를 한다. 종손 이하 제손들이 참신 재배를 한다. 소중손이 술병을 들고 제상에 놓여진 잔반 위에 고위와 비위 순으로 술을 붓고, 젓가락을 시접 위에 가지런히 놓는다. 소중손만이 재배를 한다. 잠시 서서 기다린다. 얼마 후에 젓가락을 내리고 종손 이하 제손들은 사신 재배를 한다. 철상을 하고 음복을 한다.



청주 우암중가의 숙사소경(肅俊少頃)

천에 이어 재실에서 절사를 지낸다. 절사는 원래 묘소에서 하나, 현재는 묘소 아래에 있는 재실에서 지낸다. 재실 대청에 제상을 차려놓고 진설이 끝나면, 종손 이하 참신 재배를 한다. 이어 종손이 신위전에 나와 분향을 하고 분향 재배를 하며, 술잔을 기울여 모사기에 따르고 강신 재배를 한다.

중손이 초헌을 하는데, 신위전에 나와 헌작을 하면, 집사자가 육적을 올리며, 밥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꿇으며 젓가락을 시접 위에 가지런히 놓는다. 대축이 중손의 좌측에 나와 축문을 읽는다. 중손 이하 모두 부복한다.

독축이 끝나면 중손만 초헌 재배를 한다. 아헌과 종헌도 초헌과 같은데, 다만 독축을 하지 않고, 아헌에 계적을, 종헌에는 어적을 올린다. 종헌이 끝나면 잠시 서서 기다리며, 5분 정도 지난 후에 국을 내리고 송늬를 올린다. 잠시 서서 기다린 후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내려 시접 위에 놓고, 밥 뚜껑을 닫는다. 잠시 기다린 후에 사신 재배를 한다. 철상을 하고 재실의 오른편에서 분축을 한다.

절사에 이어 산신제를 지낸다. 산신제는 재실 왼편의 비각이나 은행나무 아래에서 한다. 산신제는 절사에 준해 진설, 분향, 강신 퇴주, 참신, 초헌, 정저, 독축, 아헌, 종헌, 속사소경, 사신, 철상, 분축 순으로 행한다.



① 청주 우암종가의 참신재배 ② 독축

한식 시제

조선시대에는 한식이 4명일의 하나로서 4대친에 대한 절사와 함께 5대조 이상의 선조에 대한 묘제도 지냈다. 『해동죽지』에는 청명과 한식에 ‘산소에 간다’고 하였으며, 『면암유고』에는 “각 능원과 묘궁에도 관리를 보내 제사를 지내며, 4대친의 범위를 넘어선 조상의 산소에서든 모두 제사를 지낸다. 하인들도 술과 과일을 마련하여 산소에 오른다”고 하여, 한식에는 4대친은 물론 5대조 이상 선조의 묘제를 지냈다.

또한 한식이 2월 내지는 3월에 걸치거나, 청명, 상사 등과 중복되어 대체로 2월의 시제와 겹치기도 했다. 또한 『주자가례』는 묘제를 3월에 택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한식에 날을 정해 사당에서 시제를 지내거나, 또는 시조와 선조의 묘소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날 조상의 묘소가 헐었으면 봉분을 개수하며 주위에 식수도 하고 사초(莎草)도 하였다. 그리고 조상의 묘가 멀 때에는 묘지기가 대리로 제향을 지내기도 하였다.

파주 파평윤씨가에서는 1년에 두 번 시제를 지내는데, 한식에는 교하향사(交河鄉祠)에서 불천위 3위에 대한 시제를 지내고, 가을 10월에는 묘소에서 시제를 지낸다. 즉 파시조로서 한식에는 사당에서 시제를 지내고, 10월에는 묘소에서 5대조 이상에 대한 묘제를 함께 지내는 것이다. 한편 안동권씨 시조묘와 동래정씨 시조묘에서는 한식과 10월 중정에 묘제를 지내는데, 이를 관행적으로 시제(時祭)라고 한다.



① 파주 파평윤씨가의 분향



② 현작



① 동래정씨 시조묘 전경
② 합문

추석 절사

추석에 묘소에 가서 지내는 제사로, 한식과 함께 대표적인 절사의 하나이다. 특히 율곡 이이가 가묘의 사시제와 사명일의 절사를 조정하면서, 한식과 추석에는 『주자가례』의 묘제에 따라 제사 음식을 갖추어 축문을 읽고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낼 것을 주장하면서, 추석에는 사당에서 차례를 지내거나, 묘소에서 절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추석 절사의 절차는 『주자가례』 묘제에 준하여, 4대친의 묘소에서 진설, 강신, 참신, 초헌, 독축, 아헌, 종헌, 사신, 철상으로 진행되며, 산신제도 지낸다. 추석 절사의 경우 축문에는 ‘白露既降’이라 쓴다. 서리가 내려 기후가 변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에 추모의 정을 펼치고자 절사를 지낸다는 것이다.

일산 율곡종가에서는 추석에 율곡선생의 묘소가 있는 자운서원에서 추석 절사를 지낸다. 특히 율곡선생이 『격몽요결』에서 한식과 추석에 제사음식을 갖추어 축문을 읽고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낼 것을 밝혀 놓았듯이, 종가에서는 추석에 절사를 지낸다.



① 고양 율곡종가의 초헌 헌작 ② 독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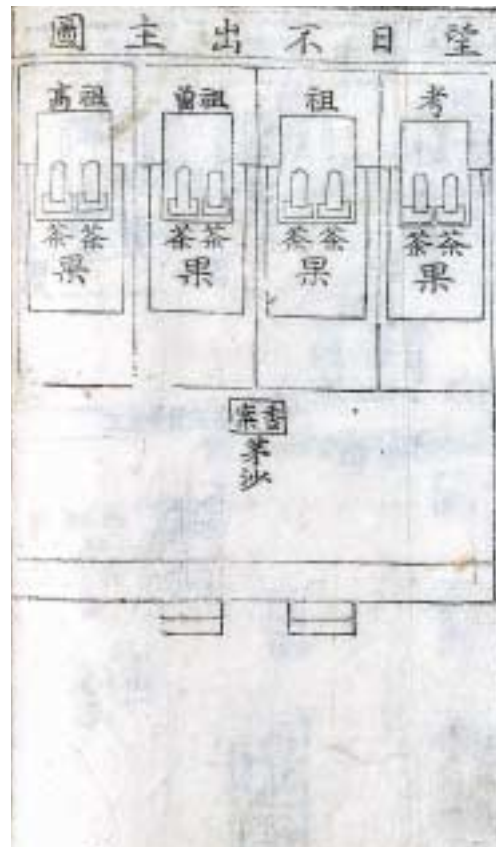
① 고양 율곡증가의 아헌 헌작
② 숙사소경(肅侯少頃)

2) 차례

차례는 일반적으로 매달 초하루와 보름, 명절 및 조상의 생일 등에 지내는 제사를 말하는데, 차사(茶祀) 또는 다례라고도 한다. 『주자가례』 등의 예서에는 차례라고 명명되어진 것은 없지만, 대체로 『주자가례』에서 언급한 사당에서 행하는 예를 차례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정조(正朝: 1월 1일), 하지, 동지, 매월 초하루 및 보름날에 행하는 참례(參禮), 정월대보름, 삼월삼짇날, 한식, 단오, 유두, 칠석, 추석, 중구 등의 속절(俗節)에 약밥, 쫄면, 국수, 송편 등의 시절음식을 올리는 절사(節祀), 입춘, 청명 등에 새로 나온 과일이나 생선 등을 올리는 천신례(薦新禮) 등이 이에 속한다. 이에 차례의 대상도 사당에 모셔진 불천위(不遷位)는 물론, 기제 범위에 해당하는 4대 조상까지이다.

차례는 원래 차를 올리는 예를 말한다. 이와 같은 예로, 일찍이 신라시대에 충담사가 매년 중삼(重三)과 중구(重九)에 차를 끓여 남산 삼화령의 미륵세존(彌勒世尊)에게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팔관회 연회나, 경령전(景靈殿)에서 설, 단오, 추석, 중구에 차를 올렸으며, 이규보(1168~1241)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도 ‘중의선사(鍾義禪師)의 제사에 차와 과일을 올렸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도 진찬(進饌) 등의 연회에 차를 올리고, 중국의 사신을 영접하는 데에 차와 술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제사와 잔치 등에 차를 올리는 예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 및 『고려사』 등의 역사서에 ‘차례’라고 명명된 것도 없으며, 『주자가례』, 『가례집



망일불출주지도(望日不出主之圖) 『가례집』

람, 『사례편람』 등의 예서에도 ‘차례’라고 명명된 것은 없다. 따라서 오늘날 설과 추석 등에 지내는 차례의 어원은 여말선초 중국의 『주자가례』를 수용하면서 명명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신라 이래 제례 및 특별한 잔치 등에 차를 올리는 예가 있었지만, 사대부들이 『주자가례』의 제례를 수용하면서 그 절차 가운데 차를 올리는 예의 의미를 강조하여 차례라고 함축하여 명명한 것이 아닌가 한다.

『주자가례』의 사시제(四時祭) 및 삭망의(朔望儀)를 보면, 절차 가운데 헌다(獻茶), 점다(點茶) 등의 차를 올리는 예가 있다. 사시제의 경우 식사를 하하도록 문을 닫는 함문(闔門) 이후에 주인과 주부가 차를 받들어 바치는 절차가 있으며, 정지삭망의(正至朔望則參)와 속절의(俗節則獻以時食) 및 고사의(有事則告)에는 주인과 주부가 술과 차를 올린 이후에 재배하며, 다시 모든 참사자들이 사신(辭神) 재배를 하는 절차가 있다. 특히 보름에 행하는 망참의(望參儀)에는 술을 쓰지 않고 차만 쓰기 때문에 전적으로 사당에서 차를 올리는 예를 행하게 된다.

이에 조선의 사대부들이 『주자가례』를 행용하면서 사당 또는 영당(影堂)에서 차를 올리며 행하는 예를 차례라고 명명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문건(1495~1567)의 『목재일기』를 보면, “정월대보름에 안봉사(安峰寺) 영전(影殿)에 모셔진 조상의 영정 앞에서 차례를 지냈다. 떡·국수·포·적·과일 이외에 시절음식인 약밥을 진설하여 분향(焚香) 강신(降神)하고, 이어 대추차(棗茶)와 술을 올리고 축문을 읽었다. 독축 후 재배하고 물러났으며, 잠시 후에 사신 재배하고 물러났다”라는 차례 내용이 적혀 있다. 권문해(1534~1591)의 『초간일기』에도 매월 초하루나 보름 등에 사당에서 차례를 지낸 ‘행차례(行茶禮)’ 기록이 보이는데, 이때 새벽에 단지 국수와 떡을 차려놓고서 술 한잔을 올렸다고 한다.

이때 모두 차를 가지고 예를 행하여 차례하고 한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이이(1536~1584)의 『격몽요결』 제의초를 보면, 사시제에 진다(進茶) 절차에 혹 숙수(熟水; 송능)로써 대신한다고 하고, 보름날에는 술을 쓰지 않기 때문에 차만 쓴다고 하였으나, 오늘날 풍속에는 차를 쓰는 예가 없다고 하였다. 이재(1680~1746)의 『사례편람』에도 차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풍속에서는 차를 쓰지 않기 때문에 진다(進茶), 점차(點茶) 등의 문장은 제거하며, 만약 따로 제물이 있으면 각 신위의 술잔과 잔 받침 사이에 수저와 접시를 놓는다고 하였다. 송능상(1710~1758)도 『운평문집』에서 우리나라에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세속에서는 차 대신에 예주(醴酒)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에 기제 및 차례 등에는 『주자가례』대로 진다(進茶)에 차를 쓰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우리나라의 풍속상 술이나 송능, 물로써 차를 대신하기도 하였다.

조선후기에 오면 기제 및 묘제가 사시제보다 중요시되고, 차례가 사시제를 대신해서 사당에서 설, 추석, 동지, 단오 등에 행해짐에 따라, 차례상도 기제상에 준하여 차리되 밥과 국(飯羹)대신에 시절음식을 올리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홍석모(1781

~1857)는 『동국세시기』에서 서울풍속에 정월 초하루에 사당에 배알하고 제사지내는 것을 차례라고 하였다. 그리고 최영년(1856~1935)의 『해동죽지』에도 절사(節祀)를 차례라 하였으며, 설에 행하는 차례를 떡국차례라고 하였다.

곽중석(1846~1919)의 『육례홀기』를 보면, 차례가 육례(六禮) 속에 포함될 정도로 제례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육례홀기』의 차례 절차를 보면, 정조(설), 추석, 동지, 단오 등에 주인 이하 사당에 나가 분향 재배하고서 참신하며, 각 신위의 술잔에 술을 따르고서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을 바르게 하여 재배하였다가 잠시 후에 모두 재배하고서 사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때 차 또는 송냥을 올린다는 진다의 차를 올리는 예는 없다.

반면에 박문호(1846~1918)의 『사례집의』에는 차례라고 언급하지 않았지만, 차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삭참의(朔參儀)에는 주인 이하 각 신위의 술잔에 술을 따르고서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을 바르게 한 다음에 독축하고, 독축 후에 재배하고 잠시 기다렸다가 모두 재배하고서 사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밥이 있으면 국을 물리고 송냥을 올린다는 진다의 차를 올리는 의미를 부가하고 있다. 이처럼 ‘차례’라든지, 차를 올리는 진다의 의미를 살리고 있지만, 실제로 차 대신에 술이나 송냥을 올리는 것처럼 단지 차례라는 명칭만 남게 되었다.

일제시대에는 1935년 조선총독부에서 제정한 「의례준칙」에 의해 단지 조, 부 2대에만 한하여 기일에 지내는 기제와 1년에 한번 지내는 묘제만 제례로 통일되었고, 1939년에는 오랜 차례 관행에 의해 기제 및 묘제 이외에 정월 원조(양력 1월 1일) 및 팔월 추석(음력 8월 15일)에만 차례를 지내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 때 차례의 절차는 신주 또는 지방을 봉안하고서 강신(降神), 진찬(進饌), 단헌(單獻), 사신(辭神), 철찬(撤饌)을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1969년에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도 「의례준칙」에 의해 2대를 봉사하는 기제와 함께 차례는 그 대상과 장소와 참례자의 범위를 기제에 준하게 하되, 양력 1월 1일 아침에 떡국으로 밥을 대신할 수 있게 한 연시제(年始祭)와 추석에 떡(송편)으로 지내는 절사(節祀)로 통일되었다. 1999년에 제정된 「건전가정의례준칙」에 의해 설(음력 1월 1일)과 추석(음력 8월 15일)이 명절차례로 정해졌고, 성묘는 제수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간소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현재 차례 관행은 설과 추석에 성묘와 함께 행해지고 있으나, 지역과 가문의 전통에 따라 정월대보름, 단오, 중구, 동지 등에 약밥, 팔죽 등의 시절음식을 차려놓고 조상에 대한 예를 다하고 있다. 옛날처럼 매달 초하루와 보름, 명절 등에 차례를 지내는 것은 아니지만, 조상이 항상 집에 계신 듯이 계절의 변화와 함께 집안의 일상사를 고하는 마음자세로 차례를 지냄으로써 조상에 대한 은덕을 되새겨보는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설 차례

설에는 새해를 맞이하여 사당에서 차례를 지낸다. 설날 아침 일찍 사당이나 대청에 세찬(歲饌), 세주(歲酒), 떡국 등을 진설하고 제사지내는 것을 차례라 하는데, 설날은 4명일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상의 묘소를 찾아가 간단한 세찬과 세주를 차려놓고 예(禮)를 올리는 절사를 지냈다. 오늘날에는 절사를 지내지 않고 성묘를 한다.

설 차례는 특별히 떡국이나 만두를 차려놓고 지내기 때문에 떡국차례, 만두차례라고 하는데, 집안에 따라 다르지만, 종가에서부터 차례를 지낸 후에 아래로 내려가며 집안의 차례까지 모시기도 하며, 또는 집안의 차례를 먼저 지낸 후에 윗조상으로 올라가며 최종으로 종가에 모여 차례를 지내고 음복(飮福)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차례가 모두 끝나면 가까운 집안끼리 모여 조상의 묘소를 찾아 절사를 지내거나, 성묘를 하는데, 설의 절사는 율곡이 설과 단오에는 축문과 산신제 없이 간단히 지내자고 한 것처럼 한식이나 추석에 비해, 절사 대신에 성묘로 대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① 파주 파평윤씨의 진찬

② 현작



- ① 정지삭망참례도 『검암선생문집』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② 안동 서애중가의 차례 헌작
 ③ 합문

정월대보름

음력 정월보름날은 상원(上元)이라고 하는데, 설과 함께 정월의 대표적인 명절이다. 이날은 신라시대 약밥의 고사가 유래하듯이, 고려시대에도 대표적인 명절이었고, 조선시대에는 약밥 또는 약반(藥飯)을 만들어 사당에서 차례를 지냈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복쌈이라 하여 배추나 김으로 오곡밥을 싸서, 온갖 나물과 함께 차례를 지냈는데, 이를 관행적으로 보름 제사라 하였다. 이에 전라도 해안지역에서는 오곡밥을 나물과 함께 제사상을 차려 놓는데, 조상에 대한 제사상과 함께 성주상과 문신상을 차리고, 제사 후에는 헌식을 하기도 한다.

경북 영해에는 남자들이 동제를 지내려 당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집에 남아 있는 여자들이 중심이 되어 차례를 지낸다. 지금에 와서는 차례라고 하기 보다는 오곡밥에 한꺼번에 조상 신위별로 숟가락을 꽂아놓고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비손을 하기도 한다.



① 차례상 | 전남 장흥 ②③ 비손 | 경북 영해

추석 차례

추석에도 차례를 지내고 절사를 지낸다. 설 차례와 달리, 흰 떡국 대신에 햅쌀로 밥을 짓고 술을 빚으며, 송편을 만들어 차례를 지낸다. 가을 수확을 하면 햅 곡식을 조상에게 먼저 천신(薦新)한 다음에 먹는데, 추석 차례의 경우에는 천신의 의미가 강하다. 그래서 차례상의 경우 햅쌀로 밥을 지어 토란국과 함께 올리고, 떡 대신에 송편을 올리기도 하며, 쌀가루에 햅 콩, 밤, 대추 등을 넣고 찐 모듬떡을 놓기도 한다. 그리고 밥 대신에 송편을 주식으로 올려놓기도 한다. 그리고 추석이 너무 빨라 곡식이 수확되지 않으면 한줌의 벼를 베어 밥 대신에 놓기도 하며, 추석차례 대신에 중구차례로 대신하기도 한다.

추석 차례는 설 차례와 비슷하나, 밥을 올려놓을 경우에는 현작 후에 진다의 절차가 있으며, 송편으로 밥을 대신할 경우에는 진다의 절차가 생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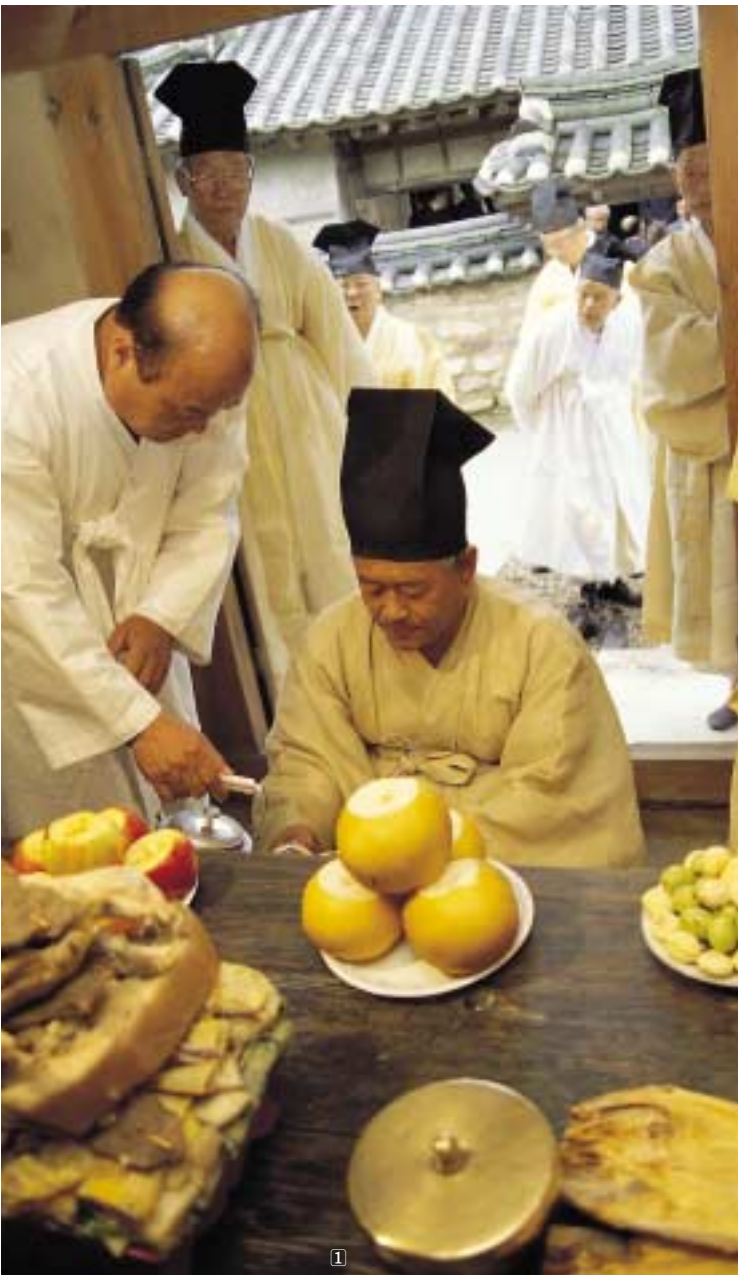
차례가 모두 끝나면 가까운 집안끼리 모여 조상의 묘소를 찾아 절사를 지내거나, 성묘를 한다. 추석 절사에는 한식과 같이 축문을 읽고 산신제를 지냈는데, 추석이 8월의 시제와 겹쳐서, 대체로 8월에는 가묘의 시제보다는 묘소의 절사를 지냈다. 오늘날에는 절사를 대신해 주로 성묘를 하며, 추석 전후로 별초를 하면서 성묘를 하거나, 묘제(시제관행)를 지내기도 한다.



나주 임씨종가의 추석차례



- ① **해남 고산종가의 차례 합문** | 고산사당에서 종손이 주전자를 들고 직접 고위와 비위 잔을 가득 채운다. 그리고 신위 오른쪽에서 우린 차를 차례로 올리고 재배를 한다. 진다례가 끝난 후에 참례자 모두 한참 동안 국궁을 한다. 국궁이 끝나면 참사자 모두 사신 재배를 한다.
- ② **현작** | 고산사당의 차례가 끝난 후에는 안사당으로 가서 4대의 조상에 대한 차례를 지낸다. 차례 순서는 고산사당과 같은데, 단지 안사당에는 차를 올리지 않고, 현작도 종손이 고조만 하고, 이하는 후손들이 차례대로 잔을 채운다.
- ③ **성묘** | 음복이 끝난 후에는 종가의 뒷산에 있는 어초은 산소에 가서 성묘를 한다. 성묘는 음식을 차리지 않고 단지 산소 앞에 줄지어 서서 재배를 한다.



①



②

- ① 대구 백불암종가의 차례 현작 | 종손이 다시 신위전에 나오면 집사자가 제일 윗 조상부터 잔을 내려 종손에게 주고 술을 가득 채운다. 종손이 술잔을 다시 집사자에게 주면 집사자는 윗 조상부터 술잔을 제자리에 놓는다. 종손만 재배를 한다.
- ② 함문 | 현작 후에 탕 뚜껑을 열고 그 위에 숟가락을 놓으며, 종손 이하 참례자 모두 서서 속사소경을 한다. 약 10분 후에 종손 이하 참례자 모두 사신 재배를 한다.



- ① 경주순씨증가의 추석차례 I 종손이 참신 재배 후에 불천위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서 분향을 하며 술을 모사기에 붓고 강신 재배를 한다.
- ② 성주한주증가의 차례 송편 I 도적 옆에는 편을 놓는다. 콩, 팥, 대추, 밤 등의 햇곡식과 과일을 쌀가루에 찐 망영실(모듬떡)을 편들에 놓고, 그 위에 모시송편과 송편을 올려놓는다.
- ③ 현작 I 주인이 고조 신위전에서 집사자가 따라준 술잔과 도적, 편을 고조, 증조, 조, 부 순으로 올리고, 젓가락을 시접 위에 가지런히 놓는다.



① 제주도의 머듬 벌초
② 제주도의 벌초 후 묘제
③ 제주도의 추석 차례

중구 차례

중구는 양수(陽數)인 9가 겹쳤다는 뜻으로 중양(重陽)이라고도 한다. 이날은 유자(柚子)를 잘게 썰어 석류·잣과 함께 꿀물에 타서 마시는 화채(花菜)와 국화전(菊花煎)을 부쳐 먹었는데, 이를 시식(時食)으로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추석을 대신하여, 햇곡식과 햇과일 등으로 차례를 지내기도 한다.



- ① 안동 귀촌중가의 합문 | 종손이 신위전에 나아가 헌작을 하고 나서 재배를 한다. 사당으로 나오면 종손 이하 참례자들이 모두 복복을 한다.
- ② 안동 서애중가의 분향 | 진설이 끝나면 감실의 문을 열고 주독의 덮개를 열어 신주를 모신다. 종손이 분향을 하며 술을 모사기에 붓고 재배를 하면 참례자 전원 참신 재배를 한다.
- ③ 안동 겸암중가의 강신 | 진설 후에 종손이 분향을 하고 술을 모사기에 붓고 강신 재배를 한다. 이어 종손 이하 참례자 모두 참신 재배를 한다.

동지 차례

동지는 24절기의 하나로, 동지부터 차츰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날을 양(陽)이 생기기 시작하는 날이라 하여 일양(一陽)이 생겨나는 때라고 하였다. 중국 주나라에서는 동지가 든 달을 자월(子月)이라 하여 설로 삼았고, 『동국세시기』에서는 이날을 ‘아세(亞歲)’라고 하고, 민간에서는 ‘작은 설’이라 하여 명절로 여기었다. 이에 동지에는 팔죽을 쑤어 사당에 차례를 지냈다.



① 창녕 서흥김씨가의 삼시

② 팔죽

③ 국궁! 술을 따라 각 신위마다 올린 다음에, 손가락을 팔죽에 꽂고, 젓가락은 시접 위에 바로 놓는다. 잠깐 동안 국궁한 후에 팔죽에 꽂혀 있는 손가락을 내려놓는다. 이어 사신 재배를 한다. 신주갑으로 신주를 씌우고, 최종으로 주죽을 덮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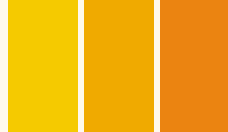
그믐 차례

그믐 차례는 그믐날 해질 무렵에 지내는데, 관행적으로 그믐제사라고 한다. 그믐 차례도 설이나 추석과 같이 보통 4대를 모신다. 진설이 끝나면 신위별로 술을 따라 올리고 재배를 하며, 밥에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은 세 번 차례상에 두드리고 나서 떡, 포 등에 대고 시접에 올려 놓는다. 1시간 후에 조상신 이외의 다른 귀신들을 위해 헌식을 한다. 문 앞에 별도의 상을 차려 문신에 제사를 지내고, 대문 밖에는 짚을 깔고 물밥을 준다. 밥 그릇에 제상의 음식 이외의 음식 중 밥, 국, 탕, 고막, 술을 버무려서 준다. 즉 차례상으로 조상님을 모시고, 차례상 이외의 음식으로 다른 신에게 헌식하는 것이다. 이어 가정의 평안을 위해 성주님에게 제사를 지낸다. 대주(大主)를 위해서는 상 위에 쌀을 담은 그릇에 촛불을 켜고, 이하 큰아들, 작은 아들, 막내 아들을 위해서는 상 아래에 쌀을 담은 그릇에 촛불을 켜 둔다. 이전에는 부엌의 조왕신에게도 제사를 지냈다고 하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① 차례상 I 보성군 벌교 ② 성주상 ③ 그믐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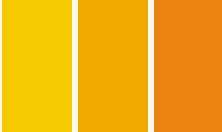
***Jesa* in Kore**

Jesa is a memorial service for the deceased ancestors or a sacrificial rite to offer foods to the divine spirits. Therefore, they display the peace of the state and the dignity of the royal authority by way of the power of heaven and earth and seek harmonious kin relationship and the prosperity of their descendants by cherishing the memory of the ancestors.

State-sponsored *Jesa* was performed in *Wongudan*, *Jongmyo* or *Sajikdan* and the king show the authority of sovereign power in this rite. *Wongudan* was used for service dedicated to heavenly god while they held a service for gods in charge of earth and grain in *Sajikdan*. In *Jongmyo*, a shire for the ancestors of the royal family as well as for the state, memorial services were practiced in spring, summer, fall, winter, and other seasonal holidays. *Seokjon* signifies *Jesa* for Confucius.

Since state-sponsored *Jesa* was very big, for the purpose of pleasing spirits the court musicians were invited to play music and dance. Especially raw meat was provided for the service. On the other hand, individual *Jesa* is as follows; *Gijesa* performed on the anniversary of ancestors' death, *Sasiye* practiced for the each four season, *Myoje* in front of the graves, and *Charye* for the seasonal holidays. In the contemporary society, *Gije* and *Charye* are the most widely performed *Jesa* for the individual households.





韓國の祭祀

韓國の祭祀は神様に飲食を供えて祈願し、亡くなった祖先を追慕する儀式に分けられる。然して天地の力をもち國家の和平と王様の位相を表し、祖先を追慕して子孫らの繁榮と親類の愛を圖った。祭祀は天神に祭られることを「祀」、地祇には「祭」、人鬼には「享」といい、文宣王の孔子の「釋奠」とは區別したが、後代にいたって全部「祭祀」と通稱された。

國家祭祀は珤丘壇 社稷壇 宗廟などの大祭祀があり、王様はそれを通じて王様としての位相を表した。珤丘壇は高麗時代から朝鮮初期まで天命の授けられた天子に天神を祭られてきたところであるが、世宗代に諸侯國のものであるといい廢止された。その後、大韓帝國期の高宗皇帝により再び復活されたが、日本帝國により崩された。

社稷壇は國家を象徴する宗廟社稷(土地の神様の「社」と穀物の神様の「稷」という)を祭るところである。これは農業と民の生活における最高の神様として知られて、ソウル以外に各郡縣に社稷壇を建て二月(農事の始まり)と八月(收穫の始まり)、總二回にかけて行われた。

宗廟は王室の祖先の祠堂でありながら國家の祠堂として王朝の創建されると社稷とともに最初に立てられた。宗廟は永寧殿と正殿に構成されており、現在、永寧殿には遷遷した神主が、正殿には太祖の以下の太宗などの世室 四代親を含め、總十九の王様が祭られている。祭祀は春・夏・秋冬 臘日などの大享と節日の折りの俗節祭をまつられている。

釋奠とは孔子を敬慕する祭祀をいう。孔子の祭られている祠堂を文廟といい、成均館及び全國の郷校に行くと見られるのである。それは朝鮮王朝が儒教的政治理念を國是に定めて學校の内に教育の空間とともに祭祀の空間を備えて人材を育成しようとする政策のためであった。

以上、國家祭祀は神様を楽しませるために音楽を演奏して佾舞を舞わせたのが特徴である。また、供物は上古時代の祖先らを敬って牛・羊・豚などの生肉を供えるのがたならわしである。

家門祭祀は忌祭、墓祭、茶禮などがある。韓國傳統の祭祀は高麗末から朝鮮初期の中國の『朱子家禮』を士大夫らにより受容されて徐々に庶民層まで普及して形成された。最初は身分により奉祀代数も法制的制限があったが、朝鮮後期になると身分を區分せず四代奉祀に定められた。

忌祭とは忌日祭祀の略稱で、毎年故人の亡くなった日に祭る祭祀をいう。元々 四代親の代数がたつと神主をお墓に埋めて墓祭が祭られる。しかしながら兩班家には國家の功臣あるいは學行などの優れた祖先の場合、いわゆる不遷位といって特別に祠堂のうちに永久に祭られている。

墓祭は祖先のお墓の前に供え物を整えて祭る祭祀であり、儀式の順は忌祭とほぼ同じであるが、土地神の祭祀とは異なっている。今日には寒食及び十月に五代祖以上の祖先に祭る墓祭を時祭という。

茶禮は一般に毎月一日や十五日、節日などを期して祠堂で祭る禮であるが、茶祀また茶禮ともいわれる。日帝強占期からお正月・お盆に限って茶禮と墓參のみ強制的に實行されたことが今まで續けている。そのゆえに家門祭祀として忌祭・墓祭・茶禮を第一とすることになった。



韓國的祭祀的祭祀

祭祀是以食品供奉神靈或祖先，表示崇敬并祈求保佑的儀式，一方面象征性地借助天地的力量顯示王權的威嚴，祈禱國家的安寧，癩一方面追慕祖先以求保佑子孫繁衍和親族和睦。

在古代，根据所祀對象的不同，不同祭祀各有專名：供奉天神稱“祀”；供奉地祇稱“祭”；祭奠人鬼爲“享”；祭奠文宣王孔子爲“釋奠”。后代逐漸取消這種稱謂的區別，統稱爲祭祀。

根据行祭主體的不同，韓國的祭祀可以分爲國家祭祀和家庭祭祀兩種。

國家祭祀常在瑤丘壇，宗廟和社稷壇舉行，規模盛大，由此彰顯王權的聖威。其中瑤丘壇出現于高麗和朝鮮初期，是儀供“真命天子”祭祀天神的地方；到朝膳世宗朝，因自稱爲諸侯國而廢除此壇；大韓帝國高宗皇帝登基后重建瑤丘壇，繼被日本廢除。

“宗廟社稷”是一個國家存亡的象征，其中“社稷”包括祭祀土地的“社”和祭祀谷子的“稷”。土地神和谷神被認爲是掌管老百姓生產生活的最高神，對他們的供奉遍及儀城和各個郡縣。社，稷祭祀通常是在農耕之始的二月和秋收之初的八月舉行。

宗廟是王室的祖先祠堂，具有國家祠堂的地位。每新王朝創建之際，與“社稷”一起最先建立。宗廟由正殿和永寧殿組成，正殿供奉太祖，太宗和四大親等共19位祖神，永寧殿供奉遞遷的祖神。宗廟的祭祀有春，夏，秋，冬和臘日五大享，癩外重要年節還會舉行俗節祭。

釋奠指對孔子的祭祀。供奉孔子的祠堂稱爲文廟，設于成均館和全國各地的鄉校。因朝鮮王朝將儒教政治理念作爲國是（國家大計），故在培養人才的學校廣設供奉儒教先聖的場所。

上述國家祭祀在儀式中都有奏樂和佾舞的內容；祭祀中的獻禮爲生的牛，羊，猪肉，以效敦上古時代人們生吃肉的情況，表示報答祖先的恩德。祭祀的規模和形式上都具備國家大祀應有的特点。

家庭的祭祀有忌祭，墓祭和茶禮三種。高麗末期和朝鮮初期，隨着士大夫逐漸接受中國的《朱子家禮》，傳統祭祀開始普及，一般庶民亦行祭。朝鮮初期尚以法律限制不同身略者的奉祀範圍，到朝鮮末期，奉祀四代祖先普遍化，不受身略限制。

忌祭是忌日祭祀的簡稱，指每年去世之日在祠堂爲四代以內祖先舉行的祭祀。通常四代以上的祖先不再立牌位受供，但士大夫家里，國家的功臣或學問出衆的祖先永遠供奉于祠堂，超過四代亦不撤其靈位，這叫做“不遷位”。

墓祭是在祖先墓地舉行的祭祀，過程與忌祭相敦，不同的是祭祀對象增添了土地神。現在，寒食和十月祭祀五代以上祖先的墓祭，又稱“時祭”。

傳統的茶禮爲每月初一，十五和重要節日在祠堂舉行的祭祖儀式，又名“茶祀”。日本殖民統治時期，簡化爲只在春節和中秋節舉行茶禮和掃墓，沿習至今。



한국의 제사

2003년 12월 23일 인쇄

2003년 12월 27일 발행

발행 : 국립민속박물관

www.nfm.go.kr

02)725-5964

디자인·인쇄 : 필 기 획

02)2275-8005

■ 이 보고서에 실린 사진과 글의 무단 게재를 금합니다.